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오성찬의 4·3소설 연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방 선 미

2021년 2월



오성찬의 4·3소설 연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윤

방 선 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일

방선미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인 누  (인)

위 원 노 대 원  (인)

위 원 김 동 윤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A Study on Oh Sung-chan's 4·3 Novels
- Focusing on 『For a communist』

Seon-mi Pang

(Supervised by professor Dong-y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0.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Dong-yun kim,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1
2. 연구 방법과 범위	7
II. 기록문학을 통한 기억투쟁	12
1. 증언집의 간행 이유와 가치	12
2. 기억주체의 증언 내용	18
III. 사실서사 수용의 서사전략과 의미	37
1. 사실서사의 수용양상과 서사구조	37
2. 소설적 재현의 서사전략	45
3. 수용된 사실서사의 강조점	56
IV. 상상서사의 특징과 의미	66
1. 지식인 주인공의 윤리성	66
2. 소설적 현재의 역사성	73
3. 극복과 화해의 로컬리티	81
V. 4·3소설로서의 의의와 한계	93
VI. 결론	99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
<부록> 오성찬 연보	109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오성찬은 1940년 4월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서호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 그는 독학으로 문학공부를 시작하였고, 1957년부터는 ‘석좌(石座)’의 동인이었던 정영택, 현길언 등과 교류했다. 그는 1969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별을 따려는 사람들」이 당선된 후로 2012년 9월 26일 작고할 때까지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알리는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오성찬은 특히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4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제주 4·3사건(이하 4·3)을 소설화한 작가이다.

오성찬은 1970년대 4·3문학의 초기인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¹⁾에서, 「하얀 달빛」(1971), 「잃어버린 고향」(1975) 등을 발표하였다. 이 소설들은 국민학교 2학년 때 4·3을 목격하였던 오성찬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 졌다. 「하얀 달빛」에서는 무장대의 강요로 협조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 도장이 발미가 되어 토벌대에게 처형당하는 사건이 다루어지지만 그것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의미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고향」에서도 4·3이 언급되기는 하나 무장대가 일으킨 공포의 사건으로 제시될 뿐, 4·3이 작품의 주된 소재로 다뤄진 것이 아니었다.²⁾

오성찬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어 등에 대한 관심

-
- 1) 김동윤은 4·3문학의 전개 양상을 크게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1978)’,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1987~1999)’, ‘전환기적 모색과 다양한 담론의 단계(2000~)’ 등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첫 단계는 4·3이 발발한 이후부터 1978년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두 번째 단계는 「순이 삼촌」이 발표된 후부터 1987년 6월항쟁 이전까지, 세 번째 단계는 1987년 6월항쟁 이후부터 ‘4·3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마지막 단계는 ‘4·3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를 기점으로 하였다.(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40쪽 ; 김동윤, 「2000년대 4·3문학의 양상과 그 의미」, 『작은 섬 큰 문학』, 각, 2017, 319쪽)
 - 2)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위의 책, 43쪽.

을 가지고 향토연구가로 활동하면서 그 경험을 기록한 창작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는 1985년에 ‘도서출판 반석’을 설립하여 『제주의 마을』이란 향토지를 시리즈로 간행하였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제주 마을의 설촌 내력과 변천과정, 민속, 민요, 속담, 씨족 등 마을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두루 담겨 있다.³⁾ 그는 1989년 2월에 ‘제주역사연구회’를 창립하여 회장을 맡아 제주도 곳곳을 답사하면서 연구회지를 간행하였다.⁴⁾ 특히 그는 제주 곳곳의 마을에서 만난 다양한 증언자의 증언을 정리하여 『한라의 통곡소리-4.3 제주 대학살의 증언』(1988)(이하 ‘한라의 통곡소리’)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그는 1911년 태어나 4.3 당시 산으로 도망하여 숨어 살았던 중산간 마을의 농부 김승윤의 일생을 제주말로 채록·정리하여 표준어 해석과 함께 수록한 증언집(뿌리 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1991)도 간행하였다.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1980년대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에서, 오성찬은 「사포(沙浦)에서」(1982), 「풀무에 관한 보고」(1984), 「공동묘지에서」(1984), 「크는 산」(1984), 「단추와 허리띠」(1986), 「표해」(1986), 「덧에 치인 세월」(1986) 등을 발표하였다. 그 중 「단추와 허리띠」나 「풀무에 관한 보고」는 『제주의 마을』 등의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접한 도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기존의 4.3소설이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위 소설들은 4.3증언자의 증언을 토대로 써졌다. 예컨대 「단추와 허리띠」를 보면, ‘나’는 ‘마을 시리즈’의 취재차 제주의 마을을 조사하러 다니다가, 4.3 때 무장대에 의해 죽은 이의 유해를 단추와 허리띠를 통해 찾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 소설의 주요 사건은 오성찬이 간행한 향토지 『제주의 마을 3-함덕리』에 실린 증언⁵⁾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

3) 오성찬은 『제주의 마을』 시리즈를 50권으로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7개의 마을만을 정리하여 출판했다.(오성찬 문학선집 간행위원회, 『오성찬 문학선집 11』, 푸른사상, 2006, 273쪽)

4) ‘제주역사연구회’는 1989년 『제주향토무크 1』의 발간을 시작으로 1993년까지 총 3권의 연구회지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회지에는 제주 향토사, 제주 마을 조사 보고서, 현황과 과제 발굴 자료, 그리고 4.3증언과 역사 현장 순례 등이 실려 있다.

5) 그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任道彬(임도빈)(82세·함덕1구)은 4.3사건이 끝나던 고비에 2대에 걸쳐 이장을 지내고, 지방자치제시절에는 면의회 부의장도 지낸 분이다. (...) 도그네 서쪽 바닷가에 시신이 떠올랐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 거기다 쇠석(소고빠)으로 허리띠를 했는데 ‘허리끈을 따로 물었다’는 것이었다. (...) 며느리가 ‘이만저만 해서 급히 나가려는데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그걸(쇠고빠) 내어줬다’는 대답이었다. 이로써 시신이 확인되었으므로 시험 보러 서울 가 있는 아들에게 전보를 쳐서 달려와 슬픈 시신을 물었다.(오성찬, 「무방비였던 두려운 바다」, 『제

러나 이 시기의 소설들도 4·3의 문제에 전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 4·3을 다루며,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제주민중의 피해 양상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⁶⁾고 할 수 있다.

오성찬은 1987년 6월항쟁 이후인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로 오면서 작품 전반에서 4·3을 다루었다.⁷⁾ 「토산택」(1987), 「이만행 소전(小傳)」(1988), 「나비로의 환생」(1988), 「한라구절초」(1988), 「바람의 늪」(1989),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1989), 「보춘화 한 뿌리」(1989), 「겨울산행」(1990), 「표류하는 세월」(1991), 「유년의 부활」(1998), 「기억의 다리」(1998), 「바람 불어, 인연」(1999) 등의 작품이 이 단계에서 발표되었다. 이 단계는 사회적으로 아직 4·3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로 공산폭동이라는 4·3의 공식역사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오성찬은 자신이 1988년에 간행한 4·3 증언집인 『한라의 통곡소리』에 담긴 여러 4·3증언을 바탕으로 4·3의 공식역사에 대해 저항적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위 소설들을 썼고, 특히 그러한 노력의 성과물로서 「나비로의 환생」⁸⁾, 「보춘화 한 뿌리」, 「바람의 늪」, 「한라구절초」,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⁹⁾라는 다섯 편의 중편소설을 묶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실천문학사, 1989)이라는 소설집을 발표하였다. 오성찬은 이 소설집의 토대가 되는 증언집 『한라의 통곡소리』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철이 들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솔직히 한 사람의 작가로서 작품의 소재로서였다.

주의 마을 3-함덕리』, 반석, 1986, 30~31쪽)

6)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앞의 책, 53쪽.

7) 위의 책, 56쪽.

8) 「나비로의 환생」은 1982년에 발표되었던 「흰나비로나 환생하세」(『제주문학』 11집)를 개작한 것이다. 오성찬은 「흰나비로나 환생하세」에서는 4·3증언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나비로의 환생」에서는 『한라의 통곡소리』의 여러 증언을 수용하였다.

9)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라는 중편소설은 출판사의 권유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단행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실천문학사, 1989)에 실렸다. 이후 이 중편소설은 오성찬의 4·3소설을 모아 엮은 단행본 『한라구절초』(푸른사상사, 2004)에서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고, 『오성찬 문학 선집』(푸른사상사, 2006)에서도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명의 소설집과 중편소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편의상 소설집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로, 위 중편소설은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로 표기한다.

내가 4·3사건을 처음 작품 소재로 빌려 쓴 것은 1976년 연작소설 「탐라인(耽羅人)」의 한 대목으로 쓴 「하얀 달빛」이라는 단편에서였다. 그 당시 나는 우리 마을에 토벌군들이 진압차 왔을 때의 기억을 거의 사실대로 썼다. 나는 이 작품을 최근 발간한 『별을 따려는 사람들』 말미에 끼워 넣었거니와 이제 돌아보면 비린내마저 나는 이 작품은 거의 모든 ‘증인’들이 자기 기억의 주위를 맴돌듯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 후에도 나는 중편 「사포(沙浦)에서」 등 꽤 여러 편의 작품을 썼으나 기왕에 얻은 ‘경기’ 탓으로 사건의 면모를 확연히 드러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최근에 나는 「다시 쓰는 사기(史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연작 중편을 쓰고 있는 중이거니와, 5부작으로 구상중인 이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해방 직후의 역사의 파행적 형태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는 내용이다.¹⁰⁾

오성찬이 기존에 발표한 4·3소설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직접 채록한 증언을 소설화하는 방식을 통해 4·3소설의 창작방향을 새롭게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성찬의 문학적 세계관이 증언과 기억의 복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오성찬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묻혀 있던 크고 작은 기억의 조각들을 묶어 이를 소설화함으로써 4·3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해내려는 본격적인 의미의 증언소설로 나아갔던 것이다.

또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가 연작소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연작소설이란 동일한 작가에 의해 쓰인 2편 이상의 독립된 텍스트로 구성되고, 동일한 표제 하에 묶인 작품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작소설은 어떤 하나의 주제 하에 독립된 중·단편소설의 형태로 발표된 작품들을 묶어 만들므로, 각각의 중·단편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분절성의 의미와 전체적인 큰 이야기 덩어리의 연계성 사이에 독특한 긴장을 유지하게 해준다.¹¹⁾ 오성찬은 다섯 편의 중편

10) 오성찬 채록·정리, 「서문」,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13~14쪽.

11) 한국문학에서 연작소설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문구, 이청준, 조세희 등의 작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쓰여졌다. 권영민은 “여러 편의 독립된 삽화들을 모아 더 큰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결합시켜 놓은 소설”로 연작소설을 규정하고 “분절성과 계기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정리했다. 김지미는 “동일한 작가에 의해 쓰인 2편 이상의 독립된 텍스트로 구성된, 동일한 표제 하에 묶인 작품들로 독자들의 순차적인 독서 행위를 통하여 개별 작품의 의미를 심화, 확대할 수 있고 개별 작품을 묶어 낼 수 있는 전체적인 의미망을 구성할 수

소설을 연작소설로 묶으면서, 각 소설에 ‘다시 쓰는 사기(史記)’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 연작소설의 제목을 차례로 보면 「나비로의 환생-다시 쓰는 사기(史記) 1」, 「보춘화(報春化) 한 뿌리-다시 쓰는 사기(史記) 2」, 「바람의 늪-다시 쓰는 사기(史記) 3」, 「한라구절초-다시 쓰는 사기(史記) 4」,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다시 쓰는 사기(史記) 5」이다. 1980년대 4·3소설에서는 연작소설의 형태는 없었던 바, 오성찬이 다섯 편의 증편소설을 묶어 연작이란 형식을 부여한 까닭을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장르적 접근을 통해 4·3소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성찬이 발표한 여러 소설 중에서 4·3에 대한 대항담론을 본격적으로 표현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증언소설은 사회적·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진실성’과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전달성’¹²⁾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증언소설로서의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4·3의 사회적·역사적 진실성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오성찬은 『한라의 통곡소리』를 토대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을 구성하였으므로, 『한라의 통곡소리』에 실린 증언을 사실서사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서사를 상상서사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런 구분에 따라 오성찬이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에서 사실서사를 어떻게 활용해 역사적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각 소설에서 상상서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여 증언소설로서 ‘전달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4·3소설에 대한 연구를 보면, 현기영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현길연과 김석범 관련 연구도 적잖이 있다. 반면에 오성찬은 1970년대부터 많은 4·3소설을 남겼음에도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의 소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오성찬의 4·3소설에 대한 비평은 김영화가 먼저 시도하였다. 김영화¹³⁾는 오성

있는 작품”이 연작소설이라고 하였다.(김재영, 「연작소설의 장르적 특성 연구-1970년대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6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334쪽)
 12)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14~15쪽.
 13) 김영화, 「4·3의 파편들」,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129~142쪽.

찬의 소설집 『단추와 허리띠』에 수록된 「단추와 허리띠」, 「이만행 소전」, 「덧에 치인 세월」, 「토산댁」 등을 분석하면서, 위 소설들이 4·3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지 않고 소재를 아껴 반복하여 소설의 삽화로 살짝살짝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영화는 『단추와 허리띠』가 4·3의 비극을 1980년대 시점에서 접근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비평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이전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김병택¹⁴⁾은 「하얀 달빛」, 「보춘화 한 뿌리」,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유년의 부활」, 「바람 불어, 인연」 등의 소설이 4·3으로 인한 수난을 보여주지만 서사 중심이라기보다 일종의 심경소설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보춘화 한 뿌리」는 증언자의 의도에 따라 4·3의 진실을 말할 수도, 덮을 수도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인물에 대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해 그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동현¹⁵⁾은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부적 시선이 소설 곳곳에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는 오성찬이 주인공을 통해 ‘공식/공인’된 기억에서 배제된 지역의 기억을 기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며, 주인공은 실증을 확인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오성찬에 대해 제주의 로컬리티로서 4·3이라는 비존재의 존재성을 자각하고 그것들을 중심-중양의 경계에 기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성찬이 보여준 충실한 기록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서평이나 단평에서도 오성찬의 4·3소설에 대하여 평한 몇 편의 글이 있다. 정현기¹⁶⁾는 「나비로의 환생」이 6·25와 4·3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추적하면서 최악의 계기성을 과연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에 대한 명상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산당에 의해 죽은 아버지와, 4·3의 양민학살을 저지른 서북청년단이 물매를 맞고 죽은 상황을 병치시켜, 주인공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을 용서할 수

14) 김병택, 「고향의 상실과 4·3의 수난」,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125~131쪽.

15) 김동현, 「편입의 욕망과 저항의 미학 - 오시로 다쓰히로의 「신의 섬」과 제주 4·3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2019, 150~153쪽 ; 김동현, 「작가, 기록하다 - 오성찬」,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2016, 218~231쪽.

16) 정현기, 「속 풀리는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 「나비로의 환생」 월평」, 한국문학, 1989.04.

있도록 전개함으로써 민족분단으로 생겨난 원한 관계의 한 고리가 이미 한 세대를 넘기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고 하였다. 이명재¹⁷⁾는 「나비로의 환생」이 과거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드러내는 단계를 걸쳐 6·25 당시의 학살과는 상이한 4·3 사건의 참상을 대비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오성찬의 4·3소설에 대한 논의는 몇 편 되지 않고, 대부분 그의 소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한라의 통곡소리』와 같은 기록문학은 그의 4·3소설 연구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특히 그의 증언집과 작품과의 관련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오성찬의 4·3소설 전반에 대한 통시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개개의 작품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오성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오성찬의 4·3소설 창작과정이다. 오성찬의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실린 다섯 편의 중편소설은 모두 『한라의 통곡소리』라는 기록문학에서 비롯되었다. 4·3증언을 채록하고, 이를 토대로 소설을 창작한 오성찬의 글쓰기 과정은 문학과 비문학을 함께 묶어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록문학인 『한라의 통곡소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소설집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를 고찰함으로써 이 소설집이 가진 증언소설로서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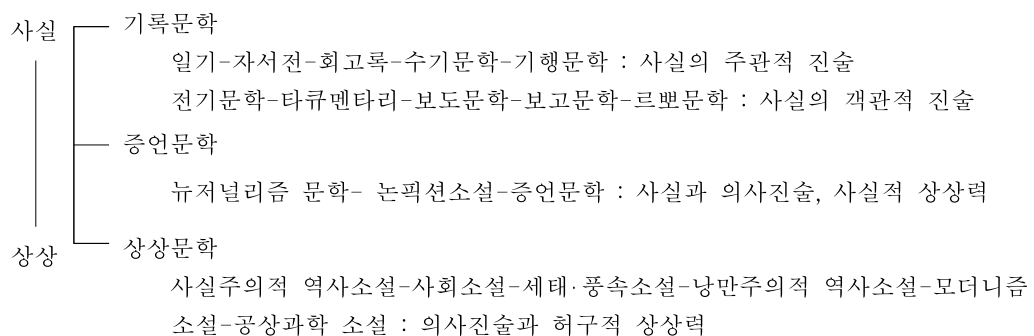
우선, 정찬영은 증언문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문학을 사실의 객관성과 상상력에 따라 기록문학, 증언문학, 상상문학으로 구분하였다.¹⁸⁾ 즉, 기록문학은 사실의 객관성이 상상력보다 우세한 문학이고, 증언문학은 사실과 객관성과 사실적

17) 이명재, 「사회인식과 실험인식」, 현대문학, 1989.04.

18) 기록문학, 증언문학, 상상문학을 사실의 객관성 정도와 상상력의 정도에 따라 잠정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정찬영, 앞의 책, 24쪽)

상상력이 조화있게 구성된 문학이며, 상상문학은 사실과 허구적 상상력으로 구성된 문학이다. 기록문학과 증언문학의 차이는 기록문학이 서술자의 직접체험의 진술이라면, 증언문학은 서술자의 관찰과 상상력에 의한 재구성이라는 점에 있다. 증언문학과 상상문학의 차이는 증언문학이 체험적 당대를 다루는 반면, 상상문학은 명백히 과거를 다루거나 허구적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상력이 우세하다는 데에 있다.¹⁹⁾ 따라서 사실이 우세한 것이 기록문학이고, 상상이 중심인 것이 상상문학이라면, 그 기록문학과 상상문학의 중간에 놓인 것이 증언문학이다. 『한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사실서사와 상상서사가 함께 서술되어 사실의 객관성과 사실적 상상력을 함께 보여준다.

다음, 증언소설²⁰⁾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언소설은 사실성과 허구성의 상호관계에서 양자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즉, 증언소설은 사실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기록문학과 공통적이지만 문학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 기록문학은 작가의 기록정신과 그에 따른 역사의식을 작품성에 선행하여 나타내고 문학적 여유 없이 기술된다. 반면 증언소설은 증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적 모색이 이루어져 역사적의식과 함께,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문학적 모색의 결과물이다. 둘째, 증언소설에서는 소재를 선택할 때 기록문학보다 사회·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기록문학의 소재는 사실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증언소설의 그것은 사회·역사적으로 소외된 것, 사회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한 것, 사회적인 문제를 보여주거나 역사적 사건이 아직 미해결인 것이어야 한다. 즉, 증언소설의 소재 선택의 기준은 기록문학보다 더욱 구체적이



19) 위의 책, 25쪽.

20) 이 연구에서는 오성찬의 4:3소설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하 증언문학에 대한 설명을 증언소설로 용어를 한정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다. 셋째, 증언소설에서 서술자는 작가가 아닌 등장인물이고, 서술은 의사진술²¹⁾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증언소설의 작가는 자신이 선택한 일정한 관점, 곧 작가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글을 쓰는 현재와 사건이 일어난 과거 사이의 거리 때문에 그 서술에는 사실적 상상력이 작용한다. 이로 인해 증언소설은 작가의 목소리를 가급적 배제한 채 각각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나 상황에 관한 관찰과 그것을 미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한다는 점에서 의사진술의 측면이 강하다.²²⁾ 즉, 증언소설은 서술형식에서 각 인물의 시점을 취하는 의사진술이라는 형식을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록문학과 증언소설은 서술자에게 같은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4·3에 대한 기록문학은 서술자에게 객관적 신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4·3에 대한 증언소설은 서술자에게 등장인물을 통해서 4·3이라는 역사를 마주한 인간의 진실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결국 증언소설에서 사회·역사적 사건이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로 전락하여 4·3 역사를 마주한 인간의 진실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증언소설로서의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언소설은 사실성과 허구성의 결합을 통해 증언과 허구의 균형을 맞춰 진실을 추구하는 문학양식이어야 한다. 이하에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증언소설적 특징을 ‘무엇을 말할 것인가’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두 방향에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증언소설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이 소설집이 가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도 주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호텍스트성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이는 크리스테바(Kristeva)이다. 그는 “모든 텍스트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여러 인용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디까지나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고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²³⁾이라고 하였다. 즉, 크리스테바가 제시한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들 사이의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르트(Barthes)는 텍스트에 대해 “하나의 유일한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들의 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것도 근원적이지 않은

21) 정찬영은 허구화하기 이전의 사실의 전달을 ‘진술’로, 사실을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서술’로 구분하였다. 이때 진술의 상대개념은 허위진술이 되고, 진술의 미학적 재구성이 서술이 된다.

22) 정찬영, 앞의 책, 30~32쪽.

23)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101쪽.

여러 다양한 글쓰기들이 서로 결합하여 반박하는 다차원적인 공간”²⁴⁾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모든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을 가진 것이고, 상호텍스트성은 모든 텍스트의 조건이 된다. 상호텍스트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은 작품들이 서로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사이, 텍스트와 사회문화적인 영향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적인 연결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⁵⁾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선행텍스트인 『한라의 통곡소리』와 후행텍스트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상호텍스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행텍스트, 즉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 사이에서 발견되는 상호텍스트성이다. 전자의 경우, 후행텍스트는 선행텍스트를 그대로 흡수하기도 하고, 변형하여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에 관한 의미의 확대·심화, 가치의 재생산화, 주제의 확장 등이 나타낸다. 후자의 경우,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은 “다중 텍스트(multiple texts)”²⁶⁾로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즉, 소설들은 서로 서사구조, 서사전략, 인물, 배경, 결말 등 다층적인 차원에서 상호텍스트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 사이, 그리고 후행 텍스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상호텍스트적인 요소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II장에서는 기록문학인 『한라의 통곡소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증언집은 1980년대 말 아직 4·3의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던 시기에 간행된 것이다. 그 시기에 오성찬이 증언집의 간행을 위해 노력했던 까닭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한라의 통곡소리』에 실린 사실서사의 내용이 소설 창작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사실서사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분류하고 분석하여 그 증언집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4) Roland Barthes, 김희영 옮김,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각, 1997, 32쪽.

25) 김도남, 앞의 책, 103~104쪽.

26) 여기에서 다중 텍스트는 하나의 화제(topic)나 주제(theme)와 관련된 여러 텍스트를 의미한다. (김도남, 「텍스트 이해의 상호텍스트성」, 『국어교육학연구』 14권, 국어교육학회, 2002, 134쪽)

Ⅲ장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사실성과 허구성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사실서사의 수용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보이는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주인공의 의식변화 과정과 수용된 사실서사의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다음,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사실서사가 서술된 방식과 그 특징을 통해 서사전략을 검토하기로 한다. 더 나아가 오성찬이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어떤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다. 수용된 사실서사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통해 이 소설집을 관통하는 소설적 진실성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Ⅳ장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드러난 특징을 상상서사에서 살펴볼 것이다. 증언소설은 증언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동시에 증언의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허구적 서사의 역할도 중요한 장르이다. 또한 증언소설의 상상서사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이면서 소설의 사회적 역할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섯 편의 중편소설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면서, 상상서사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주인공의 특징과 소설적 현재의 의미, 소설의 결말의 특징을 고찰해 보려 한다.

Ⅴ장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집이 연작소설로서 다섯 편의 중편소설의 전체적인 의미망이 이 소설집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하여, 이 소설집의 4·3소설로서의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가 보여주는 한계를 밝히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II. 기록문학을 통한 기억투쟁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수기, 전기 등의 기록문학이 성행하였고,²⁷⁾ 1980년대 초에는 민중의식의 고양과 함께 각종 수기나 르포와 같은 글이 많이 간행되었다. 당시 기록문학은 언론이 침묵하거나 획일적 목소리만 쏟아내는 농어촌 문제, 노동자 문제, 도시빈민 문제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는 사실적 기능으로 효과적인 공감 획득 방법이 되었던 것이다.²⁸⁾ 이처럼 기록문학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담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종의 과도기적 문학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4·3과 관련한 기록문학은 1980년대까지도 억압적 현실 하에 세상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다.²⁹⁾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성찬은 증언집 『한라의 통곡소리』를 간행하였던 것이다.

1. 증언집의 간행 이유와 가치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하여 전두환 정권까지 오랜 독재 하에서 민중의 희생과 항쟁은 4·3에서 4·19와 5·18로 계속 이어져왔다. 1987년 6월항쟁이 이루어낸 민주화 이후 4·3이나, 5·18 등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증언이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이하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증언채록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처럼 특이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

27) 직접 노동 당사자, 크게 말해서 현장 당사자들의 ‘문학활동’이 70년대에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이 ‘문학적 감동력’과 함께 ‘베스트셀러적 과급효과’를 또한 발휘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결과적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김정환, 「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문학』 3권, 실천문학사, 1982, 342쪽)

28) 정찬영, 앞의 책, 70~71쪽.

29) 『한라의 통곡소리』 이전의 주요 기록문학은 다음과 같다. 조덕송, 「유혈의 제주도」(『신천지』, 1948.07), 홍한표,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신천지』, 1948.08). 임두홍, 「대나오름의 기억」(경향신문 신춘 수기, 1964), 장창국, 「피로 물든 제주도」(중앙일보, 1983.01.04~01.21. 7회 기고).

의 하나가 바로 관련자들의 증언(구술)채록³⁰⁾이라고 명시하면서, 증언 채록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첫째는 한국전쟁 다음 가는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건임에도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공문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반세기 동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조사 작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억제돼 왔다는 점이다. 셋째는 사건의 성격에 대해 아직도 보는 시각에 따라 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동시대 체험자들의 구술이 필요했다.’³¹⁾

위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언은 사건이 일어난 배경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과정에서 당시 일어났던 일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이다. 또한 증언은 공식문서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숨겨진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거대담론 뒤에 숨겨진 개인의 경험은 좀처럼 기록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4·3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치로 삼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기록문학을 통한 사실 전달의 통로가 거의 막혀 있었다. 오성찬은 1969년 11월에 제주신문사 기자로 입사하여 7년 7개월 동안 기자로 활동하였고, 1979년부터는 제남신문사에서 편집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기자로서도 4·3에 관한 기록문학이 간행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오성찬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제주의 마을』이나 『제주향토무크』를 간행할 때, 4·3증언도 함께 채록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증언을 기록하여 4·3을 담론화하려는 오성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오성찬은 『한라의 통곡소리』라는 4·3증언집의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오성찬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한라의 통곡소리』는 4·3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문학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³²⁾

30)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51쪽.

31) 위의 책, 51쪽.

32) 1987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에 간행된 4·3증언집은 다음과 같다. 조천읍 증언을 채록한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 말했수다 1』(한울, 1989), 애월읍 증언을 채록한 제주4·3연구소의 『이제

오성찬은 더 늦으면 증언자의 목소리를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1980년대 말에 증언집 『한라의 통곡소리』을 간행하였다. 위 시기는 4·3이 일어난 지 거의 4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오성찬은 『한라의 통곡소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증언들은, 세월이 흐른 만큼 정확하지 못하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열심히 녹음을 하노라고는 했으나, 듣고 기록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미 40년이란 세월은 기억마저도 흐리게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지 않은가. 이런 마음의 조급함은 나의 조사 기간에만 한봉언, 현용선, 안중택 씨 등 3인의 증언자의 타계로 입증된다.³³⁾

인용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성찬은 증언자의 고령화로 인해 증언집 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소설에서도 이러한 조바심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세워진 비석의 마모된 글자들을 읽는 작업보다 급한 것은 새로운 비석을 세우는 일이다. 아직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입에 흙이 들어가 영원히 그 입을 다물어버리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야기들을 뱉어놓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각해야 된다. 이제까지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273쪽)³⁴⁾

이러한 오성찬의 조바심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한라의 통곡소리』의 증언자는 대부분 50대에서 70대였으며, 80세가 넘는 사람도 여럿이었다.³⁵⁾ 채록과 간행의 과정에서 작고한 증언자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오성찬은 서

사 말썽수다 2』(한울, 1989), 제주4·3연구소의 『4·3장정』(1~6)(1990~1993), 한림읍 증언을 채록한 제주4·3연구소의 『제주항쟁』(실천문학사, 1991), 4·3으로 사라진 마을에 대한 증언을 채록한 제주4·3연구소의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학민사, 1998)

33) 오성찬 채록·정리, 『서문』, 앞의 책, 16쪽.

34) 이 논문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록된 다섯 편의 증언소설에서 인용할 경우에 해당 인용문 끝에 (『제목』, 쪽)으로 표시함.

35) 『한라의 통곡소리』에 수록된 증언자의 연령대를 집계하면 40대 6명, 50대 10명, 60대 11명, 70대 12명, 80대 5명, 작고한 증언자 3명이다.(단, 나이가 명시된 증언자만 집계하였고, 한 편의 증언에 증언자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둘러 증언집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채록자인 오성찬은 증언집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첫째, 오성찬은 이 증언집을 4·3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증언집의 증언자들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 소개 과정에서 벌어진 학살과 관련하여, 누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며 사망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당시 민보단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꼼꼼하게 이 마을에서 사건통에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113명이나 되었다. 이름 모를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웃돈다고 한다.³⁶⁾

고씨는 이달 ‘8시까지 부대로 오라’는 지시에 따라 올라갔던 마을 대표의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시간을 지킨 덕분에 생명을 부지하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를 찾아간 날 마을에서는 이장 이군호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건통의 사망자들 이름을 맞춰봤는데 모두 63명이나 되었다.³⁷⁾

위 인용문과 같이, 죽은 이들의 이름을 정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증언자들, 그들은 죽은 이들의 이름을 남기려 한다.³⁸⁾ 증언자들이 이 사망자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사망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진상을 알려 그들의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

36) 오성찬 채록·정리, 「113명 사망자 이름 모두 기록-동북리」, 앞의 책, 45쪽.

37) 「감산리도 61명 죽어」, 위의 책, 51쪽.

38) 『한라의 통곡소리』의 제1부에서는 각 마을의 증언자들이 4·3의 피해를 증언하면서 사망자 명단을 함께 제시하고 있고, 부록에 「사망자 명단」을 재정리하여 놓았다. 증언에 담긴 사망자 명단의 예는 다음과 같다.

“토벌대에 의해 죽은 사람 : 이두진·이원진·원진의 모·강경출·경출의 처·강영호·강상호·김인하·김인철·김보경(이상 3부자)·오병규·오태규·태규의 부·차봉옥·박정권·박인권·고인득·강시현·고성룡·고갑룡·오봉한·유치홍·치홍의 제·고봉룡·고남룡·고맹룡·강신생·강상보·오형남·강봉익·봉익의 제·봉익의 부·봉익의 모(몰살·대가 끊김)·강희찬·강상수·유인철·이재규·고철주·임경구·양동식·강치옥·양 아무개·한덕명·문도행·이완진·강명옥(군인이 강간하려해 도망치자 저격 사살)·오형남(이상 47명) / 좌익에 죽은 사람 : 강문봉(향보대장)·진평돌·김봉화·김홍영·문좌영·강정옥·강희순·강지환·김윤원·김지옥·김의환·강병노·오달인·강여노·김홍식·오달현(이상 16명)”(위의 책, 「감산리도 61명 죽어」, 51~52쪽)

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성찬은 증언을 채록·정리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증언자의 목소리와 사망자의 명단을 각각의 증언 속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 사망자 명단을 통해 그동안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못했던 죽음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기록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오성찬은 이 증언집의 마지막에 따로 ‘사망자 명단’³⁹⁾을 정리하여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외면한 공식역사에 맞서려 하였다. ‘사망자 명단’에 정리된 희생자는 약 367명이었다.⁴⁰⁾ 이렇게 오성찬은 망각에 대한 저항으로서 『한라의 통곡소리』에 기억을 담아내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과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들을 가진 주체들이나 집단들의 끊임없는 기억투쟁을 통해 선별된 것이다.”⁴¹⁾ 1980년대 후반,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오성찬은 대항담론의 하나로서, 개인의 기억을 끌어내어 이 증언집을 간행하였다.

둘째, 오성찬은 이 증언집을 통해 4·3이 진행형의 문제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 증언집이 간행된 1980년대 후반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4·3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식기억(official memory)”을 확산시켰으며 공식기억에 대응하는 “대항기억(counter memory),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⁴²⁾을 억압하고, 대항기억을 대중들과 분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맞서 오성찬은 기억주체의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기억이란 과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현재와 관련 속에서 현재적 필요성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억의 정치는 누가 어떤 것을 기억(또는 망각)할 것인가를 누가 왜 원하고 있기에 기억(또는 망각)되느냐로 귀착된다”, “결국 기억의 과정에서 과거의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재현되느냐는 기억주체의 현재적 관심, 또는 기억행위의 현재적 맥락이 개입된다.”⁴³⁾ 따라서 『한라의 통곡소리』에 담긴 기억은 과거에 발생한 4·3만이 아니라 4·3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용공과 반공으로 규정하여 억압하고 있는 1980년대 후반, 현재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다.

39) 『한라의 통곡소리』에 「사망자 명단」은 그 책의 279~291쪽에 실려 있다.

40) 「사망자 명단」에 사망자를 ‘김평석과 그 가족’ 등으로 정리한 부분도 있어 정확한 사망자의 수를 집계하기는 어렵다.

41)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5·18과 4·3 비교연구」, OUGHTOPIA 26, 2011, 67쪽.

42) Gabriele Lucius-Hoene, 박용익 옮김, 『이야기 분석』, 역락, 2011, 68쪽.

43) 이성우, 앞의 책, 66~67쪽.

오성찬이 증언집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증언을 사회 내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기억을 사회·역사적 차원의 공유의 역사로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도 오성찬이 구술 채록에 몰두하였던 이유가 드러난다.

역사의 ‘밑돌’ 하나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낸다. 아니 그것이 ‘심돌’이어도 좋다. 이것을 심으로 박고 차츰차츰 눈덩이를 굴려서 온전한 눈사람 하나가 완성되었으면 싶다.⁴⁴⁾

오성찬은 주목받지 못했던 기억들을 묶어냄으로써 4·3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밑돌’이 되고자 하였다. “역사적 상흔의 기억을 타자와 나누어 갖기 위해서 그 사건은 우선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⁴⁵⁾이라는 신념을 지녔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성찬은 사실서사를 또 다른 공유의 장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벌써 사십여 년 전에 제주도라는 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몇 편의 중·단편을 이 사건을 소재로 써왔지만 비로소 본격적으로 여기 대든 것은 이번의 작품인 셈이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께 낸 바 있는 『제주 4·3의 증언, 한라의 통곡소리』는 이 작품의 취재노트인 셈이다.⁴⁶⁾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문학으로서 『한라의 통곡소리』는 억압적인 시대를 돌파해가는 과정 속에서 택해진 대안적 서술이었고, 오성찬에게는 본격적인 4·3소설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오성찬이 4·3의 목소리를 다시 복원하여 증언자의 기억을 소설화한 것도 4·3이 침묵 속에서 망각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채록자로서의 오성찬은 다시 화자의 입장에 서서 4·3의 기억을 소설로 옮김으로써, 증언자의 기억투쟁에 동참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오성찬의

44) 오성찬 채록·정리, 「서문」, 앞의 책, 15쪽.

45) Aleida Assmann, 변학수 외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39쪽.

46) 오성찬, 「후기」,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실천문학사, 1989.

4·3소설은 아래로부터의 글쓰기였고, 작가와 증언자가 같은 목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공유하면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글쓰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2. 기억주체의 증언 내용

『한라의 통곡소리』는 먼저 「간추린 4·3의 역사」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4·3의 전개과정을 밝힌 후, 그 뒤에 4·3에 대한 46편의 증언을 정리하여 실고 있다.⁴⁷⁾ 증언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이어도 싸나’에 16편, 제2부 ‘산으로 갈거나 해안으로 갈거나’에 10편, 제3부 ‘올해도 한라산에는 진달래꽃이’에 6편, 제4부 ‘이래 죽고 저래 죽고’에 9편, 제5부 ‘잊혀진 이름들’에 5편을 각 수록했고, 부록으로 5편의 글을 실었다.⁴⁸⁾ 제1부에서는 제주 전역에서 벌어진 희생과 피해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제2~4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언을 다루었으며, 제5부에서는 조몽구에 대한 증언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⁴⁹⁾ 각 증언은 오성찬이 부여한 제목 아래 증언자의 사진, 이름과 나이·직업·주소지를 적고 증언 내용 중 핵심을 요약했으며, 자세한 증언은 그 뒤에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성찬이 채록한 증언만이 아니라 토산리민이 작성한 호소문(「토산리 4·3사건 실상기(토산리민)」), 월간종합잡지 『샘이깊은물』에 실린 증언 수기(「어디다 하소연을 하랴(한장만)」), 『여성중앙』(1988.11월)에 실린 수기(「‘빨갱이’ 오명 속에 숨죽여 살아온 40년(김인생)」),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박정희 대통령께 보내는 진정서(강정윤)」) 등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제1부 ‘이어도 싸나’에 묶인 16편의 증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1부 증언 내용 정리

- 47) 『한라의 통곡소리』의 목차를 보면, 제2부에서 「서북청년만 보면 복수심이」(89~92쪽)라는 증언이 목차에 누락됨에 따라 45편인 것처럼 정리되어 있다. 편집과정에서 생긴 실수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를 총 46편의 증언으로 바로잡는다.
- 48) 부록으로 「로마 교황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판결기록 I. 조천 만세 사건」, 「판결기록 II. 1937년 항일 사건」, 「판결기록 III. 야체이카 사건」, 「사망자 명단」을 실고 있다.
- 49) 3·1사건 때 활동한 이운방의 증언도 덧붙였다.(오성찬 채록·정리, 앞의 책, 218~221쪽)

번호	소제목	기억 주체	증언 내용
1	소문난 조천·명월	김응하 (한림읍 명월리 하동, 68세)	1948년 10월 20일 하동이 소개당하고 옹포리로 집단 이주함. 1948년 11월 11일, 18일에 주민이 집단 처형되었음. 죽은 1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무장대에게 죽은 5명을 포함, 70여 명의 이름을 기억해 냄.
2	하룻밤 토벌 에 백명쯤이	송봉년 (조천읍 교래리, 83세)	1948년 음력 10월 13일 마을 전체가 불탔으며, 100여 명이 사살됨. 10월 23일 함덕리로 소개되었다가 1955년 다시 마을로 돌아옴. 송봉년은 군인들의 지로인으로 일을 해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음.
3	200명 청년 중 150명 사 망	김종규 (제주시 이호2동, 72세)	1948년 음력 11월 5일 150명 이상 집단 처형을 당함. 12월 15일에 행불자 가족들도 수십 명 총살당함. 1948년 12월 15일 마을이 소각된 후 도두동과 이호1동으로 내려갔다가 1949년 4월 복귀함. 이후 두 차례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는데, 그 일을 무장대에 대한 동조로 오해받아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음.
4	위장 특공대 가 60명 처형	김성근 (외도동 도평마을, 80세)	1948년 음력 12월 5일 무장대로 위장한 토벌대가 마을을 점령함. 6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들 손에 죽음. 토벌대를 무장대로 오인해 저항하던 주민도 총살당했음.
5	선흘리 사람 들도 몰사	안중택 (성산읍 고성리, 작고)	고향이 선흘리인 안중택은 당시 13세로 빨치산 소년대원으로 이덕구 앞에 선서하고 입산했다가 잡혀 내려옴. 이덕구의 별명이 '아가리작박'이었다고 증언함. 어린 학생들이 '왜진돌리기'로 휴교 주동한 일, 왓샤부대의 기억, 무장대를 사살한 토벌대 등에 대해 증언함.
6	인명 피해 심했던 제주 시 외곽동들	이종억 (제주시 오라동, 49세)	1947년 3·1사건에 이 마을의 인민해방군 중대장인 허아무개가 사망한 후, 4·3이 터지자 마을 20~40대 남자면 무장대로 취급받게 되어 마을 청년들이 입산하였음. 무장대에게 죽은 4명을 포함, 150여 명이 죽었다고 증언함.
7	113명 사망 자 이름 모두 기록-동북리	김상해 (구좌읍 동북리, 72세)	'북촌 사건'이 있던 1948년 음력 12월 19일 150명 정도의 동북리 주민들이 군인에게 사살되었음. 이후에도 살육은 계속되었다고 증언함. 무장대에 의해 동생이 죽고 어머니가 불구가 되었으며, 이 마을에도 경찰관 3명이 죽었지만, 토벌대에 의해 죽은 마을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함.
8	유전서로 기 록 남겨	문○○ (한경면 조수리)	1948년 가을, 김순경이 무장대에게 살해당한 후, 1948년 10월 21일 그의 형 김문경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무장대 연루 혐의로 총살당하고, 1948년 음력 11월 18일 마을을 전소시킴. 1950년 음력 7월 7일 김문경이 작성한 명단에 의해 수십 명이 처형당하는 등 사망자는 80여 명, 심적 피

			해자는 200명이 넘는다고 증언함.
9	감산리도 61명 죽어	고병수 (안덕면 감산리, 73세) 이군호 (54세)	자경대 책임자였던 고병수는 마을 순찰 중 무장대를 만나 죽창에 찔려 중상을 입었음. 토벌대가 1949년 1월 주둔한 군부대에 식수 배달을 늦게 했다고 마을 사람들을 총살함. 토벌대에 죽은 47명과 무장대에 죽은 16명의 명단을 정리함.
10	가시리 인명 피해 386명	오승철 (표선면 가시리, 81세) 김홍수 (76세) 박형요 (75세)	5·10 선거일 새벽 무장대들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이장을 죽이고 그 후에도 공격이 이어지자, 11월 중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이 벌어졌다고 증언함. 집단 처형과 소개령, 불순분자 축출을 이유로 가시리에 학살당한 사람이 무려 386명(사망 374명, 실종 12명)이며, 소개될 때 363호의 마을이 모두 불타서 1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11	북촌리 집단 학살	홍순식 (조천면 북촌리, 58세)	1948년 음력 12월 19일 무장대의 기습으로 군인 2명이 사망하자, 그 시신을 담가에 싣고 함덕 대대본부로 간 마을 노인들을 토벌대가 총살함. 2개 소대의 군인이 북촌리 사람들을 학교 마당에 집결시켜 무차별 사살하였고, 남은 사람들을 함덕으로 모아 김아무개의 지목에 의해 처형함. 북촌리 주민 400~600명이 학살당했다고 함.
12	불타는 봉개리	고한구 (제주시 봉개동, 52세) 고유아 (82세) 임두홍 (47세)	1948년 음력 10월 20일 초토화 작전에 의해 마을이 불태워짐. 고유아는 군인 총에 남편을 잃은 후 산에 숨어 살았음. 임두홍은 여덟 살에 군인에게 아버지를 잃었음.
13	제주시 동부 8리의 '토벌'	부원경 (봉개동 용강마을 48세)	1949년 음력 1월 7일 토벌에 의해 아버지가 죽음. 1948년 11월 20일 마을이 전소되고, 이듬해 2월 5일 대토벌 당하여 93명이 폐죽음을 당함. 4·3으로 마을 사람 135명이 죽었으며, 이듬해 2연대의 연대장과 작전참모 대위의 이름을 집자한 '함명리'로 재건되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봉개리'로 환원시킴.
14	살육장이 지 금은 관광지로	부원경 (상동) 조덕송 (당시 서울신문 기자)	1948년 음력 11월 18~19일에 토산리의 157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을 비롯해서 북촌, 용강, 오라, 도두 등지에서 두어 달 사이에 무고한 주민들이 1천명이 넘게 죽었음. 제주의 관광지들은-정방폭포, 함덕해수욕장, 표선백사장과 민속촌 자리 등-대부분 살육장이었다고 증언함.
15	토산리 4·3 사건 실상기	토산리민 일동	이 호소문은 토산리민 이름으로 1987년에 작성된 것으로, 1948년 음력 11월 14일에 군인들이 18세 이상 40세까지의

		(토산리)	주민들을 표선 백사장으로 끌고 가 무차별 사살했으며, 이때 죽은 157명의 사람들은 무고한 양민이었다고 주장함.
16	어디다 하소 연을 하라	한장만 (조천읍 신촌리, 69세)	해녀였던 한장만은 김두현의 후처였는데, 서북청년단이 시계를 뺏으려하자 저항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총살당함. 이후 빨갱이 가족으로 취급받으며 갖은 고생을 하였음.

제1부에서는 각 마을의 증언자들이 초토화작전이 본격화된 1948년 10월 중순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벌어진 중산간 마을의 방화와 학살을 증언하고 있다. 이호2동, 도평마을, 오라동, 봉개동, 용강마을, 고래리, 동복리, 북촌리, 신촌리, 가시리, 토산리, 명월리, 고성리, 조수리, 감산리 등 제주의 여러 마을에서 입은 주민들의 피해를 종합하고 있다. 증언자들은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극심했음은 물론이고 무장대에 의한 피해도 빈번했음을 증언하였다.

그러나 토벌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증언 1]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다 도망가고 애꿎은 사람만 죽었다”⁵⁰⁾고 하였고, [증언 3]에서 “습격이 들어서 도두 지서에 연락을 하면 한참 후에나 왔고, 순경이 총소리만 나면 먼저 달아나고 공비를 보고도 총을 안 쏘더라”⁵¹⁾고 비판하였다. [증언 4]에서 김세원은 위장 토벌대가 마을을 점령했을 때, 빨치산이 마을을 장악한 것으로 오인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저항하다 죽은 아버지를 위해 대정부 진정을 준비하다 포기했다. 그는 “유감 가진 사람이 이거 나쁜 사람이다 하면 잡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만이었다”⁵²⁾고 탄식하였다.

또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마을주민들이 폭도로 간주되는 현실에 반발하면서 [증언 10]에서 “조상 대대로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일에만 종사해 와 사상이나 이념 따위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이민(里民)에게 빨갱이 가족이란 어울리지 않는 누명이었다”⁵³⁾고 항변하고 있으며, [증언 15]에서도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주도적으로 제주도 4·3사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치적 인도적 양심과 법적 차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해 주시기를 몰살당한 유가족 연명으로 강력히 호소합니다”⁵⁴⁾라며 4·3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50) 오성관 채록·정리, 『소문난 조천·명월』, 앞의 책, 30쪽.

51) 『200명 청년 중 150명 사망』, 위의 책, 36쪽.

52) 『위장특공대가 60명 처형』, 위의 책, 38쪽.

53) 『가시리 인명피해 386명』, 위의 책, 56쪽.

54) 『토산리 4·3사건 실상기』, 위의 책, 70쪽.

제1부에서는 증언자들 중 많은 수가 진상규명을 위해 자신의 마을 주민의 사망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언집에는 [증언 1]에서 70명, [증언 7]에서 113명, [증언 8]에서 약 53명, [증언 9]에서 63명 등 약 376명 정도의 사망자 명단이 해당 증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제1부에서는 중산간 마을의 피해와 그로 인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증언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부 ‘산으로 갈거나 해안으로 갈거나’에 묶인 10편의 증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제2부 증언 내용 정리

번호	소재목	기억주체	증언 내용
17	4개월 입산 경력의 여인	김○현 (조천리, 68세)	해방 후 일본에서 돌아온 김○현은 3·1사건 이후 경찰에 잡혔다 풀려난 뒤로 입산하였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체포됨. 연대 정보과장 정아무개에 의해 구조되어 살아남.
18	밀고 때문에 애매하게 죽어	문○윤 (제주시 연동, 69세)	문○윤은 해방 후 경찰이 되어 1952년까지 근무함. 그는 자기 마을 50여 명이 조작된 제보에 의해 무장대로 오인되어 몰살당했다고 증언함. 구좌면 행원리 이배근(84세)에 의하면 서북청년단 중에는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며 울먹이면서 떠난 이도 있었다고 함.
19	‘서북청년만 보면’... 복수심이	강승훈 송민훈 (제주시)	1947년 3·1사건 이후 용품 지원 요청을 듣지 않은 제주도 총무과장을 관덕정 인근에서 때려죽인 사건을 시작으로 서북청년단의 횡포가 계속되었음. 1952년 9월 16일 무장대가 방송과장과 급사 등을 체포해 인민재판을 벌여 죽인 일도 있음. 이때 무장대 보초가 무자비함에 질려 귀순했고 토벌대장과 함께 현장에 가서 시체를 찾았음.
20	원성 높았던 서북청년단	홍○○ (성산읍)	홍○○는 1948년 겨울, 동남국민학교 교사로 학교에서 등사판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잡혀가 사살 직전에 구출됨. 며칠 뒤인 12월 15일 마을 청년 28명이 총살당한 뒤, 홍○○이 채수감되었다가 고문 끝에 풀려남. 그의 애인 정교사는 서북청년에게 겁탈당했고, 홍○○을 구출하기 위해 집안에서 그의 조카딸을 서북청년과 정략 결혼시킴.
21	친동생 죽이려 길안내	한봉언 (서귀포시 서홍동, 72세로)	사냥꾼 한봉언은 지로인으로 발탁되어 1948년부터 10년간 토벌대의 길잡이 생활을 함. 미악산 북방 1000고지로 길안내를 하여 토벌을 도왔는데, 현장에서 사살당한 마을 사람

		작고)	들 사이에서 친동생 태언의 시신을 발견함.
22	굴 입구에 불 질러 질식사	김용훈 강석진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 사람들은 1948년 10월 19일 소개령이 내려지자 무수천 변의 굴 등에 숨었으나, 토벌대 앞잡이 송아무개로 인해 발각되었고, 토벌대가 굴입구에 불을 질러 30여 명을 죽임. 김용훈은 해변마을로 이주한 뒤 민보단에 입단해서 활동함. 외도 지서장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지서장’으로 불리었는데, 무고한 60~7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음.
23	부모 시체 보 고 정신 이상	김병기 (제주시 영평동, 65세) 변용환 (59세) 현용준 (57세)	김병기는 공무원으로 경찰에 잡혔다가 죽을 뻔함. 영평동은 150호 정도의 마을이었는데 1948년 8월 완전 소각됨. 무장대에 의해 대동청년단 김아무개네 4명이 죽는 등 이 마을에서 좌우익에 의해 30여명 정도가 죽음. 노형동 광평마을의 현용준은 토벌꾼에게 붙잡혔으나 군인을 잘 만나 석방되었음. 그는 마을 사람이 무장대로 잡혀와 사살당하는 것을 보았으며, 제주성 서쪽에 시신이 많았다고 함.
24	교직원 1인이 빼라 20장씩	강태보 (표선면 성읍리, 68세)	강태보는 위미교 교사로, 1947년 3·1사건 후 도에서 빼라 20장씩 가져오라는 지시에 따라 빼라를 가지고 있다가 파출소로 연행된 후 풀려남. 서청들이 이승만 사진을 강매한 일, 시흥리에서 젊은이들이 사살당한 일, 난산국고 재직 당시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한 일, 조몽구의 행적 등에 대해 증언함.
25	종달리의 '6·6사건'	부현일 (구좌읍 종달리, 50세)	마을 부장군이 횡포를 부리던 경찰관을 혼내자, 마을 사람들이 경찰관에 의해 고초를 겪었고, 국방경비대가 마을 사람들을 집합시켜 총살했음. 채정옥이 입산했다가 귀순한 일과 서북청년이 마을에 정착했다가 피해자 가족에게 린치당한 일을 증언함.
26	'빨갱이' 오명 속에 숨죽여 살아온 40년	김인생 (75세)	1948년 닭서리하다 남편에게 혼난 청년의 모함으로 빨갱이 중대장이란 누명을 쓰고 남편이 죽음. 그 때문에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세 발의 총탄을 맞았으나 살아남. 6남매 중 둘은 병으로, 셋은 사건통에 죽고 지금은 다섯째 아들과 살고 있음.

제2부에는 김○현(좌익가담 여자), 문○운(경찰), 홍○○(교사), 한봉언(사냥꾼), 김용훈(입산자였다가 민보단에 입단한 사람), 김병기(공무원), 현용준(당시 오현중학생), 강태보(교사), 부현일(화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증언이 실려 있다. [증언 17]이나 [증언 22]는 산을 선택한 입산자나 도피자가 겪은 죽음과 고통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증언 18, 19, 21, 23, 25, 28] 등은 해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한 이들의 증언으로, 해안으로 내려가 토벌대에 협조했거나 동조한 이들도

역시 토벌대의 횡포에 시달리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특히 [증언 21]에서 토벌대의 지로인⁵⁵⁾으로 협조를 강요받았던 한봉언은 토벌의 과정에서 동생의 시체를 보고도 내색할 수 없었고, “사건 당초 서북 청년 등이 투입돼 와서 강경책으로 민심을 불안케 한 것이 사건을 확대시킨 발단”⁵⁶⁾이라고 토벌대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한편 토벌대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증언도 있다. 무장대에 의한 피해를 중심으로 증언한 [증언 24]에서 뼈라 때문에 무장대와 갈등했던 강태보는 서청의 횡포를 증언하면서도 “이 마을에는 좌익에 의한 피해가 컸는데, ‘음력 12월 14일 날은 30명가량이 죽어서 하루 제사가 20여 군데나 된다”⁵⁷⁾고 하였다.

그리고 4·3의 진상규명 촉구와 관련하여 [증언 17]의 김○현은 자신이 좌익에 가담했던 과정을 증언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불타오르는 애국심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서북 청년들의 탄압을 동기 삼아 좌익계가 젊은이들을 이용했다”며 “제주도는 너무 억울하다”⁵⁸⁾는 점을 강조했다. 공산폭동으로 규정된 4·3의 평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2부에서는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일반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4·3의 비극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증언을 실고 있다. 결국 제2부의 ‘산으로 갈거나 해안으로 갈거나’라는 제목은 산과 해안이 모두 토벌대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부 ‘올해도 한라산에는 진달래꽃이’에 묶인 6편의 증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제3부 증언 내용 정리

55) 지로인(知路人)이란 4·3 당시 제주 지리에 미숙했던 토벌대가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길 안내인으로 삼았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한라의 통곡소리』의 [증언 22]에서는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사살당한 지로인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증언 2]에서는 “송노인은 그 후 군인들의 길 안내인이 되어서 한흔엘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송노인만 보면 못마땅한 시선으로 대했다”고 하여, 지로인으로 선발된 이들의 고통스런 삶을 증언하였다.

56) 오성찬 채록·정리, 「친동생 죽이려 길안내」, 앞의 책, 97쪽.

57) 「교직원 1인이 뼈라 20장씩」, 위의 책, 107쪽.

58) 「4개월 입산 경력의 여인」, 위의 책, 87쪽.

번호	소제목	기억 주체	증언 내용
27	공비들 손에 아버지 잃고	오균택 (제주시 일도2동, 56세)	일본에서 살다온 오균택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4·3 때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자 무장대에 의해 살해당함. 오균택은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 살다가, 무장대에게 죽을 뻔한 뒤 제주 시내로 이주하여 힘들게 살았음.
28	‘인민 유격대 활동 보고서’	문○○ (제주시 화북동)	문○○은 4·3사건 당시 화북지서장으로 있으면서 제주도 인민유격대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는데 공을 세움. 그 뒤 모슬포경찰서 등 여러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60년에 퇴직함. 무장대에 의한 경찰관 생매장 사건 등을 증언함. ‘인민유격대활동보고서’ 프린트본 사본을 소유함.
29	‘겉고 보자 현 용 선’의 체험	현용선 (서귀포시 65세 작고)	해방 후 일본인 농장을 경영하다, 경찰 10기생으로 입대하여 제주경찰국 본부 중대장을 맡고 있던 중 4·3을 만남. 토벌대의 창설과 민간 지로인의 활동, 토벌 현상금을 둔 토벌대간 경쟁과 알력, 토벌비를 위한 무장대 시신 절단의 빈번함, 토벌대에 의해 피해 입은 여러 마을의 양상을 증언함.
30	어머니와 누이가 무참히 살해당해	김성수 (제주시 도두동, 53세)	도두국교를 다니다가 4·3을 겪음. 두 형이 대동청년단에서 활동하면서 좌익에 가담하지 않자 무장대들이 어머니를 비롯하여 마을 남녀 6명을 끌고 가 죽임. 누나도 무장대 청년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함.
31	하룻밤에 네 식구를 공비 손에	문봉철 (구좌읍 세화리, 70세)	당시 국민학교 교사였음. 1948년 11월 3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어머니와 아내, 자식을 잃음. 이 날 마을에서 105명이 죽고 65동의 집이 탔다고 증언함(당시 민보단장 김호규(92세)는 48명이 죽고 50동이 탔다고 증언함). 이후 서북청년으로 조직된 부대가 마을에 주둔했는데 고문과 처형을 당한 마을 사람들이 많았음.
32	왜경 옷입고 군정 보조관	이동규 (제주시 동문로, 70세)	이동규는 일제시대에 조천주재소 순사로 있다가 해방을 맞았으며, 해방 후 인민위원회에 의해 친일 면장이 수감된 일이 있다고 함. 남로당 암호문을 해독해 도본부를 확인했으나 검거에 실패했음. 무장대에 의한 형사, 선거관리인 등의 죽음을 증언함. 영화 「한라산에 봄이 오다」에 출연.

제3부의 증언은 두 가지 탄식을 담고 있다. 하나는 무장대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으로서의 탄식이고, 또 하나는 4·3 때 경찰이나 토벌대로 활동한 사람으로서의 탄식이다.

전자의 경우, [증언 27]에서 무장대에 아버지를 잃은 오균택은 제주 시내 창고한 구석을 빌어 처절한 삶을 살았으며 “지나간 일을 지금까지 잠깐이나마 회상

해보니 참으로 북받치는 설움과 함께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머리 속에 생생하여 치가 떨릴 뿐”⁵⁹⁾이라고 하였고, [증언 30]에서 김성수는 대동청년단이었던 형님과 어머니, 누이를 잃었으며, “누님 시체는 2년만에나 제보에 의해 찾”⁶⁰⁾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증언 31]에서도 무장대에게 가족 4명을 잃은 문봉철은 “지금도 비가 오려하면 고문자국이 쭈셔 소주를 퍼 마셔야 한다”⁶¹⁾며 4·3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후자의 경우, 화북지서장이었던 문○○[증언 28], 제주경찰국본부 중대장이었던 현용선[증언 29], 친일 경찰이었다가 해방 후 다시 경찰관이 된 이동규[증언 32]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익의 입장에서 4·3을 증언하고 있다. [증언 32]의 이동규는 “서청 위원장이 폭도 집 트렁크의 옷가지를 털어다가 자기 애인에게 준 일도 없지 않았지만 제대로 애국한 사람도 있다”⁶²⁾며 서북청년단을 두둔하는 증언도 있지만, [증언 29], [증언 31]처럼 우익의 입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토벌대에 의한 고문과 학살도 함께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증언 29]의 현용선은 “사건이 진압된 후 5·16 때까지도 신변에 늘 위협을 느껴서 몰래 수류탄을 감춰두고 있었다”⁶³⁾며 토벌대로 활동했던 이의 심적 고통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친일경찰이었다가 해방공간에 다시 경찰이 된 증언자도 있어 당시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의 문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3부에서는 대체로 무장대에게 가족을 잃은 증언자들의 증언과 우익 쪽에서 4·3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3부의 ‘올해도 한라산에는 진달래꽃이’라는 제목은 제주(한라산)에 변함없이 봄은 돌아오지만, 4·3으로 인한 슬픔으로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부 ‘이래 죽고 저래 죽고’의 9편에 묶인 증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제4부 증언 정리

59) 「공비들 손에 아버지를 잃고」, 위의 책, 133쪽.
 60) 「어머니와 누이가 무참히 살해 당해」, 위의 책, 145쪽.
 61) 「하룻밤에 네 식구를 공비 손에」, 위의 책, 145쪽.
 62) 「왜경 옷입고 군정 보조관」, 위의 책, 150쪽.
 63) 「걸고 보자 현용선’의 체험」, 위의 책, 143쪽.

번호	소제목	기억주체	증언내용
33	죽음과 삶이 오가는 순간들	조남수 (75세)	조남수는 목사로, 1948년 11월 20일 무장대의 습격을 받은 뒤로 문형순 경찰 대장을 만나 공비토벌을 위해 자수 선무 강연 활동으로 협박에 의해 공비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장대로 몰려 처형 위기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신원보증을 서서 살려냄. 무장대를 고립시킬 방법으로 각 마을 돌성 쌓기를 건의함.
34	양쪽에 피해 입은 '면당 위생병'	김석규 (조천읍 신촌리, 64세)	김석규는 후생 의원 약제실에서 일하다 남로당에 가입하여 1년쯤 면당에 위생병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힘. 이후 경찰에 투신하여 토벌 작전에 가담함.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이덕구가 숨어 있었다고 증언함. 토벌대에 의해 자행된 북촌 사건을 직접 겪었으며, 아버지가 무장대에 의해 죽음.
35	천리 터에 숨어 살기도	이희조 (제주시 아라동, 60세)	이희조는 대동청년단에서 활동했고, 무장대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죽고 무장대의 협박을 피할 길이 없어지자 무덤 속에 숨어서 도피 생활을 함. 1949년 귀순하여 1951년 육군에 입대했으나 전투 중 부상을 입고 1953년 제대함.
36	타도당한 민족학생과 (民族學生課)	장동석 (애월읍 괏지리, 60세)	장동석은 오현중학교 학생으로 민족학생과에서 활동하면서 3·1절 시위 등에도 가담함. 4·3 때 검거되어 고문을 받았으며, 다시 검거령에 의해 숨어 있다가 자수하여 1949년 헌병대에서 급사로 일함. 그 뒤 입대하여 태백산 지구 공비 토벌에 나서기도 함.
37	사연도 모르는 죽음들	현○○ (한경면 저지리, 44세) 현길언 (남원읍 수망리, 48세) 부현일 (구좌읍 종달리) 한기팔 (서귀포시 보목동)	현○○은 조부모를 잃고, 둘째 고모는 무장대에 의해 죽음. 숙부는 좌익 거물이었는데 쉬쉬함. 현길언은 무장대가 순경을 죽인 일을 목격했고, 순경들이 무장대 일가족을 웅덩이에 생매장하기도 했음을 증언함. 한기팔은 무장대인 자기 아들이 잡혀오자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노인의 사연과 민보단원들이 돌팔매질로 무장대를 때려 죽인 사건을 증언함.
38	박(朴)·강(姜) 두 성씨끼리 싸움	박병규 (한림읍 금악리, 61세) 박진팔 (54세)	박병규는 4·3 때 남로당 제주도지부 부위원장, 민애청 한림면 위원장 등을 지내고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함. 마을내 좌우익의 갈등이 있었으며, 1948년 10월 그믐께 마을이 소개되고 무장대와 연락했다는 죄목으로 마을 사람들이 죽음. 무장대에게 청년회 부단장 부부가 죽게 된 뒤, 16~17명의 사람들이 굴에 끌려가 죽었으며 마을 사람들

			을 동정하다 무장대로 오인되어 처형된 이장도 있었음. 무장대를 비판한 강공호의 죽음 등 무장대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언함.
39	‘도민은 전부 가 피해자’	김생민 (제주시 연동, 60세)	해방 후 좌익의 제주도 총연락책으로 활동하다 전향하여 경찰에 투신함. 해방 직후의 상황, 양과자 반대 운동, 1947년 3·1사건의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 그의 제보로 1948년 2월 초에 김달삼, 이덕구 등 남로당 조직원들 다수가 검거되었으나 미군정이 이들을 석방시켜 4·3이 일어났다고 함. 1949년부터 10여 년간 경찰관으로 지낸 후 퇴직함.
40	4·19 후 활발 했던 규명 운동	이문교 현춘홍 (53세)	이문교, 현춘홍은 1960년 4·19 이후에 ‘4·3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를 결성해 4·3진상규명을 벌이다가 5·16 직후 검거되어 수형 생활을 하였음. 현춘홍의 형은 좌익의 강요로 격문을 쓴 죄로 죽었으며, 오조리에서 다이나마이트 소지로 서창에게 폭도로 오해받아 마을 사람들 47~48명이 처형되고, 또 좌익 남녀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폭력을 일삼았고, 그 후로 연좌제로 인해 후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함.
41	박정희 대통 령께 보내는 진정서	강정운 (서귀포시 강정동, 46세)	4·3 때 부모가 모략에 의해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하자, 고아가 됨. 그 후로 어렵게 살다가 1969년에 독학으로 공안직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에 걸려 떨어짐. 연좌제의 부당성과 억울함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1969년 7월 5일자 편지로 호소하고 있음.

제4부에서는 살기위해 좌우익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중점적으로 싣고 있다. [증언 33]은 무장대에게 습격당해 죽을 위기에 놓였던 목사가 무장대를 막기 위해 경찰에 협조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반대로 좌익에 가담하였다가 경찰에 잡혀 전향한 사람들의 증언도 여러 편 실려 있는데, [증언 34]의 면당 위생병에서 전향한 김석규, [증언 36] 오현중학교 학생이었던 장동석, [증언 39]에서 남로당에서 경찰로 전향한 김생민이 그러하다. [증언 37]에서 소설가 현길언, 시인 한기팔 등이나, [증언 38]에서 남로당 제주도지부 부위원장이었던 박병규도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해 증언하고 있다. 또한 [증언 35]에서 대동청년단이었던 이희조는 살기 위해 산에 도피하였던 경험을 통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억울한 죽음이었다”⁶⁴⁾고 증언하였다.

64) 「천리 터에 숨어 살기도」, 위의 책, 182쪽.

또한 4·3의 주동자인 김달삼, 이덕구 등에 대한 증언도 집중되어 있다. [증언 36]에서 오현중학교 학생이었던 장동석은 “김달삼이 강원도 인제 지구 호양산에서 사살”되었다는 사실과 달리, “6·25 때 북진하여 이북엘 가보니 김달삼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⁶⁵⁾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 39]에서 김생민은 자신의 제보로 3·1사건 직후 체포된 김달삼, 이덕구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 주모자들만 안 풀려났어도 4·3사건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북촌 사건에 대해서 “지나친 보복이나 기분상 그럴 수도 있다”며 토벌대에 의한 피해에 대해 “옥석을 가리지 못한 흙이 있다”⁶⁶⁾고 토벌대를 두둔하기도 하였다.

특히 4장에는 연좌제에 대한 비판의 증언이 실려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증언 40], [증언 41] 등은 4·3사건 자체보다 4·3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연좌제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증언 40]은 “당시 산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념으로 무장된 경우는 드물다. 부당하게 당하고 한 맺힌 것은 풀어야 한다”⁶⁷⁾며 여전히 계속되는 연좌제 문제 등을 비판했고, 허씨는 “물론 사상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으나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다. 젊은이가 도망가면 그 부모를 잡아다가 죽였는데 이런 억울한 누명들은 규명해야 된다”⁶⁸⁾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증언 41]은 1969년 공안직 필기 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에 걸려 떨어진 연좌제 피해자가 아버지의 죽음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1969년 7월 5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4부에서는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선택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주로 실려 있다. 그리고 4·3이후로도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연좌제로 고통받는 현실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4부의 ‘이래 죽고 저래 죽고’라는 제목은 죽음의 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이데올로기 선택을 강요받고, 이데올로기를 선택하였어도 온갖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축하고 있다.

마지막 제5부 ‘잊혀진 이름들’에 묶인 5편의 증언 내용은 <표 5>와 같다.

65) 「타도당한 민족학생과(民族學生課)」, 위의 책, 187쪽.

66) 「도민은 전부가 피해자」, 위의 책, 194~195쪽.

67) 「4·19 후 활발했던 규명 운동」, 위의 책, 197쪽.

68) 「4·19 후 활발했던 규명 운동」, 위의 책, 199~200쪽.

<표 5> 제5부 증언 내용 정리

번호	소제목	기억 주체	증언 내용
42	조몽구는 비둘기과	김두석 (대정읍 동일리, 79세)	일본군 모슬포 요지 감시대원으로 1941년부터 배속되었다가 해방 후 좌익에 가담함. 1947년 10월 일본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부지함. 강문석은 박영헌의 비서로 6·25 이후 서울 점령 때 사회부 차관이었으며, 사위인 김달삼은 주전과요 주모자였고, 조몽구는 평화주의자였다고 증언함.
43	조몽구와의 악연	고기생 (대정읍 하모리, 72세)	일제 때 일본인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해방을 맞아 그 가게를 이어받았는데, 그 가게에 조몽구가 세를 얻어 살았음. 그 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갖은 문초를 받음. 부산 방문시에 조몽구를 목격하고 제주에 와서 경찰에 고발함.
44	두 살박이 애도 죽여	조○○ (표선면 성읍리, 74세)	조몽구의 조카임. 조몽구는 4·3 이후 평양까지 갔으나 당의 배척을 받았으며 수복 후에 부산에 숨었고, 1951년 9월 30일 체포되어 8년 징역을 살고 제주로 돌아왔다고 증언함. 1948년 11월 조몽구의 처와 사남매가 처형당할 때, 두 살박이 막내까지 희생되었다고 증언함.
45	조몽구의 후일담	현두진 (표선면 성읍리, 74세)	1965년에 58세인 조몽구과 결혼하여 영주산 앞에서 1973년에 사별할 때까지 같이 살았음. 1948년 12월 무장대에게 마을 사람들 40여 명이 죽음. 조몽구가 그러한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로 부터 지속적인 고초를 당하다 죽었다고 증언함.
46	3·1사건 당시 남로당 대정책	이운방 (대정읍 하모리, 80세)	1947년 3·1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4·3 발발 3개월 후 부산을 걸쳐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1979년 제주로 돌아와 은거하고 있음. 강경파인 김달삼, 강성열, 이종호 등으로 인해 4·3이 일어날 때까지도 조몽구나 이덕구는 봉기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3·1발포사건이 아니었다면 4·3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

제5부의 증언자는 3·1사건 가담했던 모슬포 요지 감시대원이었던 김두석, 조몽구가 셋방을 살았던 집주인이었던 고기생, 조몽구의 조카인 조○○, 조몽구의 후처인 현두진, 남로당 대정책이었던 이운방 등이다. 그 중 김두석은 도민들의 피해상황을 밝히지 않고, 조몽구에 대한 증언을 주로 전하고 있다. [증언 43]의 고기생은 조몽구에게 방을 빌려준 일로 토벌대에게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조몽구를 부정적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증언 45]에서 현두진도 6·25이후 제주로 돌아

온 뒤 마을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면서도 마을 사람이 “수수를 몇 마디만 팔아 달라 하면 우끈 일어나 밭으로 가서는 서너 그루를 잘라 때 몇 겹으로 묶어서 건네주고 돈은 받지 않았다”⁶⁹⁾며 마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언 46]의 이운방은 1947년 3·1사건 당시 남로당 대정책으로 3·1사건과 4·3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는 “4·3사건은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그 전 당의 지도자인 조몽구도 일을 모르는 걸로 안다”고 하였으며 4·3의 원인에 대해서 “밭포만 안했으면 총파업을 안했을 것이요, 총파업이 없었다면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⁷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5부에서는 4·3의 주동자로 널리 알려진 김달삼이나 이덕구에 비해 덜 주목받았던 인물인 조몽구에 대한 증언을 주로 실으면서 조몽구의 성향과 그의 말년에 겪은 고통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5부의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조몽구를 비롯한 4·3 당시의 사람들이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가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한라의 통곡소리』는 각각의 구성에 적절한 제목을 붙여 해당 증언의 의미를 좀 더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즉, 이 증언집은 중산간 마을의 피해와 그로 인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일반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4·3의 비극, 무장대에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 이데올로기 선택을 강요받았던 부당한 시대, 연좌제로 고통 받는 현실, 그리고 4·3주동자의 생애 등 다양한 증언을 실었다. 그러한 까닭은 이 증언집을 통해 ‘항쟁’과 ‘폭동’의 대립적 논쟁이 아니라 4·3 자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40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묻히고, 현재도 묻히기를 강요받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 이 증언집에 실려 있다.

이 증언집의 특징을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 말함수다』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사 말함수다』는 1989년에 두 권으로 간행되었는데 1권에서는 조천읍, 2권에서는 애월읍을 중심으로 4·3 당시 각 마을에 살았던 증언자들의 증언을 다루고 있다.⁷¹⁾ 『이제사 말함수다』는 1·2권에 특정

69) 「조몽구의 후일담」, 위의 책, 217쪽.

70) 「3·1사건 당시 남로당 대정책」, 위의 책, 220쪽.

마을을 중심으로 각각 스무 개의 증언을 채록하여 정리하였는데, 수록된 증언은 증언자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⁷²⁾ 그리고 위 증언집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증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질문은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것보다 4·3의 배경, 마을의 피해상황, 4·3 봉기세력에 집중되어 있다.⁷³⁾ 따라서 그 증언자들의 증언은 토벌대에 의한 소개(疏開)와 학살의 피해, 해방 후의 상황과 미군의 모습, 인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947년 3·1사건, 토벌대를 피해 산에 숨어 산 경험, 산사람들의 활동과 무기, 정뜨르 비행장에서 일어난 학살과 당시 무장대에 대한 고문의 피해 사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4·3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언도 많다. 이덕구에 대한 증언이 가장 많고, 김민학, 김유환, 김의봉, 김달삼, 오대진, 조몽구 등에 대한 증언도 실려 있다. 연좌제와 진상규명 운동에 대한 증언도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제사 말함수다』는

71) 『이제사 말함수다』 1권을 보면, 먼저 「좌담 4·3의 진실과 증언」이 나오고, 그 뒤에 제목이 붙은 증언이 정리되어 있으며, 끝에 「자료 4·3사건의 진상」, 「인명색인」, 「4·3 증언자료집 제주말 용례보기」가 각 실려 있다. 「좌담-4·3의 진실과 증언」에서는 증언 채록에 참가했던 문무병, 이민해, 홍만기가 주고받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좌담-4·3의 진실과 증언」에서는 위 증언집의 한계로 녹음 거부로 인한 기록의 한정성, 채록 방법의 미숙성, 제주말 증언을 표준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언의 전달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증언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까닭으로 개인 원한 차원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72) 『이제사 말함수다』 1권에 있는 20개의 증언은 일반주민의 증언 10편, 좌익에 속한 증언자의 증언 4편, 우익에 속한 증언자의 증언 1편, 조천중학원 학생의 증언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2편은 4·3 때 일본으로 밀항했던 자의 증언이기도 하다.

73) 『이제사 말함수다』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불쌍한 건 예편달이라」, 127쪽에서,

- 조천에 이덕구 씨를 아십니까? 예. 신촌의 이덕구가 일본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폭도 일을 해주. 와흘 김의봉이도 알고, 김의봉이 잠안(잡아서) 순경된 사름 아직도 살아 있어. 처음엔 같이 활약하다가 김의봉이를 잡젠 베포(도시락)에 한쪽에 약을 뿌리고, 한편엔 약을 아니 뿌리고 해서 먹이젠 하다가 그때 포의해 가지고 김의봉이를 죽어부렸주게.
- 김의봉 씨하고는 몇 살쯤 차이납니까? 우리보다 아래나. 살아시른 한 60이 넘으라마나 해.

* 「동무는 밥이나 축내」, 81~87쪽에서

- 야학에는 여자분들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수업장소는 학생집에서도 하고, 공회당에서도 하고 했지.
- 그때, 식량이 없을 때 ‘면당’에서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연락도 끊어질 때야. 그때가 집중토벌을 할 시기랐으니 말이여.
- 산사람들은 9연대가 올라가서 무기를 공급해주기 전에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무기는 몇 정 있었는데 … 이건 말로 들은 건데, 불탄 총, 일본놈이 사용하던 99식이야 아, 그런 총이야 몇 만 정 있으믄 뭘해? 경찰도 총을 가정[가져서] 많이 올라갔거든. 뭐, 서로 왔다갔다한거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구술채록 원칙에 좀 더 가까운 증언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사 말함수다』는 특정 마을의 증언자를 선정하고 질문과 답변의 증언을 채록된 그대로 옮겨(단, 방언은 표준어로 바꿈) 사건과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증언집이다. 향후 4·3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라의 통곡소리』는 4·3의 전반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오성찬에 의해 요약적으로 정리된 증언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라의 통곡소리』가 채록자의 입김과 의도가 더 많이 개입된 증언집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제사 말함수다』가 개인적인 비극이나 상황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4·3봉기 주동자와 같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증언에 집중하는데 비해, 『한라의 통곡소리』는 토벌대의 횡포를 피할 길이 없던 절박함, 유가족으로서의 고통, 강요당한 이념 선택의 문제 등 개인적인 비극이나 상황에 더 집중하여 증언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사 말함수다』와 비교할 때, 『한라의 통곡소리』는 제주 마을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등을 통해 4·3의 비극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성찬은 기억주체의 고통과 슬픔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4·3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라의 통곡소리』는 『이제사 말함수다』보다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다.

『한라의 통곡소리』에 실린 46편의 사실서사를 기억주체와 가해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증언집의 성격을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한라의 통곡소리』 증언 분석⁷⁴⁾

부	증언 편수	기억주체			가해집단	
		일반주민	우익	좌익	토벌대	무장대
1부	16편	1, 2, 3, 4, 6, 8, 9, 10, 12, 13, 14, 15, 16	7, 9, 10	5, 11	모든 증언 (16편)	1, 3, 6, 7, 8, 9, 10, 11
2부	10편	18~26(9편)	없음	17	18~26(9편)	18, 24

3부	6편	27, 30, 31	28, 29, 32	없음	29, 31	27, 28, 30, 31, 32
4부	9편	33, 35, 37, 40, 41	없음	34, 36 38, 39	34, 36, 37, 38, 39, 40, 41	33, 34, 35, 37, 38
5부	5편	42, 43, 44, 45	41	46	43, 44	없음
계	46편	34명	7명	8명	36편	20편

<표 6>에 나타난 가해집단에 대한 분석을 먼저 살펴본다.

우선, 가해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4·3 당시 제주도민이 누구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라의 통곡소리』에는 토벌대에 의한 피해를 이야기하는 증언 36편과 무장대에 의한 피해를 이야기하는 증언 20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증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무장대에 의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수에 관하여 [증언 1]에서 5명, [증언 7]에서 3명, [증언 8]에서 1명, [증언 9]에서 16명, [증언 11]에서 2명 등이라고 증언되어 있는 반면, 토벌대에 의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수에 관하여는 [증언 1]에서 65명, [증언 7]에서 150명, [증언 15]에서 157명 등, 적게는 몇 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증언되어 있다. 이러한 각 마을의 희생자의 수를 통해, 4·3 당시 무장대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보다는 토벌대에 의한 것이 훨씬 더 컸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무장대 또는 토벌대에 의한 각 피해에 대한 증언에 따르면, 4·3 당시 제주도민은 양자가 가한 폭력에 의해 각 희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토벌대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제주도민의 피해 양상과 비교해 보아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상

74) <표 6>은 <표 1>~<표 5>에서 부여한 증언 번호로 정리하였다. 『한라의 통곡소리』에 수록된 증언들을 ‘기억주체’와 ‘가해집단’으로 분석할 때, ‘기억주체’는 증언자가 어떤 사상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국가 기구나 우익단체에 속해 있던 증언자는 우익, 무장대에 속해 있던 증언자는 좌익,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았던 증언자는 일반주민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하나의 제목에 여러 증언자가 나오고,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각각 중복하여 정리하였다. ‘가해집단’은 토벌대와 무장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증언자가 무장대와 토벌대를 모두 ‘가해집단’으로 지목한 경우 양쪽을 동시에 ‘가해집단’으로 집계하였으며, 어느 쪽의 피해도 언급하지 않은 경우는 집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증언 내용에 따라 ‘가해집단’에 의한 희생자의 피해가 적은 경우라도 증언을 토대로 ‘가해집단’으로 집계하였다.

조사보고서』 중 ‘4·3위원회 신고서’의 가해자별 현황에서도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 86.1% 대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3.9%로 제시되어 있다.⁷⁵⁾

다음, 위 증언을 통해 제주도민의 희생이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한라의 통곡소리』의 제1부에 채록된 증언을 보면 1948년 10월 중순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벌어진 중산간 지역의 방화와 학살에서 도민들의 대부분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진상조사보고서』의 기재된 내용과도 비슷하다. 『진상조사보고서』 중 ‘제주 4·3사건 신고서’⁷⁶⁾의 월별 희생실태 분석에 의하면 강경진압작전 진행 전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⁷⁷⁾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표 6>에 나타난 기억주체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다.

우선, 오성찬은 『한라의 통곡소리』의 서문에서 “좌익에 당한 사람, 우익에 당한 사람들의 증언을 무작위로 모아 실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알게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임을 강조하고 싶다”⁷⁸⁾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라의 통곡소리』에 나타나는 기억주체들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라의 통곡소리』에는 일반주민 증언자 34명의 증언 외에 우익에 속했던 증언자 7명, 좌익에 속했던 증언자 8명의 각 증언도 서술되어 있다. 즉, 이 증언집에는 어느 일방의 기억주체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주체로서의 일반주민과 기억주체로서의 우익 증언자와 기억주체로서의 좌익 증언자가 모두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오성찬은 일반주민의 증언을 주로 듣되, 이념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의 증언을 고르게 채록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성찬의 이러한 노력은 4·3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밑돌’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음, <표 6>에서는 기억주체를, 국가 기구나 우익단체에 속해 있던 증언자는

75) 오성찬 채록·정리, 앞의 책, 373쪽.

76)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 종결 이후 공공기관에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사례를 ‘1960년 국회 양민학살 신고서’, 1994년 ‘제주도 의회 신고서’, 2000년 4·3특별법에 의한 ‘제주 4·3사건 신고서’의 세 차례로 정리하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368쪽)

77) 1948년 4월부터 1949년 6월까지의 희생 신고자는 10,761명인데, 이 가운데 83%인 8,894명이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위의 책, 373쪽)

78) 오성찬 채록·정리, 『서문』, 앞의 책, 16쪽.

우익, 무장대에 속해 있던 증언자는 좌익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라의 통곡소리』에서는 기억주체를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증언자도 있다. 이 증언집에 의하면, 좌익이었다가 전향했던 증언자 즉, 「양쪽에 피해입은 면당 위생병」의 김석규([증언 34]), 「타도당한 민족학생과」의 장동석([증언 36]), 「‘도민은 전부가 피해자」의 김생민([증언 39]) 등이 있고, 경찰에 끌려 다니며 우익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증언자 「친동생 죽이려 길안내」의 한봉언([증언 21]) 등이 있다.⁷⁹⁾ 이러한 분류하기 어려운 기억주체의 존재를 통해 4·3 당시 제주민들을 좌익이나 우익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성찬도 어느 한쪽의 기억주체만이 아닌 다양한 기억주체들의 증언을 이 증언집에 수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증언집은 그만큼 4·3이 복잡하고 혼란한 양상으로 벌어졌다는 점과 4·3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선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3은 그 사적(史的) 평가에서 민중항쟁론과 양민학살론으로 갈리고 있고, 이 증언집에서도 4·3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제각기 다르게 드러난다. 하지만 오성찬은 “혼미의 시대를 바르게 정리하는 기초에 보탬”⁸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6편의 증언을 정리하면서 명칭조차 증인들이 말하는 대로 기록하였다. 즉 『한라의 통곡소리』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로 열린 공간 속에서 4·3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폭력의 양상과 4·3의 비극을 보여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라의 통곡소리』에는 4·3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기록문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오성찬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79) <표 6>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기억주체로 분류함에 있어 편의상, 각 증언에 따라 좌익이었다가 체포되어 강압에 의해 전향한 경우는 ‘좌익’으로, 우익의 강압에 의해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증언자는 ‘일반주민’으로 정리하였다.

80) 오성찬 채록·정리, 「서문」, 위의 책, 16쪽.

Ⅲ. 사실서사 수용의 서사전략과 의미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를 이야기로 꾸며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담아내는 과정은 사실서사에 질서와 형상을 부여하여 작가적 의미를 더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서사구조와 서사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재현이나 효과를 위해 동원되는 방략이면서, 독자의 마음속에 유발되는 이해의 행위까지 관여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구조와 전략으로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는 증언소설 안에서 사실임직하게, 필연성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줄거리로 배열되는 것이다.

1. 사실서사의 수용양상과 서사구조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은 모두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를 수용하여 소설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서사의 수용으로 인한 소설은 각각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실서사를 접하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의 두 유형으로 정리된다.

- ㉠ 취재형 소설 : 주인공이 4·3증언자를 만나 취재하는 형식으로 사실서사를 삽입한 경우.
- ㉡ 회상형 소설 : 주인공이 자신이 겪은 4·3의 체험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사실서사를 삽입한 경우.

그리고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도 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 취재형 소설 : 「나비로의 환생」,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 ㉡ 회상형 소설 : 「보춘화 한 뿌리」, 「한라구절초」, 「바람의 눈」

다만, 「보춘화 한 뿌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유형의 소설에 속하지만, 또 다른 4·3증언자를 만나 취재하는 ㉠유형인 취재 방식의 사실서사가 삽입되어 있다. 각 유형의 소설에 삽입된 4·3의 사건들은 『한라의 통곡소리』에 실린 사실 서사이며, ㉡유형의 소설에서 주인공의 회상도 대부분 상상서사가 아니라 『한라의 통곡소리』에 기반하고 있다.

㉠유형의 소설 중, 우선 「나비로의 환생」을 보자. 「나비로의 환생」의 서사구조는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⁸¹⁾

<표 7> 「나비로의 환생」의 서사구조

장	서사구조
1	① ‘나’는 6·25때 인민군인 박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현장을 목격한 뒤로 악몽에 시달림. ② 박아지가 월북한 후, ‘나’는 박아지 아들 순보에게 지속적으로 린치를 가함. 순보가 아버지의 묘를 몰래 벌초한 사실을 알고 더욱 린치를 가함. ③ ‘나’는 제주도로 전보온 뒤에도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악몽에 시달림.
2	④ 제주에서도 ‘나’는 병명 없는 육체의 통증과 아버지에 대한 악몽에 시달림.
3	⑤ ‘나’는 배영길에 관한 투서를 받고 4·3에 관심을 갖게 됨. ‘나’는 한해룡에게 4·3의 사건에 대해 들음. [증언 29] ⁸²⁾ : 지로인으로 공비토벌에 앞장섰던 경찰이 5·16 직후까지도 수류탄을 지니고 살았다는 사연. [증언 5] : 공산당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술래 살리기 놀이로 위장해 휴업의 주모자 역할을 시킴. [증언 32] : 일본 순사였던 경찰이 친일과 면장을 호송하다 놓친 사건. ⑥ ‘나’는 한해룡이 데리고 온 부달수에게 4·3 때 벌어진 일들을 들음. [증언 32] : 경찰이 남로당 도본부를 안내하는 암호문 해석했으나 경찰 내에서 정보가 새서 놓친 사건.
4	⑦ ‘나’는 한해룡에게 김익렬 중대장과 김달삼이 만나 평화협상 추진했으나 실패한 사건에 대해 들음. ⑧ ‘나’는 배영길의 아내 조임숙을 호출하지만, 조임숙은 린치사건에 대해 진술

81)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모든 소설이 여러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는 바, 여기서는 작가가 번호를 매겨가며 구분해 놓은 각각의 장에 따라 흐름을 분석하였다.

	을 거부함. [증언-「하얀 달빛」 ⁸³⁾] : 무장대에게 강제로 도장을 찍어준 마을 사람들이 ‘폭도 명부’에 올라 처형된 사건. [증언 21] : 사냥꾼 한서방이 지로인으로 토벌대를 돕다가 무장대인 아우를 죽게 한 사건.
5	⑨ ‘나’에게 한해룡은 배영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전해줌. [증언 20] : 4·3 때 국민학교 교사인 홍아무개가 등사관을 잃어버린 일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으나, 조카딸을 서청에게 정략 결혼시킨 덕분에 살아남.
6	⑩ 홍아무개의 애인 조임숙은 배영길에게 성폭행을 당해 딸을 낳았고, 마을로 돌아온 배영길은 조임숙과 동거하다가 6·25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반복적인 린치를 당하다 죽음. ⑪ 조임숙은 린치를 당하다 죽은 배영길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나’에게 말함.
7	⑫ ‘나’는 린치를 가했던 순보를 용서함. 꿈에서 죽은 이들이 나비로 환생함.

이 소설에서 주인공 ‘나’는 6·25 때 인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목격하였고, 이 기억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까지 악몽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나’는 검사로서 제주로 발령을 받는다. ‘나’는 4·3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던 상태, 즉 미각성된 상태였다. 그런데 ‘나’는 서북청년단이었던 배영길이 마을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했다는 투서를 받고 4·3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나’는 또 다른 허구적 인물인 한해룡을 통해 4·3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한해룡은 제주토박이인데다 4·3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설 속의 ‘나’는 한해룡과 4·3증언자들을 만나 그들을 취재해가면서 4·3의 비극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식인으로서 반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나’가 4·3의 사실서사를 접하면서 각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도 다르지 않다.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의 서사구조는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의 서사구조

82) 여기서의 증언 번호는 II장에서 『한라의 통곡소리』를 분석하면서 <표 1>~<표 5>에서 부여한 증언 번호로 정리를 사용하고 있다.

83) 오성찬이 1971년에 발표한 4·3소설이다.

장	서사구조
1	① 양충식은 개 비석을 조사하러 들어간 집에서 주명구의 조카를 만남.
2	② 양충식은 대통령 직선제를 앞두고 독재정권 교체를 위해 재야의 주축이 될 추진체의 일원이 됨.
3	③ 양충식은 주명구의 조카가 피부은 옥실을 계기로 분철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4·3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함. [증언-「하얀 달빛」] 여덟 살 때 목격한 투표를 하지 않은 채 숨어 다니던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 대한 기억. ⁸⁴⁾
4	④ 양충식은 전향한 경찰관을 만나 4·3에 대해 들음. [증언 39] 1947년 3·1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주명구가 조직과 파업에 탁월했음을 증언. ⑤ 양충식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추진체의 고문으로 어느 원로를 모셨으나 거절당하고 지식인 계층에 환멸을 느낌.
5	⑥ 양충식은 4·3 때 토벌대에게 피해를 입은 증언자를 만나 증언을 채록함 [증언 13] 당시 열세 살이었던 사내가 발담에 널브러진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한 사연. ⑦ 양충식은 공산주의자였던 유은방 노인을 만남. [증언 46] 김달삼이 과격한 시위를 주도하면서 승승장구하기 전에 주명구가 실질적인 주동자였다고 증언. ⑧ 양충식은 시청의 고위간부에게 압력을 받음. 그리고 발기대회 후 무리한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함.
6	⑨ 양충식은 경찰정보통에 있었던 고씨 영감을 만남. [증언 28] 고씨 영감은 이덕구를 잡은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고 남로당의 재산활동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거부함. ⑩ 양충식은 동일리 강노인을 찾아감. [증언 42] 주명구는 비둘기파로 평화 노선을 지향했기에 제거당했다고 함. ⑪ 양충식은 주명구가 세를 살았던 집주인 조씨 내외를 만남. [증언 43] 주명구가 뼈라를 뿌려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서북청년들에게 고초를 많이 당한 사연. 6·25 이후 부산에서 주명구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함.
7	⑫ 양충식은 주명구의 조카의 말을 떠올림. [증언 44] 주명구의 처와 네 아이들이 토벌대에게 죽은 사건. ⑬ 양충식은 주명구의 후처를 만남 [증언 45] 주명구는 제주 성읍에 다시 정착한 후, 무장대에게 희생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인 린치를 당하다 죽음. ⑭ 양충식은 주명구의 묘에서 털진달래를 발견함. 라디오로 야당의 두 지도자가 싸운다는 뉴스를 들으며,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깨달음.

84) 이 회상에는 4·3직후 바로 혈린 성담에 대한 이야기, 송악산 집단 학살과 공동으로 만든 희생자 묘비가 정부에 의해 파괴된 사건도 함께 서술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양충식이라는 문화재전문위원이자 향토사학자이다. 그리고 양충식은 어린시절에 4·3을 겪었던 기억주체이기도 하다. 양충식은 관내 고비(古碑)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개 비석을 조사하러 갔다가 주명구⁸⁵⁾의 조카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주명구의 조카의 옥설을 듣고 그동안 4·3에 대해 방관자였던 자신을 반성하고 4·3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한다. 그는 여러 4·3증언자를 취재하면서 4·3의 비극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각성하게 된다.

이처럼 ㉠유형의 소설은 ‘미각성-4·3증언자 취재-각성’이라는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주인공은 4·3에 대해 방관적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 4·3에 관심을 갖게 된 후 다양한 4·3증언자를 취재해 나간다. 주인공은 이 과정에서 4·3의 비극을 알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각성되어 변화한다.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는 주인공의 인식변화에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4·3의 비극에 공감한 주인공의 각성에 설득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주인공의 각성은 1회의 사실서사를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취재의 과정을 통해 여러 사실서사를 접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다. 주인공은 이러한 각성의 바탕 위에서 용서와 반성을 경험하고 화해와 극복의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가게 한다.

다음으로 ㉡유형의 소설을 살펴보자. 먼저 「보춘화 한 뿌리」의 서사구조는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보춘화 한 뿌리」의 서사구조

장	서사구조
1	① ‘나’는 서북청년단이었던 장군을 만나러 서울에 감.
2	② 장군과의 만난 ‘나’가 4·3 때 상황에 대해 들음. [증언 29, 21] 토벌대가 토벌현상금을 벌기 위해 죽은 무장대의 신체를 마구 잘랐다고 함.
3	[증언 16, 26] ‘나’는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와 4·3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떠올림.
4	③ ‘나’는 성당에서 벌어진 고문반대 시위 소식을 들으며 장군을 기다림.

85) 소설 속 인물인 ‘주명구’의 실제 모델은 ‘조몽구’이다. 또한 이 소설의 다른 인물인 ‘유은방’의 실제 모델은 ‘이운방’이다.

	[증언 21] 토벌대의 지로인으로 활동하던 사냥꾼이 교전 후 죽은 무장대원을 확인하니 동생이었음, [증언 13] 낮에는 토벌대에게, 밤에는 무장대로 떨던 사연. ④ ‘나’는 장군을 두 번째 만나 4·3에 대해 들음. [증언 11] 북촌 마을에서 벌어진 토벌대의 학살 사건.
5	[증언 40] 연좌제로 인해 ‘나’와 가족이 겪은 고통 ⑤ ‘나’는 4·3 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4·3을 조사하기 시작함.
6	⑥ ‘나’는 장군과 세 번째 만남에서 장군이 난 키우는 낙으로 산다는 말을 들음. ⑦ ‘나’는 데모 현장에서 전경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여인들을 만남.
7	⑧ ‘나’는 제주로 돌아와 장군이 부탁한 비석을 찾아 갔다가, 비석이 깨진 것을 발견함. ‘나’는 제주의 꽃인 보춘화를 장군에게 소포로 보냄.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기자이며, 4·3의 기억주체이기도 하다. ‘나’의 아버지는 4·3 때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힘들게 살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4·3 당시 서북청년단이었던 장군을 만난다. 그 장군은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만남 전후로 일어난 과거회상 속에서 여러 개의 사실서사를 마주한다. ‘나’는 마지막 장군을 만나기 전 날 꿈에 아버지로부터 복수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나’는 장군으로부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과거 회상으로 접한 사실서사에서 과거의 상처를 확인함과 동시에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결국 사실서사는 ‘나’의 기억 속에서 수 회 환기되면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각성을 이끌어냈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한라구절초」를 보자. 「한라구절초」의 서사구조는 <표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0> 「한라구절초」의 서사구조

장	서사구조
1	① 양충식은 동서인 덕배 아방의 죽음을 수습하러 교통사고 현장인 신촌의 진드르로 향함. [증언 32] 정보계 형사가 어렵게 암호를 해독하지만 무장대를 놓친 사건 [증언 32] ‘보리드르’에서 봄별에 잡든 무장대 훈련대장 김대진을 사살한 사

	<p>건</p> <p>② 대통령 후보가 사고 현장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현장이 치워진 걸 알게 됨.</p> <p>[증언 32] 일제 순사들이 순사 복장으로 미군정 경찰로 파견된 사건</p> <p>[증언 34] 이덕구 처와 일곱 살짜리 어린 아들이 처형된 사건</p>
2	<p>③ 양충식은 사고의 진상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도립병원에 가면서 4·3 때 죽은 외삼촌에게 밤에 몰래 수의를 입혔는데 나중에 보니 엉뚱한 사람이었다는 어머니의 하소연을 떠올림.</p> <p>④ 양충식은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지만 증인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음.</p> <p>[증언 34] 관덕정에 이덕구의 시신이 전시되어 있었던 사건.</p>
3	<p>⑤ 양충식은 죽은 동서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리된 상황을 형사에게 들음.</p>
4	<p>⑥ 양충식은 교통사고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낌.</p> <p>[증언 14, 22, 26] 검은 모래밭 해변에서 토벌대에게 총을 맞고도 살아난 여인을 다시 신고해 죽인 사건.</p> <p>[증언 7] 구좌면 중산간 마을에서 경찰관 부모가 무장대에게 습격을 받은 일로 무장대의 가족을 씨멸족시킨 사건.</p>
5	<p>⑦ 사고 소식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양충식은 당황함.</p>
6	<p>⑧ 양충식은 사과조차 없는 사고버스 운전사에게 분개하며, 영구차를 타고 어승생 공동묘지로 향하다 한라구절초를 발견함.</p> <p>⑨ 양충식은 공동묘지에서 어느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음.</p> <p>[증언 34] 호적을 정리하러 제주에 다녀간 이덕구의 딸을 태운 적이 있다는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p>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양충식이라는 기자이다. 그리고 양충식은 4·3의 기억주체이다. 양충식은 교통사고로 죽은 동서를 위해 사고 처리를 위해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경찰, 공제조합, 버스회사 등의 부조리함을 목격하고, 그 제주 곳곳에서 과거회상으로 어느 무장대원의 죽음, 토벌대에 의한 이덕구와 그 가족의 죽음 등 여러 사실서사를 떠올린다. 양충식은 그 사실서사를 통해 4·3에서 자행된 살육의 양상이 현재의 죽음에 대한 부조리한 처리와 유사하다고 느낀다. 결국 사실서사는 양충식의 잊고 있던 기억의 환기를 통하여 극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4·3의 비극과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부조리가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각성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늪」을 살펴보자. 「바람의 늪」의 서사구조는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1> 「바람의 늪」의 서사구조

장	서사구조
1	<p>① 순민은 전향한 김만철 씨 가족을 두고 아들 형일과 의견 차이를 보임. [증언 34] 해방 후 신우야간중학교 학생으로 곶보(이덕구)와 활동하며 퍼즐도 풀던 기억. [증언 34] 신우학원이 남로당의 거점임을 알고 총연락책이 되어, 위장하여 문서를 전달했던 기억.</p>
2	<p>[증언 34, 39] 맥아더의 포고령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돼지장사로 변장하여 일을 수행하다 경찰에 잡혀 고문 당함. ② 전향할 당시 자신을 회유한 형사에게 불려나감. [증언 34] 고문당하던 순민은 가족을 위해 자백하고, 동지들은 체포됨. ③ 순민은 형사와 같이 술을 마시고, 형사가 부르는 반공멸미가를 들음.</p>
3	<p>④ 건국대에서 학생들이 농성을 벌인다는 뉴스를 보며 순민은 4·3을 떠올림. [증언 5] 공산당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술래 살리기 놀이로 위장해 휴업의 주모자 역할을 시킴. ⑤ 순민은 데모에 가담하는 아들 형민과 갈등 관계에 놓임. [증언 34] 죽은 곶보(이덕구)의 시신이 관덕정에 전시된 것을 목격함.</p>
4	<p>⑥ 순민은 아들이 건국대 데모사건으로 연행됐다는 소식에 경찰서로 향함. ⑦ 서장이 데모 벌인 학생들이 4·3 때 폭도들과 같다고 비난하자, 순민은 자신의 전향을 반성하고 제주의 바람 속으로 걸어감.</p>

이 소설의 주인공은 순민이라는 4·3의 기억주체로, 4·3 때 남로당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전향한 인물이다. 순민은 현재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설은 순민이 4·3의 기억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사실서사를 배열한다. 순민은 자신의 기억으로 사실서사를 옮겨와, 반정부 시위로 아들이 검거된 현재의 상황과 4·3의 비극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전향을 후회한다. 사실서사는 순민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했던 4·3의 구호들이 실은 정당한 외침이었다는 각성을 하게 해준다.

따라서 ㉠ 유형의 소설은 ‘미각성-4·3에 대한 회상-각성’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주인공은 4·3의 비극을 체험한 기억주체임에도 그 비극을 외면하거나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한 ‘미각성’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4·3의 비극을 ‘회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깨닫고, 점차 적극적인 생각으로 각성된다. 주인공의 각성은 여러 개로

나열된 사실서사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주인공은 이러한 각성에 따라 용서 또는 반성을 하고 화해 또는 극복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록된 다섯 편의 중편소설은 ㉠취재형 소설이든, ㉡회상형 소설이든 모두 ‘미각성-취재 혹은 회상-각성’의 구조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소설들은 사실서사를 취재나 회상의 방식으로 배열하여 주인공이 접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을 사는 주인공은 이렇게 배열된 사실서사로 인해 미각성에서 각성으로 변화된다. 즉 주인공은 4:3의 비극이 담긴 사실서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변화는 증언소설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게 된다. 이렇게 ‘미각성-취재 혹은 회상-각성’의 서사구조는 주인공의 각성을 이끌어내어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해 주는 공통적인 뼈대이면서, 증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2. 소설적 재현의 서사전략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을 분석하여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가 이 소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는지 고찰하여 이 소설의 서사전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사실서사는 작가의 상상서사 속에 녹아들어간 것이 아니다. 사실서사는 주인공이 4:3에 대해 취재하거나 과거회상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제시되므로, 상상서사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상서사는 여러 개의 사실서사가 나열될 수 있도록 서사의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실서사는, 첫째, 대화의 방식으로 서술되거나, 둘째, 사실서사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과거회상으로 요약되는 방식으로 서술되거나, 셋째, 사실서사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입혀 과거회상에서 확장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첫째, 대화의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우이다. 이는 대화자가 자신이 들었던 사

건을 대신 전해주는 방식이거나, 대화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나빅로의 환생」의 [증언 29], 「보춘화 한 뿌리」의 [증언 11] 등에서 보이는 서술로서, 그 방식은 아래와 같다.

“...이런 말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선배 경찰관으로 한라산 공비토벌에 앞장섰던 지로인(知路人)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얼마 전에야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오일육 직후까지도 수류탄 두 발을 집안의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춰뒀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때까지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도요.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그 수류탄은 어떻게 됐어요?”

“오일육 후에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버렸답니다...”(「나빅로의 환생」, 50~51쪽)(밑줄은 인용자, 이하 마찬가지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자가 자신이 들었던 사건을 대신 전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방식에서는 사실서사가 대화자에 의해 증언의 중요 내용이 요약되어 서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간접내용석의⁸⁶⁾로 볼 수 있다. 간접내용석의란 화행의 내용만 석의하는 경우인데, 이는 증언을 지나치게 요약하지도, 증언에 다른 이의 생각을 덧붙이지도 않으면서 증언내용을 전하기 위한 서술이다. 위 인용문에서 대화 속에 요약된 사실서사를 『한라의 통곡소리』와 비교해보자.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에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사건이 진압된 후 5·16 때까지도 신변에 늘 위험을 느껴서 몰래 수류탄을 감춰두고 있었다고 그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털어냈다. 그는 5·16 후에야 바다 멀리 나가서 그것을 버렸다고 했다.⁸⁷⁾

86) 리론 케넨은 대화 제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하나의 화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하는 순수요약, 하나의 화재를 지목하는(어느 정도의 내용을 재현하는 요약) 통상요약, 원래의 발화 형식이나 양식을 무시하고 화행의 내용만 석의하는 간접 내용 석의(釋義), 단순한 내용보고를 넘어서 하나의 발화의 양식의 여러 국면을 보유하거나 재생시키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모방성간접화법, 문법적으로나 모방의 면에서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의 중간적인 것으로 자유간접화법, 독백이나 대화의 인용인 직접화법, 일인칭 내적 독백의 전형적인 형식인 자유직접화법으로 나뉜다.(리론 케넨,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191~193쪽)

위 사실서사의 인용문과 소설 속의 서술방식을 비교하면 원래 사실서사의 내용이 소설에서 들은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증언의 주요내용이 요약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이러한 소설의 서술은 사실서사가 간접내용식으로 요약되면서 4:3증언에 관한 서술자의 해석과 평가, 혹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증언에 대한 내용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나비로의 환생」에서 주인공 ‘나’는 4:3 사건을 한해룡과의 대화를 통해 들으면서도 한해룡의 입을 통해 서술자의 생각이나 소설적 상상력이 개입된 가공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서사에 나타난 실제 발생하였던 증언자의 증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받는다.

후자의 경우는,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의 [증언 39], [증언 46], [증언 28], [증언 42], [증언 43], [증언 44], 「한라구절초」의 [증언 32-친일 경찰 이야기], [증언 32-이덕구 아들의 죽음], [증언 34-이덕구의 딸을 목격한 사건] 등에서 보이는 서술이다. 위 소설 속에서 사실서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다.

“모였다마다, 한 오륙천 됐을 거여. 아마 그것이 전무후한 군중집회였지. 학교 마당에 모였는데 담 위까지 혀였으니까… 그때 총책이 나여. 김달삼이가 조직책이 고… (…)

노인의 머리가 다시 살래살래 돌아갔다.

“…삼일절 기념식이 끝났는데 아 이놈이 계획에도 없던 시위를 한다고 군중들을 끌고 시내로 나가려 한단 말이여. 난 안 된다고 했지. 그래도 이 놈이 말을 안 들어.”(「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288쪽)

-그때야 주재소였지요. 해방이 되자 소장과 차석이 사라져버렸어요. 달랑 나 혼자 남게 되었지요. 군인 갔다온 사람, 징용 갔다온 사람들이 지나면서 ‘갈치 풀랭이, 저놈의 갈치 풀랭이를 잘라버려야하는데…’ 공갈을 치는데도 견디어낸 건 충성심 때문일 거예요.(「한라구절초」, 215~216쪽)

87) 오성찬 채록·정리, 「'건고 보자 현용선'의 체험」, 앞의 책, 139쪽.

위 대화에 사용된 사실서사는 『한라의 통곡소리』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3·1사건 때 대정 쪽의 행사는 지금의 대정교 교정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거리로 나가 시위를 했다. 저녁에는 또 연극도 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김달삼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그는 이 행사 때 이미 대정책의 의견을 제치고 시위를 시가로 진출시켰던 것이다.⁸⁸⁾

해방이 되자 일인 경찰관들이 잠적해버려 그는 주재소에 혼자 남겨졌다. 징용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일제에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인근 교래리 마을 구장을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다.⁸⁹⁾

위 인용문들의 비교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설 속의 대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사실서사를 사용한다. 즉 사실서사는 직접화법으로 서술된다. 직접화법은 독백이나 대화가 그대로 인용되는 서술방법이다. 이는 사실서사를 전달했던 증언자의 목소리로 “순수한 모방의 환상”을 만들어 낸다.⁹⁰⁾ 이 소설 속의 대화자는 사실서사를 전하는 자이고, 서술자의 의식이나 의도가 개입된 가공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인용문의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나 「한라구철초」에서처럼 대화를 통한 직접화법은 사실서사의 증언을 증언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로서 사실서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자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달된다.

둘째, 사실서사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과거회상으로 요약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우이다. 이는 「나비로의 환생」의 [증언 5],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 사용된 [증언 13], 「보춘화 한 뿌리」의 [증언 29, 21], [증언 21], 「한라구철초」의 [증언 32-경찰의 암호문 해석 사건], [증언 34-이덕구의 시신 목격], [증언 7] 요약 등에서 보이는 서술이다. 이때의 사실서사도 두 가지 방식으

88) 오성찬 채록·정리, 「3·1사건 당시 남로당 대정책」, 앞의 책, 219쪽.

89) 「왜경 옷 입고 군정보조관」, 위의 책, 147쪽.

90) 리몬 케넌, 앞의 책, 193쪽

로 서술된다. 하나는 과거회상이긴 하나 회상하는 자가 과거에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회상하는 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의 사실서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다.

그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술하게 만났던 사건 피해자들이 떠올랐다. 사건이 나기 전에는 오로지 산을 누비며 노루와 오소리를 잡던 사냥꾼이었는데 그렇게 다니며 산길을 익힌 죄로 토벌대의 지로인(支路人)이 되어서 맞총질을 해 폭도를 잡고 노니까 바로 동생이더라는 할아버지.(「보춘화 한 뿌리」, 147쪽)

후자의 경우의 사실서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다.

형님이 산으로 간 때문에 우리는 늘 쫓겨 다녔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형님들 두 분, 누이, 조카들까지 그 사태에 죽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만 아홉 식구예요. 그와 동년배의 사내는 해병대로 참전했던 자기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아직도 눈에 불길이 형형했다. 나는 그때 열세 살이었는데 용강(龍岡)마을로 피해 있던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왔어요. 담요 하나를 등매기에 걸머지고 받담을 넘고 또 넘었지요. 길보다는 밤이 안전했으니까요.(「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284쪽)

위 각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회상으로 요약된 경우도 대화의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 「보춘화 한 뿌리」에서는 주인공 ‘나’가 자신이 들었던 4·3의 증언을 회상하는 서술인데, 이 때 사실서사는 간접내용석의로 서술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서술방식 중, 대화자가 자신이 들었던 사건을 대신 전해주는 경우와 같다. 두 번째 인용문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양충식이 증언자를 만나 4·3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때 증언자의 체험은 과거회상으로 서술되는데, 사실서사는 모방성간접화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모방성간접화법은 대화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진술하는 직접화법처럼, 단순한 내용보고를 넘어서 하나의 발화의 양식의 여러 국면을 보유하거나 재생시키는 환상을 만들어 낸다.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를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서술된 내용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한라의 통곡소리』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서술 비교

『한라의 통곡소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p>길가에서 <u>게릴라의 기습을 받고 2명의 군인이 사망한데서부터 발단했다. (…)</u> 주민들을 학교 마당에 <u>집결시킨 군인들은 학교 서쪽 밭, 남쪽 밭 등에서 1·2·3차까지 무차별 총살형을 집행했다. 4차째 백여 명을 끌고 나가 도로 남쪽으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느냐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서쪽으로부터 대대장이 탄 차가 도착했다. “중지!”를 외치며 달려온 대대장은 살육 현장을 지휘하던 중위를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뺨을 때리더라’고 현장의 사람들은 증언했다.</u>⁹¹⁾</p>	<p>“제가 들은 바로는 <u>습격을 받고 피해 입은 부대가 되돌아가서 대병력을 몰고 와 마을사람들을 모아 놓고 보복사살을 했다</u>는 거예요. 그 정보를 나중에 안 대대장이 <u>사살을 중지시켰다</u>는 설도 있습디마는…”</p> <p>“아는 바 없어요. …<u>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요</u>…”(『보춘화 한 뿌리』, 149쪽)</p>
<p><u>암호를 해독한 그는 뛰는 가슴으로 본서로 갔다. 그러나 작전은 지연되었다. 마침내 암호대로 본부를 덮쳤을 때 바로 피한듯 훈기가 남아 있었다. 누가 내통한 게 틀림없었다.</u>⁹²⁾</p>	<p>그는 <u>퍼뜩 떠올랐다. 신촌리(新村里)의 동수동(東水洞)…</u>, 거기는 그 시절 좌익 게릴라들이 초기에 본부로 삼던 곳이었다. 그가 최근에 인터뷰한 당시의 한 정보계 형사는 <u>어렵게 암호 해독을 하고 특공대를 동원하여 들이쳐보니까 이미 날은 다 읊이더라고</u> 허탈하게 웃었다.</p> <p>- <u>자리를 짚어보니까 따뜻한 몸집(체온)이 남았더라구. 그때야 경찰 내부에도 프락치가 썩던 때니까</u>…(『한라구절초』, 210쪽)</p>
<p><u>빨치산 소년대원으로 선서하기에 앞서서 ‘왜진돌이(술래살리기)’ 등 방법으로 선홍국민학교를 휴교 조치 하는 데 주모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끼리 모의를 하</u></p>	<p>‘<u>술래 살리기</u>’란 몇 사람의 술래와 술래아닌 편이 나누어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인데,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은 이 아이들에게 지령을 내려 산개하여 달아난 후 모</p>

<p>고는 슬래를 따라가는 척하고 교문 밖으로 달아나서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u>는 것이다.</u>⁹³⁾</p>	<p>두 집으로 돌아가고, 이걸 계기로 등교 거부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나비로의 환생』, 50쪽)</p>
<p>총 1자루 탈취해 오면 현상금으로 6만원을 주었다. 공비 1인을 사살한 현상금(경찰 보상)은 5만원이니까 총 한 자루가 사람 목숨보다 가치가 월등 높던 시절이었다. 공비를 사살하면 처음엔 오른쪽 귀만 잘라다가 수를 확인했는데 다른 토벌대들이 다른 쪽 귀를 잘라다가 보상을 받으려 했으므로 나중에는 목을 잘라 오게 했다.⁹⁴⁾</p> <p>1950년 제주도의회는 한라산 공비 토벌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군·경·민 합동 작전을 개시했다⁹⁵⁾</p>	<p>허긴 사람의 머리가 돈으로 계산되던 시절이었으니까. 토벌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술판 옆에는 전과로 잘려져 온 귀들이 수북한 먹서리가 놓여 있기도 했다니까... 허긴 그 머리 하나의 값이 총 한 자루에도 못 미치던 시절, ...한쪽 귀를 자르고 나면 다른 부대가 뒤쫓아오며 다른 쪽 귀를 잘라가므로 나중엔 아예 대가리를 잘랐었다고 하니까... 사건 중간의 1950년도의회가 책정한 현상금이 2억 원이었다고 하지. 아마...(『보춘화 한 뿌리』, 131쪽)</p>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내용석이나 직접화법, 또는 모방성간접화법으로 서술되는 경우, 사실서사의 내용은 『한라의 통곡소리』에서 서술된 증언 내용에 서술자의 해석이나 판단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이 소설집은 독자에게도 4·3증언집을 읽는 효과를 주게 된다. 이러한 사실서사의 사용은 소설의 주인공이 사실서사를 접하면서 각성되듯이, 증언의 내용을 접한 독자에게도 각성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사실서사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입히어 과거회상에서 확장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술에 해당하는 것은 「나비로의 환생」의 [증언 32], [증언 21], [증언 20],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의 [증언 45], 「보춘화 한 뿌리」의 [증언 16, 26], [증언 40], 「한라구절초」의 [증언 32-김대진의 죽음], [증

91) 오성찬 채록·정리, 『북촌리의 집단 학살』, 앞의 책, 58쪽.
 92) 『왜경 옷 입고 군정보조관』, 위의 책, 147쪽.
 93) 『선홍리 사람들도 몰사』, 위의 책, 40쪽.
 94) 『친동생 죽이러 길안내』, 위의 책, 97쪽.
 95) 『김고보자 현용선의 체험』, 위의 책, 140~143쪽.

언 14, 22, 26], 「바람의 늪」의 모든 증언이다. 위 소설에서의 이러한 사실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그의 심문은 감정적이었다. 그녀의 컷불을 발강게 붉히고 콧날개를 약간 불룩거렸다.

- 애인인 황선생한테 부끄럽지 않아? 민상수 상사와는 어떤 사이야?

그의 시선이 여자의 몸을 훑었다. 그녀는 이미 체념한 듯 어깨를 오그리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 귀밑머리서icken 어깨를 잡아 일으키자 그녀는 맥없이 목침대 위에 넘어졌다. (...)

그녀와 일을 치르면서 그는 가까이에 갇혀 있는 황을 떠올렸다. 광대뼈가 터지고 탈진해 있던 사내가 아무래도 걸리적거렸다. 없애버려야지... («나비로의 환생», 91쪽)

확인사살까지를 하고, 어떤 경우 휘발유를 뿌려 태우기까지 했지만 이번은 늘 있는 법이었다. 그날 밤은 예측대로 바람이 거세였다. 착, 차르르르, 착, 차르르르, 세찬 파도가 섬 기슭의 벽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보살 할머니는 잠에 살짝 들려할 무렵이었다. 물론 그녀도 저녁 무렵에 나는 총소리를 들었다. (...)

-살려줍서.

그녀는 파도소리 속에 아련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아주 가냘픈 것이었지만 그녀의 잠을 천리만리 쫓아버렸다. 그럴 리가 없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게지. 바람소리 탓이지. 그녀는 뒤채어 누우며 귀를 막았다. (...)

-아이고 나 살아졌수다께.

그녀는 아마 어디서 처형장에서 살아난 사람에게 ‘두 번 죽일 수는 없다’고 뇌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번 지서장은 달랐다. 그는 ‘빨리빨리 죽이지 뭇들 하느냐?’고 몰아세워서 ‘빨리빨리 지서장’이란 별명을 얻고 있는 사내였다. («한라구절초», 239~240쪽)

램프불이 노랗게 빛을 내는 방 안에서 그는 여러 개의 발길들이 자기 몸의 아무 데나 와서 내질러지는 걸 보았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끈봉이 머리를 내려치고, 광대뼈를 내지르고, 어깨를 치고... 그러다가 그는 천정에 매달린 램프불이 빠알강게 사그러지는 걸 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 불이 시야에 잡힐 즈음엔 그는 전

신이 걸레처럼 젖어 있는 걸 깨달았다.

- 코에다 고춧물을 부어! 펄펄 끓는 고춧물을...

앗 뜨거, 쿠쿠쿠... 아아. 이렇게 종말이 오는 것이구나. 그런 중에도 그는 공중에 하얀 얼굴의 부릅뜬 동공을 보았다. 이 문서는 동지의 생명보다도 중요하다... 생명보다도 중합니다... 다시, 공중에서 흔들리던 불빛이 사라졌다.

- 말을 해! 말을 하라니까. 다 알고 있던 말이야, 이 돼지장시야!

어디를 어떻게 옥죄는지 전신이 삼(痲)빨래가 비틀리듯 비틀림을 의식했다.

마침내 그는 그 자신이 램프등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등 뒤로 돌려져 묶이고 매달린 손 마디가 으깨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까이서 퍽, 퍽, 장작 패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그때마다 그네의 폭이 넓어질 뿐, 아픈 줄을 몰랐다.

-에이, 지독한 빨갱이 종자들!!(『바람의 늪』, 175쪽)

위 소설에 사용된 사실서사는 『한라의 통곡소리』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등사관이 도난당한 것 3일 뒤 8명 중 6명이 불리어 나가 강아무개 부관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집행 직전에 이웃 마을에 주둔 중인 특수부대 문남수 상사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 문 상사는 성산국교의 교사였던 홍씨의 애인 정아무개 교사의 간청으로 그를 구출한 것인데 (...) 홍씨가 풀려나와 보니 애인 정 교사는 차아무개라는 서북 청년이 겁탈한 뒤였다.⁹⁶⁾

확인 사살을 할 때 쓴 세 번째 총알을 맞고 나는 죽었다. 아니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총알은, 세 번째 총알은 외쪽 뺨을 스쳤던 것이다. (...) 죽은 사람들이 하나씩 옮겨져 구덩이에 묻혔다. (...) “나, 살아졌수다(살아 있어).”⁹⁷⁾ / 사건통의 의서 지서장은 성격이 불같이 급해서 사형 집행을 할 때도 ‘빨리 빨리 하라!’고 호통쳤기 까닭에 별명이 ‘빨리빨리 지서장’이었다.⁹⁸⁾

김석규 씨가 연락병으로 활약하던 초기 남로당의 지하 루트는 저도에 깔려 있었다. (...) 문서를 전달할 때는 암호를 썼다. (...) 그런데 4·3사건 전 해인 1947년,

96) 『원성늪았던 서북 청년단』, 위의 책, 95~96쪽.

97) 『‘빨갱이’ 오명 속에 숨죽여 살아온 40년』, 위의 책, 112쪽.

98) 『굴 입구에 불질러 질식사』, 위의 책, 100~101쪽.

이런 연락 도중 남원읍의 공천포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
본서로 넘겨져서 3일, 다시 조천 지서로 넘겨져서 5일 동안 쇠뿔매를 맞기도 하고
40일 동안 구류를 살았다.⁹⁹⁾

「나빅로의 환생」 중 위 인용문에서는 서북청년단이었던 배영길이 국민학교의
등산편 도난을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사들을 연행해 사형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다. 사실서사에서는 “정 교사는 차아무개라는 서북
청년이 겁탈”했다고만 서술되어 있는데, 소설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당시 상황을
상상력을 통해 확장하여 극화한다. 「한라구절초」 중 위의 인용문에서는 주인공의
과거회상에서 총에 맞고도 살아난 여인과 그 여인을 만났던 여스님의 시선으로
“확인 사살을 할 때 쓴 세 번째 총알을 맞고”도 살아났던 내용의 사실서사가 서
술되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그 내용이 확장되어 있다. 또한 「바람의 늪」 중
위의 인용문에서는 남로당으로 활동하다가 경찰에 잡혀 고문당했다는 사실서사
를 작가가 주인공의 과거회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확장하여 서술한
다. 이를 통하여 주인공이 처한 고통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과거회상에서 확장되어 서술된 사실서사는 가변초점화되어, 기본서
사에서 초점화된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 사실서사의 내용을 서술한다. 즉, 과거회
상에서 확장된 사건은 기본서사의 인물과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에 초점
화되어 사건이 서술되면서 기본서사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의 의식과 시선을 보
여준다. 그리고 확장하여 서술한 사실서사는 『한라의 통곡소리』의 증언 내용보다
당시 사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그 사건을 당한 인물의 고통과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세 서술방식의 각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위 세 서술방식에서는 여러 등장인물이 사실서사를 증언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독립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세 서술방식을 통해 확보하려고 한 다성성의 서술전략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
다.

소설에 있어 다성성은 단순히 작가가 인물과 동등한 층위에서 목소리를 내는

99) 「양쪽에 피해입은 ‘면당 위생병」, 위의 책, 173~174쪽.

것 혹은 작가의 형상으로서의 인물을 내세워 대신 발화시키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가능케 하는 특별한 창작 방법이다. 다성적 소설은 인물들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인식과 이념의 병존이 그 조건인 바,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조성된 공간과 형식이 요구된다.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소설 속에서 특별히 조성된 공간과 형식인, 독립된 대화나 회상의 공간에서 인물들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인식과 이념이 병존되는데 하는 필수요소가 된다. 그래서 소설 속에 사실서사가 배열됨으로써 소설에서는 “병합되지 않은 목소리들”의 “다수성”¹⁰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서술방법에 의해 소설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게 되어 소설의 다성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결국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사실서사를 사용함으로써 등장인물 모두가 “의식의 복수성”¹⁰¹⁾을 유지하면서도 그 서술에 서술자의 의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서술방식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서사를 옮겨오는 서술방식은 작가가 소설에서 사실서사를 독백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으려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사실서사를 전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각 인물의 경험과 의식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인공과 사실서사를 전하는 목소리들 간의 진정한 대화적 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성성은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로도 작용한다. 사실서사는 다성성을 확보하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보여줄 수 있다. 그로 인해 주인공들은 사실서사에 귀를 기울이는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소설은 독자와도 4·3의 비극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4·3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한라의 통곡소리』의 증언이 소설에서 그대로 살아나 증언자의 목소리가 손상되지 않은 채 대화성을 가지고 소설로 옮겨져 필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100) 게리 슐 모순·캐럴 에머슨, 오문석 외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413쪽.

101) 위의 책, 417쪽.

3. 수용된 사실서사의 강조점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용되어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사회·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 살피려 한다. 이하에서 수용된 사실서사를 정리하고 그 사실서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그 사실서사가 이 소설 속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고찰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따른 사회·역사적 의미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는 46편의 증언으로 되어 있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는 그 중 21개의 증언¹⁰²⁾을 수용하고 있다.¹⁰³⁾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용된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를 정리하면 <표 13>와 같다.

<표 13>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용된 사실서사

『한라의 통곡소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증언 번호	제목	「나뽀로의 환생」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보춘화 한 뿌리」	「한라구 절초」	「바람의 늪」
5	선흘리 사람들도 몰사	○				○
7	113명 사망자 ... 기록-동북리				○	
11	북촌리 집단 학살			○		
13	제주시 동부 8리의 ‘토벌’		○	○		
14	살육장이 지금은 관광지로				○	
16	어디다 하소연을 하라			○		
20	원성 높았던 서북 청년단	○				
21	친동생 죽이려 길안내	○		○		
22	굴 입구에 불질러 질식사				○	
26	‘빨갱이’ 오명 속에 ... 40년			○	○	
28	‘인민 유격대 활동 보고서’		○			
29	‘걸고 보자 현용선’의 체험	○		○		
32	왜경 옷입고 군정 보조관	○			○	

102) 하나의 증언에서 각각 다른 내용이 소설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각기 수용되기도 했으므로 실제 수용된 사실서사는 더 많다.

103) [증언-「하얀 달빛」]은 오성찬의 유년시절의 4·3체험으로, 「나뽀로의 환생」,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실서사로 사용하였다. 오성찬은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초기 4·3소설인 「하얀 달빛」에서 다루었으며, 같은 내용이 이 소설집에서도 사용된 것이다.

34	양쪽에 피해입은 '면당 위생병'				○	○
39	'도민은 전부가 피해자'		○			○
40	4·19 후 활발했던 규명 운동			○		
42	조몽구는 비둘기파		○			
43	조몽구와의 악연		○			
44	두 살박이 애도 죽여		○			
45	조몽구의 후일담		○			
46	3·1사건 당시 남로당 대정책		○			
		5	8	7	6	3

다음, 『한라의 통곡소리』의 사실서사 중에서 일부 사실서사를 선택하여 『한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소설에서 수용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간 마을의 학살 사건의 증언 중 북촌마을의 사건[증언 11]을 선택하여 수용하였는데 이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위 소설에는 4중산간 마을에서 일어난 씨멸족된 가문이야기로서 [증언 7]¹⁰⁴⁾을 수용하였는데, 4·3으로 인해 씨멸족된 가문도 있음을 나타내주기 위함이다. 둘째, 일반 부녀자의 증언인 [증언 16], [증언 26]을 선택하고, 부녀자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증언 17]처럼 입산자였던 여성의 증언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4·3으로 인해 공산주의자가 아닌 일반 부녀자들도 고초를 당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셋째, 어린 시절에 4·3을 목격한 [증언 13]을 선택하였는데, 오성찬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도 이 소설집에서 반복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4·3을 경험한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넷째, 토벌대에 의한 학살 사건을 증언한 [증언 14], [증언 20], [증언 22] 등을 선택하였다. [증언 27], [증언 30], [증언 31]과 같이 무장대에 의해 죽음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4·3 동안에 토벌대가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섯째, 친일 경찰이었다가 미군정 하에서 다시 경찰이 된 사연[증언 32], 진향한 공산주의자의 사연[증언 34], 지로인이었던 사냥꾼의 사연[증언 21]이나 지로인을 했던 경찰의 사연[증언 29]처럼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선택하였다. 4·3을 겪은 사람들이 어떠한 다양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섯째, 4·3주동자인 이

104) 『한라의 통곡소리』에는 여러 증언에서 씨멸족된 가문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으나, 이 소설의 회상에서 구좌읍 중산간 마을이라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증언 7]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덕구와 관련된 증언인 [증언 5], [증언 28], [증언 39]이 모두 선택하였다. 4·3주동자 중 한 명인 조몽구에 대한 증언인 [증언 42]에서 [증언 46]까지의 5편의 증언도 모두 선택하였다. 이는 4·3 주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일곱째, 연좌제에 관한 두 개의 증언 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증언 41]을 배제하고 [증언 40]을 선택하였다. 이는 4·3으로 인해 그 희생자의 가족이 겪은 연좌제의 부당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결국 이 소설들은 이와 같은 여러 사실서사를 수용함으로써 4·3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과 그들에 대한 진압만으로 구성된 사건이 아니라 그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비극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선택되어 수용된 사실서사가 이 소설 속에서 가지는 사회·역사적 의미와 그 강조점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사실서사가 이 소설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사실서사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밝혀보도록 한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5편의 소설에는 주제를 형성하기 위한 중심적인 사실서사의 수용이 있고, 그 중심적인 사실서사를 뒷받침하는 보충적인 사실서사의 수용이 있다. 그래서 중심적인 사실서사는 각 소설 별로 독자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반면에 보충적인 사실서사는 각 소설에서 중첩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이에 전자의 사실서사와 후자의 사실서사는 어떠한 증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 사실서사들이 소설 내에서 어떤 사회·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의한다.

먼저, 사실서사가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 내에 사실서사로 수용되면서 소설의 중심사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사실서사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소설의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데, 모두 과거회상으로 확장되어 서술된다. 이러한 사실서사는 해당 소설에만 고유하게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보충적인 사실서사가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 중첩되어 사용되는 것과 차별화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서사는 모두 해당 소설에서 주인공이 미각성에서 각성으로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배치된다. 각 소설에서 사용된 중심적인 사실서사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첫째,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용된 [증언 45]과 「나비로의 환

생』에서 사용된 [증언 20]은 주인공의 각성을 촉구하는 린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 사용된 위 증언을 먼저 살펴본다. 『한라의 통곡소리』의 증언으로 서술된 조몽구¹⁰⁵⁾는 위 소설에서는 주명구라는 등장인물로 조명되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위 주명구는 김달삼, 이덕구와 함께 4·3의 주동했지만 무력투쟁에 회의적이었고 그로 인해 과격파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는 6·25가 끝난 뒤 제주로 돌아오지만 무장대에게 피해를 입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린치를 당한다. 위 소설은 이 린치 사건에 관한 사실서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여간, 영장밭디 갔당 오는 사름덜은 술 먹어지민 우리 집 앞을 지나오면서 담을 허물던가 문짝을 부시던가 하는 거라마썸. 고쳐도 부서불고, 고쳐도 부서불고 허니까 나중엔 문짝 부서져도 고칠 생각을 안 허고 살았수게…”

야, 이 새끼. 폭도 새끼. 길을 건다가도 목을 막아서서 행패를 부리는 젊은이들과 만났다. 우리 아버지 살려내어 이놈아! 이 폭도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어명 아방이 죽었어 이놈아! 마흔이 넘는 산사람에 피해 입은 사람 가족들이 몇 해 동안은 너나없이 그를 살인귀쫂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그때는 어디에도 그같은 사람을 보호해줄 법은 없었다.(「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303쪽)

그는 대뜸 섬돌 위로 올라서 명구씨의 떡살을 잡았다. 명구씨는 떡살 잡은 젊은이의 팔목을 되잡긴 했으나 장기복역을 하며 굶은 몸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한번 끌어내려 매대기치자 그는 맥없이 고꾸라졌다.(「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304쪽)

위 소설에서 수용된 사실서사로서의 린치 사건에 대하여 주명구는 그 폭력에

105) 조몽구(1908~1973)는 1930년대 일본 오사카에서 조선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회주의운동을 했던 인물로 해방 이후에는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1946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 김유환, 문도배, 오대진 등과 활동을 주도했고, 1946년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48년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김달삼, 이덕구 등에 의해 당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이후, 그는 제주를 떠나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다. 그는 한국전쟁 후 부산에서 은신하다가 1951년 9월에 체포되어 8년간 옥고를 치른 뒤 제주로 다시 돌아왔고, 1973년 죽었다.(김찬홍,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379~380쪽 참조)

대해 대항하지도 않고, 그 린치를 피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선택도 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후처로부터 제주를 떠자는 권유를 받지만 이를 거절한다. 그는 고향 제주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예순일곱에 병사한다. 주명구는 한때 4·3을 주도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여 폭력에 노출되는 인물로 타자화되었다.

다음, 「나비로의 환생」에 사용된 [증언 20]을 살펴본다. 위 증언은 이 소설에서는 작가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을 통하여 표현된다. 위 증언은 4·3 당시 고담리국민학교의 등사관 분실 사건을 빌미로 무고한 교사들을 처형된 사건에 대해, 당시 교사였던 홍아무개가 증언한 내용이다.¹⁰⁶⁾ 이 소설에서는 작가는 사건의 중심인물을 홍아무개가 아닌, 서북청년단 배영길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새로 설정하여 전개한다. 배영길은 서북청년단으로 무고한 교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위 소설은 더 나아가 서북청년단의 횡포를 고발하는 사실서사를 토대로 서북청년단의 이후 마을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서사로 확장시켰다. 배영길은 6·25 이후 제주로 돌아와 성폭행했던 여자의 집에 정착하고, 그에게 당했던 마을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린치를 당한다.¹⁰⁷⁾ 역시 그도 린치에 순응한다. 배영길은 4·3의 가해자였지만, 폭력에 노출되는 인물로 타자화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북청년단이었던 배영길과 4·3주동자였던 주명구는 4·3이라는 사건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호대척점이 있는 인물들이지만, 모두 4·3 이후에는 군중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배영길과 주명구는 마을 사람으로부터 갈등과 폭력을 야기했던 존재로 낙인찍히며, 제주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로 전락한다. 공동체는 4·3에 대한 책임을 배영길 또는 주명구에게 씌워서 그들에게 사적(私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배영길과 주명구는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이들은 폭력에 맞서지도 않고, 거부하

106) 이 부분은 「원성 높았던 서북청년단」(93~94쪽)을 수용한 것이다.

107) 『한라의 통곡소리』에는 토벌대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드러내는 증언은 있으나 토벌대의 린치에 대한 증언은 [증언 25]에서 짧게 언급된 내용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북 청년으로 내려온 후 마을 여자를 부인으로 얻어 정착한 방 아무개 씨도 있다. 그는 4·19 후 등 정치적 격변기에 4·3의 피해를 입은 마을의 가족들로부터 협박과 린치를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 않았다. 특히 「나비로의 환생」에서 주인공인 ‘나’가 배영길의 투서 사건을 접수하고 이미 고인이 된 배영길 대신 그의 아내를 소환했을 때, 그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들어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내는 자기 남편 배영길과 닮은 데가 많았다. 생김새도 그렇거니와 고집 센 일면과 과단성도 그랬다. (...) 부흥회의 전도사는 또 그랬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원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며,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모두가 엄청난 말들이었지만 그녀에게 딱 막혔던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트여가는 걸 느꼈다.(「나비로의 환생」, 105쪽)

인용문에서 보는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사실서사에는 없는 내용이다. 위 내용에서 배영길의 아내는 배영길을 사울을 빗대고 있다. 사울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희생양이다. 희생양이란 유대 민족의 속죄 의식 때 사용된 제의적 희생물을 말하는데, 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짐승에게 떠넘기는 것을 상징한다.¹⁰⁸⁾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제의’는 모방 갈등으로 인해 축적된 폭력의 씨앗에 의해 집단의 위기를 가져올 때, 그 폭력의 씨앗을 특정 희생양으로 대체함으로써 집단의 위기를 정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원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었다.¹⁰⁹⁾ 결국 배영길은 희생양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희생양으로서 폭력에 순응하여 마을 사람들의 분노 표출의 대상이 된다. 그로써 마을 사람들은 4:3의 공포와 슬픔으로부터 일정부분 정화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주명구도 이러한 희생양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 희생양은 폭력을 당하더라도 보복이나 복수할 능력이 없었다. 이들을 희생양을 전락시킨 것은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다. 국가가 먼저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나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였다면 마을 사람들이 분노를

108) 그리스어로 속죄양을 의미하는 파르마코스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 일어나는 외세 침입, 전염병, 내부 불안과 같은 폴리스의 위기 때 저항의 원흉으로 몰아 처형당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믿음사, 1998. 202쪽

109) Rene Girard, 앞의 책, 30쪽.

표출할 희생양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폭력을 받은 사람들은 공적 기관에 호소하거나 보호를 받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중심적인 사실서사를 수용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은 사라지고 희생양만 남겨지게 된 사회적 현상을 부각시켜, 4·3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국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보춘화 한 뿌리」에서 중심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 것은 [증언 16, 26], [증언 40]이다. 이 증언은 연좌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 증언은 일반 부녀자가 겪은 4·3의 고통과, 연좌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소설에서는 위 증언들을 묶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그로 인한 어머니의 힘겨웠던 삶, 그리고 연좌제로 고통받은 ‘나’와 가족의 삶을 드러낸다. 이 소설에서 이러한 증언을 수용하되 소설적 상상력이 가미되어 확장된 서술들은 아래와 같다.

“이제까지 너희들한테는 숨겨서 넘어갈까 했다만... 거 너의 아버지 무덤이 사실은 허묘(墟墓)다... 아버지는 그날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거여...”

“그러니 아버지가 폭도였든 말이우짜?”

형의 목청이 버럭 높아졌다.

“아니여. 그런 말이 아니여. 느 아방이 폭도가 아니란 건 나가 잘 안다. 나만큼 느 아방을 잘 알 사름이 이 세상에 이시냐?”

어머니는 납득을 시키려 했으나 그게 잘 안 되는지 다급해져 있었다. 목소리도 컸다.

“게민 무사 바루지를 못합니까? 아버지가 폭도가 아닌디 무사 바루지를 못합니까?”

“겔세, 무사 안 바루쟁 허느니? 해도 안 되는 걸 어떠느니? 억울한 사름이 어디 우리뿐이냐?”

형도 어머니도 꺼질 듯 한숨을 쉬었다.(「보춘화 한 뿌리」, 153쪽)

‘나’는 얼굴의 윤곽조차 모른 아버지가 토벌대에게 죽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해 받은 수모, 그로 인해 받은 피해가 커켜로 쌓여 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사슬은 나뿐만 아니라 내형, 나의 누이 들, 그리고 사촌, 육촌들에게까지도 두

루몽수리로 옮겨져 있다.”(152쪽) 연좌제의 그물망은 억울하게도 일가친척까지 옥죄었던 것이다.

위 소설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서사를 수용하여 4·3 희생자의 가족인 주인공 ‘나’를 중심으로 겪은 연좌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연좌제란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으로 “빨갱이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억압적 사찰, 사회적 추방과 사회적 박해, 빈곤과 심리적, 정신적 충격, 가족 해체와 가정 파괴, 자살 등 가족사적 비극으로 이어”¹¹⁰⁾졌음은 당연하다. 4·3 이후 폭도의 가족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연좌제라는 명목으로 공무원도 회사원도 될 수 없었다. 이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토벌대에 의해 죽은 희생자의 가족들인데, 이 사회에서 유독 토벌대에 의해 죽은 희생자만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여 연좌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사실서사를 통해 이러한 연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4·3 이후로도 4·3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라구절초』에서 중심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 것은 [증언 32-김대진의 죽음]와 [증언 14, 22, 26]이다. 전자의 증언은 무장대였던 김대진이 보리밭에서 낮잠을 자다가 사람들의 신고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다룬다. 소설에서는 그 내용을 확장하여 주인공의 과거회상 속 인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후자의 증언은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했다가 살아난 여인이 도움을 청한 여스님의 신고로, 다시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다루어진다. 이 소설은 여스님이 도움을 요청한 여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토벌대를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보여준다.

넷째, 『바람의 늪』에서 중심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 것은 [증언 34], [증언 34, 39]이다. [증언 34], [증언 34, 39]는 주인공 ‘나’의 과거회상으로 다루어진다. 이 증언들은 해방 당시 남로당 활동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인물이 전향하게 된 과정과 자신의 자백으로 동지들이 죽었던 내용을 다룬다. 이 소설에서는 해방 당시 미군정에 대한 반발로 “애초부터 코쟁이들이 받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169쪽)며 남로당 연락책으로 활동했으나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가 결국 전향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면서 위 사실서사가 수용되었다. 이로써 이 소설에서 그 사실서사의 수용이 해방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공산주의자라는 사상이 아닌, 순수

110) 조희연,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63~64쪽.

한 애국심으로 남로당 활동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현실을 드러내준다.

위와 같이 작가는 『한라의 통곡소리』에서 증언된 내용을 각 소설에서 중심적 사실서사로 수용하면서 거기에 상상을 덧입혀 그 의미를 심화시켰다.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나뽤로의 환생」, 「한라구절초」는 린치사건 또는 연좌제에 관한 각 증언을 중심적인 사실서사로 수용하여 4·3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이 현재에도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또한 「한라구절초」와 「바람의 늪」에서는 토벌대의 만행에 관한 증언 또는 남로당 활동 후 전향한 증언을 중심적인 사실서사로 수용하여 해방 당시의 상황, 토벌대에 대한 제주도민의 두려움 또는 전향과정 등을 살아 있는 인간의 삶으로 보여주었다.

다음,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주인공이 취재(혹은 회상)하면서 4·3의 비극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충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충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 것은 대부분 대화나 과거회상의 방식으로 요약되어 서술된다. 그리고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 서로 중복되어 배치되고 있다.¹¹¹⁾ 보충적으로 수용된 사실서사는 4·3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증언¹¹²⁾도 있지만 토벌대의 만행을 보여주는 증언이 더 많다. 예컨대, 토벌대에게 길을 안내하다가 토벌대에게 사살된 친동생을 목격한 증언[증언 21], 13세에 아버지를 잃은 남자의 증언[증언 13], 북촌 마을의 학살에 대한 증언[증언

111) 「나뽤로의 환생」에서 [증언 29], [증언 21]은 「보춘화 한 뿌리」, [증언 5]는 「바람의 늪」에, [증언 32-친일 경찰 이야기], [증언 32-경찰의 암호문 해석 사건]은 「한라구절초」에 중복되며, [증언 「하얀 달빛」]은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 중복된다.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이미 언급된 [증언 「하얀 달빛」]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증언 13]이 「보춘화 한 뿌리」에서 중복된다. 「보춘화 한 뿌리」에서는 이미 언급된 [증언 29], [증언 21], [증언 13]을 제외하고, [증언 29, 21]은 『바람의 늪』에서도 사용되었고, [증언 11]의 북촌마을의 비극은 「한라구절초」의 [증언 7]에서 말하는 증산간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과 유사한 증언으로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한라구절초」에서는 이미 언급된 [증언 32-친일 경찰 이야기], [증언 32-경찰의 암호문 해석 사건], [증언 7]을 제외하고, [증언 32-이덕구 아들의 죽음]이나, [증언 34-이덕구의 죽음 목격]은 「바람의 늪」과 중복된다. 「바람의 늪」은 이미 언급된 [증언 5], [증언 34-이덕구의 죽음 목격] 외에는 삽화적으로 사용된 사실서사가 없다.

112) 4·3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언은 공산당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술래 살리기 놀이로 위장해 휴업의 주모자 역할을 시킴[증언 5], 지로인으로 공비토벌에 앞장섰던 경찰이 5·16 직후까지도 수류탄을 지니고 살았다는 사연[증언 29], 일본 순사였던 경찰이 친일파 면장을 호송하다 놓친 사건[증언 32-친일 경찰 이야기], 경찰이 남로당 도본부를 안내하는 암호문 해석했으나 경찰 내에서 정보가 새서 놓친 사건[증언 32-경찰의 암호문 해석 사건], 관덕정에 이덕구의 시신이 전시되어 있었던 사건[증언 34-이덕구의 죽음 목격] 등이다.

11], 씨멸족된 어느 증손집 사정에 대한 증언[증언 7], 토벌비를 벌기 위해 무자비하게 죽은 무장대의 신체를 절단했다는 증언[증언 29, 21], 돌담을 향해 도망가다 죽은 일곱 살 난 이덕구의 아들에 대한 증언[증언 32-이덕구 아들의 죽음], 조몽구의 가족이 몰살된 사연에 대한 증언[증언 44] 등이 그러하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에서는 위 증언들을 수용하여 각 소설에서 중첩적으로 그 사실서사가 서술되고 있다. 이 소설들에서는 이러한 보충적인 사실서사를 중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토벌대의 만행을 여러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토벌대의 만행을 더욱 깊게 각인시키고, 그들의 만행을 들추어 국가폭력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¹¹³⁾ 또한 이러한 사실서사의 중첩적 수용은 토벌대들이 행한 만행의 대상이었던 희생자들이 실상은 공산주의와 관련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4·3의 기억을 통해 당시 상황과 토벌대의 만행을 드러냄으로써 반공 국가의 공식 담론에 맞서는 대항 담론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앞에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수용된 사실서사를 정리하고 각 사회·역사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중심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 증언은 남겨진 자들과 진행형의 폭력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고, 보충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 증언은 국가폭력에 대한 대항기억을 강조하고 있다. 오성찬은 이러한 사실서사의 수용으로 4·3의 희생자들이 여전히 타자화되어 국가에 의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 4·3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1980년대 후반까지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4·3희생자들이 모두 공산주의자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용된 사실서사는 4·3의 올바른 평가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113) 이 소설집에서는 무장대에 의한 피해의 내용을 크게 보여주지 않는다. 이 소설집 이전에 발표되었던 「단추와 허리띠」에서 무장대에 의한 민중의 피해를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음과 비교할 때, 이 소설집은 무장대에 대한 피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IV. 상상서사의 특징과 의미

위에서 살펴 본 사실서사만으로는 인과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서사를 개연성 있는 서사로 바꾸기 위해서 상상서사가 필요하다. 상상서사는 사실서사를 조화롭게 배열하고 하나의 통합체로 묶는 역할을 한다. 상상서사는 통합체적 질서를 설정하고 그 안에 사실서사를 옮겨옴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증언소설에서의 상상서사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각기 다른 이질적인 사실서사를 통합하여 각각의 사건들을 시간 질서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해준다. 이런 통합적 질서 형성을 위하여 작가는 적합한 주인공을 설정하고, 소설적 현재의 시간을 선택하며, 소설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상상서사를 만들어낸다.

1. 지식인 주인공의 윤리성

증언소설은 다양한 사실서사의 목소리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 인물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실서사를 하나의 상상서사로 통합하여 증언소설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인공은 상상서사에서 중요한 중심축이 된다. 이 주인공의 특징에 따라 상상서사의 흐름이 좌우된다. 그 주인공의 특징 중 특히 주인공의 시점에 따라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가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1인칭 시점의 ‘나’는 서술자와 작가의 근친성이 짙어지는 경향이 있고, 3인칭 시점의 주인공은 1인칭에 비해 서술자와 작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각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같은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비로의 환생」, 「보춘화 한 뿌리」는 1인칭인 ‘나’가 주인공이고, 「한라구절초」,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는 각 3인칭인 양충식이 주인공이며, 「바람의 늪」도 역시 3인칭인 순민이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이하에서 다섯 편의 증언소설의 시점에 따라 주인공의 현실

을 인식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위 각 소설에서 보이는 주인공들의 특징을 검토한다.

먼저, 1인칭 시점의 소설을 살펴보자.

첫째, 「나비로의 환생」에서 검사인 ‘나’는 제주로 발령을 받으면서 제주살이를 한다. ‘나’는 투서에 의해 4·3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나’는 한해룡을 통해 4·3의 비극적 사건들을 듣고서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는 “술이 거나한 중에도” “산발한 머리, 피 묻은 옷, 그을린 얼굴로 지서 마당으로 들어서던 말 없는 군중들, 그것들이 이제도 어두운 술집 마당으로 들어설 것만 같”(71쪽)은 착각을 느낀다. ‘나’는 한해룡을 찾아가 거듭 4·3의 증언들을 들으며 제주의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4·3 비극에 눈뜨게 된다. 그리고 ‘나’는 방관자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엘리트로서의 자신의 삶을 아래와 같이 반성한다.

“내 나뉠의 견해를 밝히면 이제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수용을 하고 정확한 기록들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뭘니까. 거울 아니에요? 잘했건 못했건 그걸 밝히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나비로의 환생」, 82쪽)

그리고 ‘나’는 스스로도 “최소한 이 섬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110쪽)라고 다짐하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나’는 배영길의 투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4·3을 알게 되고, 엘리트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인물이다.

둘째, 「보춘화 한 뿌리」에서 ‘나’는 아버지가 토벌대에게 죽었다는 이유로 수모를 받아 오고, 그런 피해가 커져로 쌓여 막연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서북청년단이었던 장군을 만난다. “아버지의 죽음을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나는 늘 꼬몽하게 그를 지목해놓고 있었”(151쪽)지만, 장군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많은 증언자를 만나며 4·3의 비극을 접했지만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한계를 느낀다. ‘나’는 아버지의 억울함이나 피해자들의 서러움을 풀어 줄 수도, 복수해 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는 꿈에서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의 목에 가나 여인의 장식 목걸이처럼 늘어뜨리고 있는 건 아버지의 머리였다. 피가 다 빠져서 창백해진 아버지의 머리는 그 자신의 장발에 의해서 어머니의 목에 매달려 있었다. (…)

매달려 있던 머리가 눈을 번쩍 뜬 건 그 때였다. 그 튀어나온 눈알이 커져서 내게 갑자기 다가들었다.

- 원수를 갚는 것도 좋지만 방법이 그게 아니여!

피묻은 입술을 열고 그 대가리가 말했다.

- 방법이 그게 아니여,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산골짜기를 울리고 우렁우렁 사라져갔다. (『보춘화 한 뿌리』, 156쪽)

아버지는 4·3에 대한 대응을 ‘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말한다. ‘나’ 역시 복수는커녕 서북청년단의 토벌 활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장군의 왜곡된 기억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제주로 내려오게 된다. ‘나’는 4·3의 비극에 대응할 다른 방법을 깨닫지 못하여 “이 시대에 깨어질 것은 무엇이고 남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163쪽)를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나’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복수심으로 4·3문제를 추적했으나, 꿈에서 만난 아버지의 질책과 현실에서 접한 장군, 과거의 회상으로 4·3에 대한 새로운 생각 등을 통해 4·3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인물이다.

다음, 3인칭 시점의 소설을 살펴본다.

첫째,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의 양충식은 향토사학자인데, 주명구의 조카를 만난 경험으로 인해 4·3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양충식은 지난 역사의 비석을 찾는 것보다 4·3의 기억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소형 녹음기를 구매하고, 4·3증언자들을 찾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양충식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여태 묻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285쪽)라며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4·3의 역사에 대해 탄식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숨겨왔던 공식역사와 공적기록에 불신을 드러낸다. 이

와 같이 양충식은 주명구의 조카가 드러낸 세상에 대한 비난을 듣고 4·3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한 후 그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인물이다.

둘째, 「바람의 늪」의 순민은 4·3 때 남로당의 비밀연락책으로 활동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순민은 위 활동으로 인해 체포되었고 고문 과정에서 결국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향했다. 순민은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전향을 국익의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순민은 현재에도 자신을 취조했던 형사에 의해 지속적인 시달림을 받으며 산다. 또한 순민은 “어느제나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다. 저쪽에 가 서면 ‘넌 아니’라고 하고, 이쪽에 붙으려고 해도 ‘넌 저쪽’이라고”(186쪽) 하는 따가운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자신의 배신으로 죽어간 동지들에 대한 죄책감도 갖고 있다. 그는 데모하는 장면과 데모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강압적 진압방법을 목격한다.

그때도 이때도 데모수법은 비슷했다. 진압방법도 비슷했다. 다만 장비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기마용 말 대신에 장갑차가 생기고, 말으면 눈이 신 최루탄이 생겼다.(「바람의 늪」, 186쪽)

순민은 위 목격을 기화로 4·3 당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190쪽)고 외쳤던 구호들을 떠올리며,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그는 사회문제에 관심 없이 부의 축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순민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통해 자기반성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순민은 남로당 활동을 하다 전향하여 소시민으로 살아왔지만,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전향을 반성하게 되는 인물이다.

셋째, 「한라구절초」의 양충식은 기자로, 동서지간인 덕배 아방의 교통사고를 수습하러 제주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양충식은 이 과정에서 신촌리의 동수동, 보리드르, 어느 마을의 작은 지서 건물, 비오는 돌담밭 등 여러 공간을 접하면서 남겨진 4·3의 흔적들을 보며 4·3 기억을 떠올린다.

끝내 사람들이 안 나오자 무지한 토벌대들은 굴 입구에 생솔가지를 지피고 불을 질렀지.

- 두더지 잡는 식이야.

그리고 그날 한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아마 서른 두 사람이었다지. 사람이 두더지이던 시절, 그런 계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개명천지 지금은-.(『한라구절초』, 258쪽)

양춘식은 사람을 두더지 취급하며 무책임했던 4·3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가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동서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또한 그는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 보상금과 보험금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4·3과 그로 인한 죽음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들이 그때 바라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들이 소망하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211쪽)

이렇게 양춘식은 현재와 4·3이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4·3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여전히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뜨게 된다. 이와 같이 양춘식은 교통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4·3을 기억하고 4·3의 비극이 현재에도 끝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인물이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의 주인공에 대하여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았다. 위 특징들을 검토한 결과, 위 소설집 수록된 3인칭 시점의 소설도 주인공이 다른 누군가를 관찰하는 바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과 주인공이 겪는 사건을 주인공의 시선과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결국 다섯 편의 중편소설은 모두 시점과 상관없이 주인공에 “내적 초점화”¹¹⁴⁾되어 있는 것이다. 초점화된 인물은 서술자가 하나의 특정 관점과 전망을

114) 외적 초점화나 내적 초점화나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는 주어진 분절을 1인칭으로 고쳐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분절은 내적으로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외적으로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다.(리몬케넌, 앞의 책, 136쪽)

부여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소설집에서는 3인칭 시점의 주인공이 1인칭 시점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집은 모두 주인공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소설집의 주인공들은 모두 하나의 관점과 전망을 부여받았다. 작가가 시점과 상관없이 주인공을 내적 초점화하여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주인공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중도적”¹¹⁵⁾ 인물이다. 이 중도적 인물은 “사회적 대립이나 역사적 경향을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대립이나 경향을 서서히, 그리고 중간적 입장에서 폭넓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민중적 삶의 일상성을 그대로 보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¹¹⁶⁾ 중도적 인물은 역사적 총체성을 폭넓게 형상화하는데 더 적절한 유형이 되기도 한다. 이 소설집과 같은 증언소설은 다양한 증언을 확대시키면서 구체적 재현을 피함과 동시에 객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소설들의 주인공들도 중립적인 시각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체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각 소설의 주인공은 4·3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나 주장을 펼쳐온 것이 아니라 4·3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4·3의 기억을 끄집어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온 자들로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은 4·3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주인공들이 가지는 중도성은 가치중립적인 태도인데, 또한 작가의 시선이 머무르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소설들에서 이런 중도적 주인공을 설정하게 된 것은 오성찬이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한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¹¹⁷⁾ 오성찬은 기자로서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글쓰기를 해 왔다. 이러한 작가의 서술경험이 소설 속에서도 중도적 인물의 설정으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지식인이다. 「나 비로의 환생」에서는 검사, 「보춘화 한 뿌리」와 「한라구절초」에서는 각 기자, 「어

115) Georg Lukács, 이영욱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99, 38쪽.

116) 반성완, 「루카치의 역사소설이론과 우리의 역사소설」, 『외국문학』, 열음사, 1984, 53쪽.

117) 오성찬은 1969년 11월부터 제주신문사 기자로 활동함, 1979년에는 제남신문사에서 편집부장역 임함, 1982년 『제주도지』 책임편집을 함.

는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향토 사학자이다. 「바람의 늪」에서는 현재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지만, 4·3 당시 남로당 연락책으로 활동한 공산주의자였다. 이는 “증언소설이 역사와 문학,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학”¹¹⁸⁾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증언소설에서는 “당대적 삶의 모순을 보여주고 그 극복을 모색”하고 “사회와 역사에서 소외된 군상들의 삶을 찾아 복원”¹¹⁹⁾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언소설의 사회적 역할이 이 소설집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래서 위 각 소설의 주인공들도 각 지식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지식인으로서의 주인공은 4·3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할 책무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주인공들은 지득하거나 추억하게 된 4·3의 여러 정보를 통해 국가적 폭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국가, 여전히 그 폭력을 되풀이하는 국가, 4·3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주의 상황 등을 통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

셋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각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책무감을 가진 인물이다. 주인공이 4·3을 의식의 중심에 끌어오기까지 벌어진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해자 개인의 체험적 사실을 사회적 사실로 끌어올려 집합의 기억으로 공유하겠다는 오성찬의 책무감에서 나온 것이다. 오성찬은 이러한 책무를 위 소설들의 주인공을 통하여 대리하도록 한다. 그래서 오성찬이 설정한 각 소설의 주인공들은,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자면서 소설적 진실을 담아 독자에게 전달하는 화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주인공들이 4·3의 비극적 사연을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책무감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각 소설의 주인공은 지식인의 윤리성을 보여준다. 윤리적 목표는 “정의로운 제도들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좋은 삶’의 목표”¹²⁰⁾라 할 수 있다. 주인공들은 모두 타자의 목소리-그것이 자신의 회상으로 삼입되었을지라도-에 귀를 기울이고 타자로 상정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주체성을 가지고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로써 작가는 시대와 역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게 되고, 주인공을 통해 “좋은 삶”을 추

118) 정찬영, 앞의 책, 41쪽.

119) 위의 책, 41쪽.

120) Paul Ricoeur,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232쪽.

구하는 윤리성을 확보하게 된다. 위 소설들의 각 주인공은 관찰자로서의 다양한 사실서사를 하나로 묶어내는 전달자이면서, 스스로 주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인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은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4·3과 현재의 삶을 동시에 들여다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인공들은 4·3의 비극 속에서 ‘나는 어떤 선을 실천해야하는가?’라는 윤리적인 자각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오성찬의 페르소나로서, 이러한 주인공들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윤리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의 주인공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과의 차이 없이 내적 초점화된 인물이고, 그로 인해 주인공이 가지는 특징이 생겨난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모두 사실서사를 아우르기에 적합한 중도적 인물이자, 4·3의 비극을 통해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지식인이고, 작가적 책무성을 대리하는 인물이자,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좋은 삶”을 향한 윤리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2. 소설적 현재의 역사성

증언소설은 현재 또는 체험적 당대를 다루면서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주체의 사회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증언소설은 역사적 사건이 과거의 일회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연관성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열린 구조를 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증언소설은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며 전개된다.¹²¹⁾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도 현재의 상상서사와 과거의 회상서사가 서로 교차되어 전개된다. 위 소설들의 각 주인공은 허구적인 현재의 사건을 겪으면서 동시에 과거로서 사실서사의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소설적 ‘현재(1980년대 후반)’¹²²⁾와 회상의 과거는 연관성을 가

121) 정찬영, 앞의 책, 36쪽.

122)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가 간행된 시기가 1989년이며, 수록된 다섯 편의 중편 소설이 모두 1980년대 후반을 ‘현재’로 설정하여 쓰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현재라는 시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1980년대 후반을 의미하는 소설적 현재를 ‘현재(1980년대 후반)’로 표기하였다.

진 시간의 축이 된다. 과거 사건이 현재와의 관련성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선, 각 소설 속에서 설정된 현재가 제시하는 상상서사는 사실서사의 4·3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각 소설이 그러한 연결방식으로 인해 보여주고자 하는 4·3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해본다.

첫째, 「나비로의 환생」의 ‘나’는 1980년대에 아내가 『제주풍토록』 필사본 복사판을 접한 것을 계기로 『제주풍토록』을 읽고¹²³⁾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제주의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섬 사람들이 과거에 바쳐야 했던 전복과 각종 굴, 공부(貢賻)에 대해 이야기했다. 탐관오리의 횡포와 재임 기간 전복을 입에 대지 않았던 선관(善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가꾸던 소나 말이 폐사하면 먼 친척까지도 그걸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친척인 목자를 죽여서 부담을 모면해보려 한 옛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나비로의 환생」, 37쪽)

‘나’는 위 대화를 통해 제주에서 역사적으로 임금에 대한 진상을 핑계로 말단 관료들까지 행패가 자행되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나’는 4·3을 접한 후 이를 제주민란과 동일한 차원으로 바라보게 된다.

“제주민란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목적 성취 후에 영달보다는 회생을 각오했다는 데 특색이 있지요. 그러기에 난을 모의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번 일에는 누가 죽을 것이냐, 말하자면 제물이 결정됐지요. 그것은 아마도 섬이라는 폐쇄된 지세적 상황 탓이었겠지요. 제주 민란은 사실 너무 비장한 데가 있어요.”

그는 이야기를 마치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모의할 때 결의한 것처럼 주모자들은 난이 끝났을 때 죽나요?”

나의 질문은 결국 대드는 식이 되어버렸다.

“그렇지요. 관의 수탈에 대한 봉기인 임술민란이나 또 사이비 천주교도들의 횡

123) ‘나’는 『제주풍토록』에서 서른여섯 나이에 귀양와 사약 받고 자진한 충암 김정의 이야기 등을 읽었던 것이다.

포를 참지 못해 일어났던 성교란 때에도 장두들은 모두 잡혀 죽지요. 그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민중들이 호소하지만 언제나 민중들의 요구가 관철돼본 적은 없어요...”(「나비로의 환생」, 39쪽)

이 소설은 이러한 ‘나’의 깨달음을 서술하면서 4·3을 제주민란과 연결시키려 한다. 이 소설은 제주가 역사적으로 공간의 지리적 폐쇄성으로 정당한 민중의 외침조차 늘 짓밟혀 온 곳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소설은 중앙관리들의 횡포에 대해 반기들 들었던 장두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건을 4·3과 중첩시켜 제시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이 소설은 제주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함께, 제주에서 벌어진 민란과 봉기가 왜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의 주인공 양충식은 1987년 6월항쟁이 만들어낸 대통령 직선제를 기회 삼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오랜 독재 정권 하에서 국가가 저질러온 폭력과 억압을 비판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유선거에 의해 정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 그 취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요즘 조짐이 보이는데 야권이 분열되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은 정권의 상위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어느 정당의 아래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270쪽)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양충식의 믿음과는 다르게, 대통령 직선제에 관하여, 일반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고, 지식인들은 현 정권의 문제를 알면서도 모두들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야당의 발기대회를 준비하던 양충식은 어느 원로에게 고문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다. 이어 어느 원로의 모습은 오랜 시간 사회적 침묵으로 길들여진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적 침묵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현재(1980년대 후반)’에도 기존 질서에 대

한 저항에 두려워하며 제 목소리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양충식만이 꿈속에서 밤새 거대한 물체와 맞붙어 지겨운 싸움을 계속할 뿐이었다. 게다가 양충식이 목격한 것은 야권의 지도자인 두 김 씨의 권력다툼이다. 그리고 양충식의 평화로운 발기대회 전개 예상과는 달리 야당의 발기대회가 끝나자 계획에 없던 시위가 일어난다.

이른바 계획된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그 후 문제였다. 시위는 이 시기에 명분도 없고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머리와 어깨띠를 두른 일단의 젊은이들은 대회가 끝나자 시가로 진출하기 위해 입구에 몰려 있었다. (…)

물러가라 / 타도하자 / 다시하자!

빠라처럼 나부끼는 구호. 다시 팽파리 소리 북소리, 와아 진격하는 소리.

철통같이 서 있는 을지문덕 차림의 전투경찰들, 얼마나 무더울까. 이 더위에. 드디어 발악처럼 터지는 최루탄 소리. 와아, 흩어지던 군중들. 그 무수한 발길들, 그들에 섞여 눈물을 질질 흘리며 쫓기던 군중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러니까 폭넓은 지지를 못 얻는 것이야.(『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291~292쪽)

또한 양충식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야당 발기대회에서 벌어졌던 시위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혼란상황은 양충식이 취재한 4·3의 증언을 해준 유은방 노인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유은방은 “...삼일절 기념식이 끝났는데 야 이놈이 계획에도 없던 시위를 한다고 군중들이 끌고 시내로 나”(288쪽)였으며 이 시위가 과격파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목적이 깔려 있었음을 전해주었던 것이다. 양충식은 위 시위대를 대하는 국가의 대응방식을 바라보면서 4·3 때와 ‘현재(1980년대 후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4·3 당시 갑작스레 벌어진 시위와 ‘현재(1980년대 후반)’ 야당 발기대회를 끝마치며 일어난 시위를 병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춘화 한 뿌리』의 ‘나’는 서북청년단이었던 장군을 만나러 서울길에 올랐다가 데모행렬을 만나게 된다. 이 데모행렬은 1987년 5월 20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벌어진 사건¹²⁴⁾을

의미한다.

최루가스가 자욱한 거리 북판에서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화형식 장면도 화면에 비쳤다. 을지문덕 차림의 전경들의 요지부동의 자세... 뉴스의 현장을 바로 옆에 두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는 기분은 현실감이 오히려 덜했다. 이 판에 옛날의 케케묵은 사건이나 쫓아다니는 자신이 한심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이제 40년 저쪽의 일이다, 아버지의 죽음, 그 방식이 아무렇으면 어떻다고... 그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나는 자괴감에 빠져서 입꼬리로 껌껌 침을 흘렸다. (『보춘화 한 뿌리』, 155쪽)

‘나’는 서울에서 현재 벌어지는 데모행렬을 보면서 과거문제인 4·3을 쫓는 자신의 행동에 회의를 느낀다. 데모행렬의 고문반대, 호헌 철폐의 외침이 있는 서울은 과거 4·3이 일어난 제주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4·3에서도 미군정 반대, 남한만의 정부수립 반대의 외침이 있었다. 현재 ‘나’는 “어제 사제단이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비폭력을 호소했으나 여전히 서울시경국장은 극렬 불순분자들의 체제전복적 국기문란 행위이므로 전원 연행하겠다고 밝”(160쪽)히는 뉴스를 듣는다. ‘나’는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폭력적 대응이 낫설지 않다. 이 소설은 현재 데모행렬에 자행되는 국가의 폭력적 대응을 4·3 당시의 국가의 모습과 중첩시켜, 변하지 않은 국가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넷째, 『한라구절초』에서 양충식은 죽은 동서의 교통사고 현장이 급하게 치워진 것을 발견한다.

“그래, 상대방 차는 전혀 잘못이 없었다는 말이드나?”

124) 1986년 가을과 겨울에는 많은 학생운동가가 수배당하고 조직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공안기관마다 경쟁하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반국가단체 사건 조작도 잦았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공안기관에서 이러한 기조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월 20일 서울대학교의 추모 시위를 기점으로 2월 7일 전국 도시에서 대규모로 박종철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고, 3월 3일 박종철 사십구제에 맞춰 고문추방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으며, 각계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김상숙,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한열』, 『민주주의와 인권』 19,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9, 92쪽)

충식씨는 사회경험이 꽤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까 막막했다.

“그런 것사 나중 경찰 조사에서 안 나타날까예?”

“글쎄 그러거나 했으면 좋겠다만… 좌우간 이제 현장이 치워져버렸으니 해볼 내기가 없겠네…”

“이제 머잖아 대통령 후보가 지나가게 된다고 아까는 소방차를 대서 피를 닦아 내고 야단입니다…”

“제에길… 그래도 대통령 후보에겐 잘 보이려고…”(『한라구절초』, 214쪽)

양춘식은 동서의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이러한 이해불가능한 처리를 연속적으로 만난다. 죽은 동서는 가해 픽업트럭 기사로 기정사실화되어 버리고, 동서의 트럭 옆좌석에 탔다가 사망한 자의 가족은 시체를 놓고 보상금 흥정을 벌이며, 동서의 회사 사람들은 남아 있는 물건들을 회수하는 게 좋겠다며 몰려온다. 잘 해주마, 알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버스회사 측은 입관이 끝나고 그날 저녁까지도 이렇다 할 전갈이 없다. 사고 버스 운전사도 구속됐다는 소문조차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었으나 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없고, 교통사고를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

살육은 지금, 여기서도 계속되는 것 아닐까… 경찰과 공제조합과 버스회사, 그것들은 한통속, 공범이 아닐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는 더 거대한 어떤 조직이 섬을 목졸라 누르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먼발치에 성냥갑처럼 지어진 도시가 질식하고 있었다.(『한라구절초』, 259쪽)

양춘식은 이러한 모습에서 위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4:3에서 벌어진 살육이 현재에도 되풀이된다고 느낀다. 양춘식이 느끼는 이러한 답답함은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만나는 4:3의 기억들을 통해 강조된다. 이 소설은 규명되지 않은 채 묻혀있는 4:3의 진상과 진실을 알 수 없는 동서의 교통사고를 통해 연결시키면서, 4:3의 문제를 현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바람의 늪』에서 순민은 “옛날 폭도놈덜”(203쪽) 중 하나인 과거를 숨기고 현실에 안주하며 ‘현재(1980년대 후반)’를 살아가는 인물이다. 아들은 김만

철 일가의 북한 탈출 뉴스를 보면서, 북한의 입장에선 김만철 일가의 행위가 고 자질, 배반이라며 비판한다.

“말해 뭘 할 것이냐? 그러기에 저들도 남기고 온 가족들이 걱정된다고 하잖냐?”
그 말에 대한 대꾸는 즉각 들어왔다.

“걱정될 짓들을 왜 하지요? 따지고 보면 모두를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는 짓 아 니에요?”

순민씨는 얼른 대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따가운 아들의 시선을 컷불에 느꼈다. 그는 속에서 아무 말이나 대답을 해야 한다고 안달을 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치하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모른다!”

결국 그는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말았다. (『바람의 늪』, 167쪽)

순민은 자신의 전향을 ‘국익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을 배신하는 태도를 질책하는 아들로 인해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며 괴로워한다. 그럼에도 순민은 여전히 폭력적인 국가 권력 하에서도 자신의 전향을 두고 돌아서긴 잘했다고 생각하며 현실에 순응하려 한다. 그러나 순민은 아들이 건국대 데모 사건¹²⁵⁾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위해 경찰서에 간다.

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끌려나올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 몸에서 풍길 유치장 특유의 냄새도 떠올랐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들을 너무 익히 알아버렸었다. 순간 목젓으로 솟구치는 억울함 한 덩어리를 꿀꺽 안으로 삼켰다. 인과응보... 웬지 이 모두가 다 자기로 인해 빚어진 일인 것만 같이 생각되어서였다.(『바람의 늪』, 204~205쪽)

125) 10·28 건국대 항쟁'은 NL이론과 혁명적 대중조직 노선을 주장하던 조직들이 전국적인 학생 운동 조직을 결성하고자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 모이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전국 26개 대학생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국대 민주광장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이 열렸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에 진입하면서 1,500여 명이 3박 4일간 농성했고, 31일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1,525명이 연행되었고 이 중 1,287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 후 학생운동은 대대적인 위기에 몰렸다.(김상숙, 앞의 글, 89쪽)

순민은 아들의 연행이 “인과응보”(205쪽)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전향으로 인한 방관적 태도가 국가의 불합리와 폭력을 유지시켰고, 이로 인해 아들이 연행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4·3 당시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전향했던 순민과, 1980년대 후반에도 국가의 폭력에 맞서다 연행된 아들을 통해 변하지 않는 국가의 폭력적 문제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각 소설들의 상상서사를 분석하여 소설적 ‘현재(1980년대 후반)’과 사실서사의 4·3의 연결을 통하여 각 소설에서의 4·3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다음, 각 소설의 상상서사 속에 보이는 ‘현재(1980년대 후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작가가 그 소설들의 현재를 통해 사실서사 속 4·3을 어떻게 현재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에서 설정한 ‘현재(1980년대 후반)’는 1987년 6월항쟁과 맞닿아있다.¹²⁶⁾ 「바람의 늪」에서 순민의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건은 1986년 하반기에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가 많아지고 고문에 의한 구속 사건이 빈발해지면서 일어난 10·28 건국대 항쟁을 다루고 있다. 「보춘화 한 뿌리」에서 ‘나’가 만난 서울 명동성당에서 고문 반대 데모 행렬과 사제단에 관한 서술은, 1987년 5월 20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벌어진 고문 반대 시위를 다룬다.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의 양충식이 대통령 선거에 야권의 후보를 단일화하여 새로운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1987년 6월항쟁이 만들어낸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 야권 후보의 양보 없는 경쟁은 그 이행과정에서 민주화 운동 진영이 왜 집권에 실패하였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라구절초」에서 양충식의 동서의 교통사고 사망현장이 대통령 후보가 지나가는 일로 급히 치워진 것도 바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각 소설의 시간은 모두 현재와 과거의 두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상서사인 현재는 1980년대 후반을, 사실서사인 과거는 4·3이다. 『한 공산주의자를

126) 「나비로의 환생」에서는 상상서사의 전개에서는 특정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 소설의 시간이 1980년대라는 것을 주인공인 검사 ‘나’에게 배달된 투서에 기재된 일자(198X년 3월 11일)(44쪽)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위하여』에 형상화된 상상서사의 ‘현재(1980년대 후반)’는 사실서사의 4·3과 평행적인 관계를 가지며 거울처럼 서로를 비춘다. 미케발은 이러한 텍스트를 “거울 텍스트(mirror-text)”¹²⁷⁾라고 하였는데, 거울텍스트는 의미의 강화 기능을 가진다. 각 소설 속에서 소설적 ‘현재(1980년대 후반)’는 4·3과 병치되어 있다. 사실서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폭력성은 상상서사의 ‘현재(1980년대 후반)’에서 6월항쟁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각 소설의 주인공들이 만난 그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사실서사에서 4·3의 사건들을 통해 보여준 저항정신 또한 6월항쟁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상상서사와 사실서사는 서로 의미를 강화해 주는 거울텍스트로 기능한다. 그로 인해 4·3은 ‘현재(1980년대 후반)’의 사건을 통합하여 비극의 연속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현재(1980년대 후반)’라는 시간의 층위와 만남으로써 4·3이 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더욱 또렷하게 부각시킨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시간 설정은 4·3의 비극이 가진 미해결의 문제를 ‘현재(1980년대 후반)’로 끌어와 4·3의 상황이 현재에서 진행형임을 드러낸다. 결국 이 소설들을 이를 통해 4·3에서 시작된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1980년대 후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주지시킨다.

이처럼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4·3 당시 자행되었던 불합리한 국가 권력이 ‘현재(1980년대 후반)’에도 지속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1980년대 후반)’에도 국가의 폭력적 횡포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도 드러난다. 따라서 ‘현재(1980년대 후반)’는 4·3의 반복된 역사이면서, 4·3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된다. 오성찬은 이러한 시간의 병렬을 통해 4·3의 비극을 끊어 내야할 이유를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4·3문제의 해결이 바로 우리의 현재적 삶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한다.

3. 극복과 화해의 로컬리티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이 어떤 지향을 보여주고 있

127) Mieke Bal,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1, 62쪽.

는가는 앞서 살펴본 주인공의 책무성과 연결된다. 주인공이 가진 책무성은 소설의 결말을 이끄는 중요한 단서이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주인공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타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멈추지 않고, 극복과 화해로 나아가는 결말을 보여준다.

「나비로의 환생」에서 ‘나’는 소년이었던 6·25 때 마을의 하인이며 백정이었던 박아지(바가지)가 인민위원장이 되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때문에 줄곧 악몽에 시달린다. ‘나’는 박아지의 아들 순보를 지속적으로 린치하지만 ‘나’의 위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그런 ‘나’는 검사가 되어 제주에 부임하여 배영길의 린치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나’는 서북청년단이었던 배영길도, 그로 인해 죽어갔던 희생자들도,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4·3에 의해 상처받은 자들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나’가 순보에게 가한 린치와 배영길이 당한 린치는 겹쳐진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면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로 내려온 순보와 마주하게 된다. ‘나’는 배영길이라는 타자를 통해 자신의 폭력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오성찬은 이러한 ‘나’의 깨달음을 통한 용서를 위해 제주 무가 속 ‘나비’의 이미지를 끌어온다.

불쌍한 영신(靈神)님네
열시왕(十王)앞으로 길 치건
청나비 몸으로 환생(還生)흡서
백나비 몸으로 환생흡서
청새(靑鳥) 몸으로 환생흡서
백새 몸으로 환생흡서
설은 형제간덜 축사니 몸으로 나상 돌게 말앙
불쌍한 영신덜 저승 상마을 날려줍서(「나비로의 환생」, 109~110쪽)

제주 무가에서 ‘나비’는 죽은 자들이 환생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나’는 순보를 용서한 날 꿈 속에서 죽은 자들이 나비로 환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사내가 내 아파트에서 함께 자던 날 밤, 나는 또 벼랑을 꿈꿨다. 그 꿈은 희한하게도 천연색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벼랑을 굴러 떨어지던 그 시래기 율음 같은 사람들이 흰 나비 푸른 나비로 변해서는 벼랑 주위를 현란하게 되날아오르던 것이었다. 그것들 속에는 아버지의 엄숙한 얼굴도, 바가지도, 매맞아 죽었다는 서북청년 배영길도, 윤간당한 소녀의 얼굴도 마냥 웃으며 비누거품처럼 날아오르고 있었다.(『나비로의 환생』, 114쪽)

오성찬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죽은 자들을 나비로 환생시켜, 그들을 위로하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간 모든 이들이 나비로 환생한다는 것에서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그들의 환생은 ‘나’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의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순보’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나비로 환생한 꿈을 꾸고 나서야 비로소 악몽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 나비는 제주에서 발견한 애벌레와도 의미적으로 연결된다. 베란다에서 마늘과 배추농사를 짓는 ‘나’의 아내가 나무 상자 텃밭에서 발견한 애벌레를 보고 “호랑나비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 건이에게 보여주고 싶”(109쪽)다고 말한다. 이 소설에서는 제주 무가의 환생의 의미를 담은 나비를 통해 용서의 마음이 아버지에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결말을 열어놓는다.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양충식은 정권을 바꾸기 위해 야당의 대통령 선거 준비를 돕는 인물이다. 그러나 양충식의 정권교체를 향한 절박함과는 달리 야당의 두 김씨가 저마다의 야욕을 내세운다. 양충식은 이러한 야당의 두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며 낙담한다. 그는 4·3 당시 주전파인 김달삼과 평화주의자였던 주명구(실제 모델은 조몽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거당했던 주명구에게 심리적으로 동조를 하게 된다. 양충식은 제주 영주산에 있는 주명구의 묘를 찾는다.

마침내 그들은 울타리 담장까지 힘겹게 올라갔으나 머리의 무덤에는 비석이 없었다. 다만 첫머리의 머리 깎인 무덤인 것만으로 그의 무덤임을 확인할 밖에 없었다. 그렇겠지. 그는 어쩌면 이 묘지의 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한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했는지 모른다. 비석을 세웠더라도 어느 산사람에게 죽은 유가족이 부숴버렸을지도 모르고... 그렇긴 하더라도 뭔가 증표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돌아보던 충

식씨는 안온한 선, 용묘(龍墓)의 꼬리꼬에 바위너설인 듯 이끼 낀 산돌 하나가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돌 틈바귀에 애잔한 털진달래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진달래 나무가 난 바위를 부러캐다 박은 것인지도 몰랐다.(『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312쪽)

양충식은 주명구의 묘에서 비석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피어 있는 털진달래¹²⁸⁾를 발견한다. 그는 “돌 틈바귀에 애잔한 털진달래 한 그루”를 통해 권력과 야욕의 시대에도 “무모한 시대를 버티며 자기 식으로 살려고 한”(312쪽) 주명구의 순수한 마음을 짐작한다.

지렛대 하나를 들고 세월을 버티어보려고 한 왜소한 사나이-, 그 사내의 어정거리는 모습이 묘지 어느 구석에 보일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적어도 그는 냇바닥의 맷돌처럼 과격할 급류에 휩쓸리는 것만은 버티려 하지 않았는가. 그의 가슴에 어떤 안도감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혀 갔다.

미스정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문득 ‘선구자’의 가락이 들려오고 있었다.

…지난 나알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서연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치인 꿈이 깊어었나...(『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312~313쪽)

비록 주명구가 배척당하며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가진 순수한 마음은 “애잔한 털진달래”를 통해 짐작하게 하고, 라디오에서 문득 들려오는 “선구자의 가락”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주명구의 그러한 삶의 자세는 양충식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현재가치로 인식된다. 양충식은 ‘현재(1980년대 후반)’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두 김씨가 자신의 헤게모니를 우선시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명구의 묘에서 발견한 희망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게 되는 것이다. 양충식이 찾은 답은 자기 식으로 살아가며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제주 영주산에서 발견한 털진달래를 통해 주인공에게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여 자신의 길을 계속 가도록 독려하는

128) 털진달래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의 정상부근에 분포한다. 잔가지와 잎에 털이 많다.(김종원, 『한국 식물 생태 보감 1』, 자연과생태, 2013, 736쪽)

것이다.

「보춘화 한 뿌리」에서 ‘나’는 토벌대였던 장군과의 인터뷰를 핑계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자 서울로 향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만난 장군은 자신의 토벌대 시절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송덕비를 운운하며 자신의 행적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장군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송덕비를 찾아 사진과 탁본을 보내주기로 약속한다. 장군은 ‘나’와의 위 인터뷰를 마친 뒤 호텔에 맡겨둔 보춘화를 들고 돌아간다. ‘나’는 장군이 들고 가는 보춘화에서 현재 서울에서 벌어지는 데모대의 사과탄의 냄새를 느낀다. ‘나’는 장군과 헤어진 뒤 명동성당 시위현장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인 여인들을 우연히 마주친다.

그런 흐릿한 시야 속에 가까워지며 빛나는 게 있었다. 그것이 점점 다가오며 뚜렷해져서 보니까 붉은 카네이션이었다. 그걸 바지런한 여자들 손이 칙칙한 을지문덕 차림의 전경들의 가슴에 달아주고 있었다.

“쏘지 말아요, 제발... 다 같은 거래들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사근거렸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전경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에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들이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보춘화 한 뿌리」, 160쪽)

‘나’는 데모대를 위해 전경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여인들을 보며 그녀들을 마음으로 응원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나’는 제주로 돌아온 뒤 장군이 부탁했던 기대하던 토벌대의 행적을 칭송하는 송덕비를 찾아가서, 그것이 이미 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는 송덕비를 보고 내려오다가 시장에서 보춘화를 파는 할머니를 만난다.

그녀들 가운데 유독 수건을 눌러쓴 할머니가 보춘화 무더기를 보자기로 가리우고 지나치는 사람들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아, 눈 속에서 봄의 소식을 알린다는 꽃 보춘화, 내 발길이 그 앞에서 푹 밟혀졌다.

“할머니, 이 꽃 한 뿌리에 얼마지요?”

나는 호텔 프론트에 장군이 맡겨놨던 비슷한 꽃을 떠올리며 물었다.

“이천 원만 줘서게…”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놓았다. 할머니의 시선엔 슬픔 같은 게 고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놓았다. 그리고 물 젖은 돌이끼를 되도록 많이 거머잡았다.

내친 김에 우체국으로 가서 그 풀을 소포로 포장했다. 사연을 쓸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장군이 이 뜻을 읽을 수 있을까.

나는 이 풀이 이역에서도 꽃으로 피어주기를 속으로 빌고 있었다.(『보춘화 한 뿌리』, 163~164쪽)

‘나’는 보춘화에서 서울 시위대 앞 여인들이 전경들에게 달아주던 꽃을 떠올린다. ‘나’는 4·3 당시 제주를 피로 물들이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장군에게 보춘화를 소포로 보내면서, 무력 진압의 폭력을 행사하려고 서 있는 전경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여인들이 된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어머니를 대신해, 연좌제로 울부짖던 형을 대신해, 수많은 희생자들을 대신해, 장군의 마음에 제주의 꽃, 보춘화¹²⁹⁾를 달아주려 한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여전히 미궁이고, 그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지만, 4·3 당시 특별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장군에게, 또 복수를 하려는 나에게, “쏘지 말았어야죠. 다 같은 거래들 아니었나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나’가 장군에게 보낸 보춘화를 통해 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폭력적인 복수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 더 나아가 용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라구절초』의 양충식은 죽은 동서의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러 다니게 된 인물이다. 양충식은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사라진 가해 픽업 트럭 운전기사, 보상금 흥정을 먼저 시작한 옆 좌석 사망자 가족, 남아 있는 물건부터 챙기려는 회사 사람들, 책임진다는 말만 남긴 채 오지 않는 버스회사 측

129) 보춘화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난으로 전남북과 경남, 제주도, 울릉도 등지의 해안의 산림 내에서 자란다. 난초과에 속하며, 춘란이라고도 한다. 봄을 알리는 꽃이라는 이름 그대로 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난초이다.(정연옥·정숙진, 『한국 야생화식물도감-봄』, 푸른행복, 2016, 535~536쪽)

사람들 등-과 만나면서 4·3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양충식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몰린 동서의 상황과 경찰의 비합리적 처리 방식을 접하고, 4·3 당시 토벌대가 이덕구의 아들에게 발담 사이로 도망가게 하고는 등 뒤에서 그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을 떠올리며 4·3에서 자행된 살육이 지금도 계속됨을 느낀다.

폭력과 살육이 있는 한 평화란 기대하기 어렵지. 그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다. 속아만 살아온 이 민족,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나같이 속이고 수탈하기에 바빴지 않은가. 겨울보다 더 추운 계절이 무엇이지? 그렇지. 신뢰가 없는 계절이지. 그렇지. 그런 혹독한 계절을 우리는 보내왔었지. 독한 종자, 절망의 종족이야, 자괴의 목소리도 들려왔다.(『한라구절초, 259쪽)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동서의 장지인 어승생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게 된다. 그는 그 길목에서 겨울 추위 속에서 피어있던 한라구절초¹³⁰⁾를 발견한다. 그는 “장단지가 아플 만큼 그 꽃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259쪽) 양충식은 한라구절초를 통해 혹독한 계절을 보내며 피는 꽃으로 감동을 준다. 이 감동은 교인운전자의 경험담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분명하다니까. 내가 읍사무소까지 그 여자 손님을 태워갔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덕구의 딸이노라고 했어!”

그의 사야에 퍼뜩 담 가에서 쓰러지던 소복한 여인의 영상이 떠올랐다. 가라! 달아나라! 하고 뒷총질을 해 쓰러지던 소년의 모습도 슬로비디오의 화면으로 떠올랐다. 아. 그 두 살짜리 딸애가 죽었다는 증언은 없었지. 그의 귀에 애앵 이명(耳鳴)이 왔다.

“그 여자가 몇 살이나 되어 보였습니까?”

버티지 못하고 그가 끼어들었다.

“한 마흔이나 됐을까요…”

운전사가 고개를 까딱 틀며 대답했다.

맞다. 그러면 그 딸일 수도 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쿵쿵 멎었던 기관 같은 것

130) 한라구절초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제주도 고지대에 분포하며, 개체수가 매우 적다.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10-15cm에 달한다. 꽃은 9-10월에 핀다. 꽃은 흔히 희색, 분홍색이다.(이상팔, 『한반도 고유종-식물』, 국립생물자원관, 2013, 681쪽.)

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까 담 굽 먼지 쓴 눈 발치에서 보았던 한라구절초의 선명한 색깔도 떠올랐다.

사람들은 이제 무덤 만드는 일을 끝내가고 있었다.(『한라구절초』, 259~260쪽)

이 겨울에 피어난 한라구절초와 이덕구의 딸이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극복의 이미지이다. 이 겨울 같은 시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죽거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덕구의 딸의 생존 혹은 추위를 이기고 핀 한라구절초는 모두 희망의 이미지를 덧입는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제주에 핀 한라구절초를 통해 양충식에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현실을 극복할 용기를 주게 된다.

『바람의 늪』에서 순민은 4·3 고문 후유증으로 제주 바람이 불 때면 몸이 육신 거리고 기가 꺾여 버리는 고통을 느끼는 자이다. 순민은 4·3 당시 자신이 수행한 남로당 연락책으로서의 활동을 혁명과업이라고 생각했던 순박한 인물이다. 순민은 그런 연락책 활동을 하다가 잡혀 형사의 고문과 회유에 전향하면서 조직원들의 정보를 팔아넘긴다. 순민의 제보에 따라 동지들이 체포되고 그 시신이 관덕정에 전시된다. 순민은 현재까지도 위 형사에게 불러 다니며 시달린다. 순민은 ‘빨갱이는 죽여도 무방하다’와 같이 국가권력의 원시적 폭력행사 방식에 따라 재판 절차 없이 진행되는 4·3의 사법처리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향할 수밖에 없었다.

순민은 ‘현재(1980년대 후반)’ 학생들이 대학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하는 짓이여. 애비 에미들은 뼈빠지게 돈 벌어서 보내니까…”(184쪽)이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순민은 ‘현재(1980년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당한 경험을 답습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문서 전달을 할 때 열정은 순수했던 것 같았다. 나중 비틀어져 변질되어 갔지만 목적도 뚜렷했던 것 같았다. 제국주의의 아래 답습되어서는 안 된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안 된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묵은 토담집 냄새 나는 그 때를 생각하면 이제 대학생들의 행동이 이해될 것 같았

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거의가 저 세상에 있었다. 그런 만큼 당했던 경험에 의해 위기감도 짙었다. 저놈들은 그런 시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나 같은 세월을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그는 바짝바짝 입안이 말랐다.('바람의 늪', 190쪽)

순민은 아들이 위 데모 사건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자, 그 두려운 상황이 자신의 아들에게 되풀이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경찰서로 아들을 만나러 간 순민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기적으로 전향했던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현재(1980년대 후반)'의 데모대 활동으로 경찰에 연행된 아들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책한다. 순민이 맞서 싸우지 못한 국가의 폭력은 이 땅에서 지속되었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그 부당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순민은 경찰서를 나와 이러한 빗갚음을 생각하며 바다를 향해 걸어간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지 멀리 수평선 쪽에서부터 희끗희끗 파도 떼들이 몰아쳐오는 게 보였다. 그것들이 차츰 섬 가까이로 오면서 퍼져 에워싸고, 바야흐로 섬은 바람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 판이었다. 이 바람의 늪의 생리를 섬에서 낳고 자라온 그는 너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소년시절부터 출창 이 늪을 헤쳐 온 것같이 착각되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마저 이 늪 속으로 들러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몰아쳐올 바람을 혼자의 몸으로 막아내려는 듯이 정면으로 바람을 맞으며 활개쳐 걷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자기가 바람 속에 드는 것쯤 문제가 아니었다.('바람의 늪', 206쪽)

순민은 제주 섬을 에워싸며 소용돌이치는 바람을 보며 자신이 늪에서 살아 왔음을 느낀다. 순민은 자신의 아이들을 늪에 빠뜨리려는 바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고자 정면으로 바람을 맞으며 걷는다. 순민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여한 것은 제주의 바람이다. 순민은 시대적 양심을 후비며 자신을 고통스럽고 육신거리게 만들었던 그 바람을 이제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제주의 바람을 통해, 불합리한 시대를 외면하고 살았던 주인공의 반성과 극복의지를 보여준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주인공들은 각자의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화해와 극복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화

해와 극복은 각각의 소설에서 제주와 관련된 나비(『나비로의 환생』), 바람(『바람의 늪』), 난초(『보춘화 한 뿌리』), 꽃(『한라구절초』,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등의 제주의 자연과 함께 제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문학장의 담론으로 재등장한 로컬리티¹³¹⁾는 ‘중앙=서울’로 대변되는 일극체제의 강고한 중심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제기되었다.¹³²⁾ 지역의 과거와 마주하는 것만큼 지역의 로컬리티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4·3소설에서 4·3을 형상화할 때 제주의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경우는 적지 않다. “현기영은 『순이 삼촌』에서는 제주어라는 언어의 문제와 ‘식겅집’이라는 제주의 제사모티프를 사용하였고,¹³³⁾ 『목마른 신들』에서는 제주 심방을 등장시켜 억압된 기억을 제주 무속을 통해 드러내었다.”¹³⁴⁾ 또한 현길언은 『우리들의 조부님』에서 제주 무속을 통해 죽은 자를 기억하고, 제의의 형식으로 그 기억을 공유하는 무죄 증명을 빙의의 형식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¹³⁵⁾ 오성찬은 4·3의 기억을 기반으로 이 소설들을 쓰면서 제주라는 “로컬리티”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다만, “현기영과 현길언 등 출향인들의 작품들이 일정부분 귀향모티프를 전제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오성찬은 이들과는 다른 시각, 정주의 시선으로 제주를 인식하고 있다.”¹³⁶⁾ 오성찬은 제주의 산과 바다는 그의 삶이었고, 제주의 자연은 따라서 그의 작품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문학적 근간이 된다.

나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군대 3년의 외지 생활을 제외하고는 계속 제주에서만

131) 로컬적인 것과 로컬리티를 지역적인 것이나 지역성으로 하지 않고 원어로 표기한 이유는, 로컬과 로컬리티를 지역과 지역성으로 옮길 경우, 우리말의 지역성이 갖는 의미가 너무 다양하고 민족국가는 넘어서는 영역 또한 지역으로 불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과 지방성이 이미 중심과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에 용어 사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73쪽)

132) 이는 그동안의 로컬리티 연구가 다분히 탈근대적 입장에 서있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로컬리티는 근대가 중심화와 주변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면서 중심의 견고함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로컬리티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탈-중심의 기획으로 창안되고 논의되었다.(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3, 11쪽)

133)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방식-현기영의 『순이 삼촌』론-』, 『탐라문화』 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3, 4쪽.

134) 김동윤, 『촛불 이후 되새기는 4·3문학』,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한그루, 2019, 270~272쪽.

135) 김동현, 앞의 책, 217쪽.

136) 위의 책, 223쪽.

살아왔다. 경험의 작품의 토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렇기에 나의 작품들은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같은, 극히 제주적인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기에 어느 작품이나 다소간 섬과 바다와 관계 안 된 작품은 없다. 이것은 다분히 운명적이기까지 하다. 과연 제주적인 것은 무엇인가? 제주는 섬 전체가 한라산이라는 하나의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 일원은 빙 둘러서 바다이다.¹³⁷⁾

오성찬은 제주의 정주자로서 중앙에 포섭되지 않는 로컬의 자연을 통해 중앙에 맞서려고 했다. 오성찬은 4·3의 화해와 극복의 이미지를 중심과 주변, 도시와 시골, 문명과 미개 같은 이분법 속에서, 중앙 혹은 중심이 아닌 로컬적인 것으로 제기하려 한다. 로컬은 중앙에 흡수될 수 없는 것, 중심에 미달되거나 주변으로 폄하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는 중앙의 지배 논리를 해체하고 로컬이라는 주변성의 힘을 확대함으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로컬을 억압하는 중앙에 대항하기 위한 힘도 역시 로컬에 있는 것이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에서는 4·3으로 상처입은 주인공들과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 중앙권력들이 등장한다. 이 소설들에서 4·3의 비극에 맞닿아 있는 인물들은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각 소설에 드러난 사건들도 “중앙이 외면하는 사실들이며 중앙이 구축한 중심의 시선이 외면한 지역의 편린들이다.”¹³⁸⁾ 오성찬이 4·3으로 상처입은 주인공들의 화해와 극복의 상징을 그들이 속한 로컬인 제주의 자연에서 찾는 것은 제주의 정주자인 오성찬으로서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억압된 기억의 복원이 국민국가가 외면한 타자성을 국가로부터 승인받으려하는 태도로 이어질 때 주체의 자리는 국가에 양보”되지만, “반대로 억압된 기억의 복원이 국민국가의 공식기억이라는 중핵으로부터 탈주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일 때 그것은 끝내 국가로부터 호명 받지 않는, 즉 국가로부터 고개를 돌림으로써 국가라는 대타자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¹³⁹⁾ 이 소설들에는 국가 혹은 중앙의 어떤 것도 4·3으로 고통받는 주인공들을 치유해주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4·3으로 고통받는 주인공들은 그 고통을 벗

137) 오성찬, 「나의 소설에서의 섬과 바다」,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오름, 1999, 133쪽.

138) 김동현, 앞의 책, 226쪽.

139) 위의 책, 195~196쪽.

어나기를 원한다. 그 주인공들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을 준 4·3의 배경인 된 제주의 자연에서 화해와 극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제주라는 로컬리티를 통해 국가에 대한 저항성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을 통해서 중앙 국가의 폭력과 그것으로 인해 억압된 현실에 대항하는 로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성찬은 4·3의 비극을 제주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극복의 가능성 또한 제주 도처에서 발견되기를 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에서는 국가폭력에 정면에서 맞설 수 없는 ‘현재(1980년대 후반)’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제주의 자연을 통한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이 소설들은 국가 혹은 중앙의 권력과 폭력이 소실되는 곳, 어떠한 국가적 힘도 미칠 수 없는 제주의 자연에서 화해와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혹은 중앙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V. 4·3소설로서의 의의와 한계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은 『한라의 통곡소리』의 증언들을 교차적으로 인용하였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미각성’의 주체가 ‘각성’되는 서사 구조, 동일한 서사전략에 의한 사실서사의 수용, 지식인 주인공의 책무감과 윤리성, 4·3과 1987년 6월항쟁이 병치된 시간 배열, 제주의 자연을 통한 화해와 극복 등 다층적인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층성은 연작소설로서 다섯 편의 중편소설을 하나로 연결하여 대항담론을 형성해 보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이 소설집이 가지는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기록문학에 담긴 기억을 환기시키는 4·3소설이다. 통상 4·3의 문학적 이행은 4·3의 원체험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4·3을 겪은 체험 작가들로는 1940년생인 현길언, 1941년생인 현기영, 1940년생인 오성찬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제주에서 한 해 차이로 태어나 8~9살에서 10대 초반까지의 소년기에 4·3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4·3소설을 썼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4·3체험 세대기는 하나 그들의 경험은 어린시절의 것에 불과하였고, 자신의 체험만으로 4·3을 형상화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길언은 “자신의 직접적 체험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경험담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¹⁴⁰⁾다. 현기영도 「순이삼촌」을 집필할 때 자신의 기억에다가 북촌마을의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의 증언을 취재하였고, 1989년에 개소한 제주4·3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즉, 현길언과 현기영은 자신들의 원체험뿐만 아니라 증언과 취재를 통해서 4·3소설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집필방식은 오성찬도 마찬가지였다.

오성찬의 방식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는 직접 증언을 채록하여 증언집을 간행하였고, 그 증언집을 토대로 다양한 사실서사를 요약하거나 확장시켜 소설에 수용하였다. 오성찬의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각 소설은 회상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회상하다는 의미의 기억행위는 조사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140) 양철수, 「현길언의 4·3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0, 61쪽.

드러내어 보여주는 데 능하다”¹⁴¹⁾는 뜻이 된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기억을 묶어내는 기억의 환기자가 되었다. 오성찬은 증언자의 기억을 되살려 “합법적이고 공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억들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복권을 시도”¹⁴²⁾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증언자의 기억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졌던 억압 받는 타자들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삶과 시대의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목소리로 확장된다. 또한 “역사적 기억이 어떤 것을 단순히 되불러 오는 것이 라면, 문학적 기억은 어떤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¹⁴³⁾ 일상처럼 만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를 환기하여 이념의 굴레에 얽힌 은폐된 역사라는 거대담론에 맞서려는 것이 오성찬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4·3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비극을 치유하고자 했던 다수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본격적인 증언소설이었다. 오성찬이 직접 채록하여 간행한 『한라의 통곡소리』를 바탕으로 삼아 창작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낸 것은 4·3소설사에서 각별히 주목할 점이라고 할 만하다.

둘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국가 폭력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다시 쓰는 사기(史記)’라는 부제 아래 소설을 연작으로 묶어, 그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 소설집 전체로 보면, 각 소설에서 언급된 시기들, 즉 조선시대로부터 4·3, 6·25,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이 연결되어 역사적인 틀에서 담론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집의 각 소설은 연작의 틀에서가 아니라 개별 소설을 분리하여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주명구의 행적 탐구와 병치되면서도 별다른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¹⁴⁴⁾는 평가가 나온 것도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을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록된 다른 소설들과 연작으로 읽어보면 달리 해석된다.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 각 소설의 상상서사는 조선시대의 제주의 역사로부터 1987년 6월항쟁을 둘러싼 각각의 사건을 각각의 소설에 하나씩 배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제주로 내려왔던 중앙 관리의 횡포를 통해, 제주는 늘 국가라

141)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59쪽.

142) 위의 책, 32쪽.

143) 위의 책, 45쪽.

144) 김동현, 앞의 책, 223쪽.

는 이름의 엘리트 그룹의 횡포에 시달려왔다(「나비로의 환생」). 그리고 4·3 때 토벌대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보춘화 한 뿌리」) 남겨진 자들은 제주의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4·3의 비극을 대면한다.(「한라구절초」) 그리고 1987년 현재, 10·28 건국대 항쟁으로 대학생들이 연행되고(「바람의 늪」), 고문반대 데모 행렬은 또 다른 국가폭력인 진압대와 대치된다.(「보춘화 한 뿌리」)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기회를 만들지만, 야권의 후보를 단일화하여 권력을 교체해보려는 시도는 쉽지 않다.(「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가 그 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경찰은 시민에게 강압적 태도를 보인다.(「한라구절초」) 이렇게 국가의 폭력과 횡포는 ‘현재(1980년대 후반)’에도 계속된다.

오성찬은 이 소설집에서 연작형식으로 조선시대 중양의 횡포로부터 4·3의 비극,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에서 행해진 폭력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성찬은 이 소설집을 통해 이러한 국가의 모습을 4·3의 다양한 모습들과 병치시켜 현재 우리가 왜 4·3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성찬이 이 소설집에 ‘다시 쓰는 사기(史記)’라는 부제를 붙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성찬은 사마천(기원전 145년~기원전 86년)의 『사기』처럼, 엄중한 사실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서로서 이 4·3소설을 쓴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집은 연작으로 묶어 제주와 현재의 역사를 통해 4·3을 둘러싼 국가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였다.

셋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은 4·3의 비극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식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에서 발견하였다.

우선, 오성찬은 4·3의 해결을 위해 지식인의 역할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기자인 주인공은 방관자로 살아가다가 4·3의 비극을 회상하며 그 비극이 오늘날에 까지 이어짐을 인식하고 분노한다.(「한라구절초」) 또 공산주의자였던 주인공은 소시민적 삶을 위해 신념을 버렸던 자신의 선택에 반성적 자세를 보인다(「바람의 늪」). 나아가 향토사학자인 주인공은 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의지를 다진다.(「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이처럼 지식인의 반성은 지식인이 4·3증언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깨달으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오성찬은 지식인의 반성이 4·3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다음, 4·3을 통한 원한과 복수의 감정을 풀고, 가해자를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였다. 「나비로의 환생」의 6·25의 희생자 가족인 ‘나’와, 「보춘화 한 뿌리」에서 4·3으로 무고한 아버지를 잃은 ‘나’는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인 ‘나’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4·3의 해결이 국가적 차원의 물질적 보상이나 제3자의 이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성찬은 용서의 방법을 피해자였던 주인공이 린치를 가하던 가해자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행위로(「나비로의 환생」), 4·3가해자인 장군에게 제주의 꽃을 소포를 보내는 행위로(「보춘화 한 뿌리」) 보여주었다. 이 용서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의 증언자들을 만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오성찬은 피해자의 용서가 4·3의 비극을 치유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오성찬은 지식인과 피해자가 먼저 4·3의 비극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서는 용서와 반성을 통해 4·3의 비극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 소설집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한계는 오성찬 소설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소설집에 국한된 사항도 있다.

첫째, 이 소설집에서는 주인공이 접하는 사실서사를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되어 상황전개의 긴박감이나 인물의 생동감이 떨어진다. 「나비로의 환생」이나 「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에는 주인공이 4·3증언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주인공의 감정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보춘화 한 뿌리」, 「한라구절초」, 「바람의 늪」에는 주인공이 4·3의 기억을 회상하지만, 4·3의 비극을 떠올린 주인공의 현재의 모습은 체험 당사자라기보다는 제3의 입장으로 기억을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소설들은 다소 밋밋한 갈등관계로 전개되어 소설적 재미가 반감된다. 이러한 상상서사의 전개는 이 소설집이 기록문학에 담긴 기억의 전달에 치중한 결과이다.¹⁴⁵⁾

둘째, 이 소설집에서는 주인공이 시대와 역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내적각성에 머물러 있다. 이는 주인공이 중도적 인물로 설정되어 관찰자적 태

145) 『죽은 장군의 증언』(2000)이라는 오성찬의 장편은 김익렬 회고록의 소설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의 상상력이 의미있게 발휘되지 못하고 회고록에 갇히고 말았음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김동윤, 「2000년대 4·3문학의 양상과 의미」, 앞의 책, 306쪽)

도를 보임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이 소설집의 주인공들은 왜곡된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한 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인공들 대응은, 꿈을 통해 죽은 이들이 “흰 나비 푸른 나비로 변해서는 벼랑 주위를 현란하게 되살아 오르던 것”으로 용서와 화해에 이르거나(『나비로의 환생』), 서북청년단이었던 사내에게 꽃을 보내면서도 “나는 이 풀이 이역에서도 꽃으로 피어주기를 속으로 빌고 있”(「보춘화 한 뿌리」, 164쪽)거나, 제주의 “바람을 혼자서 몸으로 막아내려는 듯이 정면으로 바람을 맞으며 활개쳐 걷기 시작”(「바람의 늪」, 206쪽)한다며 암시적으로 의지를 드러내거나, “담 굽 먼지 쓴 눈 발치에서 보았던 한라구절초의 선명한 색깔도 떠올”(「한라구절초」, 206쪽)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털진달래꽃을 발견하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혀 갔다”(「어느 공산주의자에 관한 보고서」, 312~313쪽)고 극복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소설들에서는 주인공이 보여주려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의 결여로 소설의 결말에서 보이는 용서와 반성도 치열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 도출된 결말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을 통한 자기 깨달음의 정도에 머물고 있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셋째, 이 소설집에서는 주인공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생각을 드러낼 때가 있다. 「보춘화 한 뿌리」에서는 서북청년단이었던 장군을 “당당함”이라든가, “재목”이라고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한라구절초」에서는 죽은 “폭도 훈련대장 김대진”에 대해서 “한 시대를 주름잡아 보겠다고 나대던 사나이, 그는 이렇게 해서 전리품이 되었다.”(212쪽)라거나, 「보춘화 한 뿌리」에서는 이덕구의 수하였던 김모군의 변절을 “한번 영웅 칭호를 받아보고 싶었던”것이라 하며 “저 놈들이 하는 것이 늘 그랬으니까요…”(127쪽)라고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은 오성찬이 4·3의 비극이 국가폭력에서 비롯되었다는 대항담론을 제기하고 있으면서도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의 억압적 상황에서 비롯된 자기 검열의 차원을 넘어서는 반공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성찬의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은폐된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 증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또한 이 소설집은 기억을 토대로 4·3소설이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집에서 제시된 용서와 반성을 통한 화해와 극복은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려는 4·3소설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오성찬의 4·3소설은 비종결된 이야기로 다시 순환한다. 오성찬은 이후로도 「겨울 산행(山行)」(1990년), 「표류하는 세월」(1991), 「바람 불어, 인연」(1995), 「기억의 다리」(1996), 「유년의 부활」(1998), 『죽은 장군의 증언』(2000) 등의 4·3소설을 계속 이어 나갔다. 오성찬은 4·3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소설가로 기억될 것이다.

VI. 결론

오성찬의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그의 증언채록집인 『한라의 통곡소리』에 수록된 사실서사를 기반으로 창작된 소설집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가 상호텍스트성을 가진 연작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증언소설이라는 장르적 이해를 바탕으로 4·3소설로서의 역사적 진실성과 전달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토대가 되는 기록문학인 『한라의 통곡소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라의 통곡소리』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발간된 것으로, 1970년대 중후반부터 발달한 기록문학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오성찬은 이 증언집을 통해 4·3의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와 4·3이 진행형의 문제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 증언집은 46편의 증언으로 구성된 기록문학이다. 이 증언집은 4·3의 피해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했고, 4·3 당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4·3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기록문학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마음으로 간행되었다.

제Ⅲ장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보이는 서사구조와 서사전략, 수용된 사실서사에서 강조된 사회·역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다섯 편의 중편소설은 ‘미각성-취재 혹은 회상-각성’의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즉, 주인공들은 미각성의 상태에 있다가 4·3의 비극을 취재하거나 회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이 취재 혹은 회상의 과정을 겪으면서 각성된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해 주는 공통적인 뼈대이면서, 증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둘째,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사실서사를 수용하는 과정 중 적용된 대화 형식이나 과거회상으로 요약된 서술에서는 간접내용석의, 직접화법, 모방성간접화법으로 증언이 제시되고, 과거회상으로 확장된 서술에서는 다른 인물의 관점으로

가변초점화된 서술로 증언이 제시된다. 이는 증언 내용에 서술자의 해석이나 판단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서사전략은 이 소설집에서 등장인물들이 의식의 복수성을 유지하면서 다성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하고, 각각의 소설의 뾰족성을 높이며, 증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한다.

셋째,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한라의 통곡소리』의 증언들은 주제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되거나 보충적인 사실서사로 수용된다. 전자의 경우, 각각의 소설에서 중심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모두 확장되어 서술된다. 이런 사실서사는 린치 사건과 연좌제의 문제, 4·3당시의 상황과, 토벌대의 만행을 보여준다. 특히 연좌제와 린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국가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또한, 후자의 경우, 사실서사는 서로 다른 소설에 중복적으로 제시되며 주로 요약적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이런 사실서사는 토벌대의 만행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아 국가가 승인하는 공식기억에 대한 기억투쟁의 구도를 보여준다.

제Ⅳ장에서는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의 다섯 편의 중편소설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면서, 상상서사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주인공의 특징과 소설적 현재의 의미, 소설의 결말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첫째,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1인칭 시점 또는 3인칭 시점의 각 주인공들은 모두 내적 초점화되어 서술자와 작가의 거리가 가깝다. 이 소설집에서는 시점과 상관없이 주인공들이 작가의 관점과 전망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이 소설집의 이런 특성을 가진 주인공들은 중도적 인물로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지식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들은 책무감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책무감은 주인공들이 각성되어 가는 변화 과정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 작가적 책무감도 투영된 것이다. 나아가 주인공들은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지식인의 윤리성을 보여준다.

둘째, 다섯 편의 중편소설에서 소설적 ‘현재(1980년대 후반)’는 1987년 6월항쟁을 배경으로 한다. 4·3과 ‘현재(1980년대 후반)’가 병치되면서 4·3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이 ‘현재(1980년대 후반)’까지 되풀이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4·3의 사건들을 통해 보여준 저항정신도 ‘현재(1980년대 후반)’의 6월항쟁의 그것과 다르

지 않다. 4·3과 소설적 현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1980년대 후반)’는 4·3의 반복된 역사이면서, 4·3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된다.

셋째, 다섯 편의 중편소설의 각 주인공은 의식이 변화되면서 용서 또는 반성을 통해 화해 또는 극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용서 또는 반성의 가능성은 모두 제주의 자연으로 표현된다. 제주의 자연은 제주에서 정주자로 살아온 오성찬에게 중요한 문학적 근간이다. 오성찬은 4·3의 비극을 제주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극복의 가능성 또한 제주 도처에서 발견되기를 희망한다. 오성찬의 로컬리티는 제주의 자연을 통해서 중앙 국가의 폭력과 그것으로 인해 억압된 현실에 대항하는 로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다층적인 상호텍스트성을 공유한 연작소설로 대항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제V장에서는 4·3소설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이 소설집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소설집은 기록문학에 담긴 기억을 환기시키는 4·3소설이다. 오성찬은 원체험을 바탕으로 한 4·3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4·3의 대항담론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기억을 묶어내는 기억의 환기자가 되려 하였다. 오성찬이 직접 채록하여 간행한 증언집 『한라의 통곡소리』를 바탕으로 삼아 창작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낸 것은 4·3소설사에서 각별히 주목할 점이다. 둘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국가 폭력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다시 쓰는 사기(史記)’라는 부제 아래 소설을 연작으로 묶어, 그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 소설집은 조선시대 중앙 관리의 횡포로부터 4·3, 6·25,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을 연결하여 역사적인 틀에서 4·3을 담론화하고 있다. 셋째, 이 소설집은 4·3의 비극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식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에서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소설집은 이러한 반성과 용서를 통해 4·3의 비극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이 소설집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이 접하는 사실서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상황전개의 긴박감이나 인물의 생동감이 떨어진다. 둘째, 주인공이 시대와 역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내적각성에 머물러 있다. 셋째, 주인공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자

유롭지 못한 생각을 드러낼 때가 있다.

이처럼 오성찬의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는 은폐된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 증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또한 이 소설집은 기억을 토대로 쓰인 4·3소설이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한편, 이 연구는 오성찬의 4·3소설 중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에 수록된 다섯 편의 중편연작을 중심으로 증언소설로서의 특징을 살폈으나, 그의 4·3소설 전체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오성찬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40여 년간 20여 편의 4·3소설을 창작한 작가이기에, 전체 텍스트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작품집만을 대상으로 그의 4·3소설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3소설의 흐름과 작가 의식의 변모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오성찬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오성찬, 『단추와 허리띠』, 지성문화사, 1988.
_____, 『제주의 마을 3-함덕리』, 반석, 1986.
_____, 『하얀 달빛』, 『별을 따려는 사람들』, 지성문화사, 1988.
_____,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실천문학사, 1989.
오성찬 채록·정리, 『한라의 통곡소리-4.3 제주대학살의 증언』, 소나무, 1988.

2. 논문, 단행본, 평론

< 단행본 >

-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3.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_____,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한그루, 2019.
_____, 『작은 섬 큰 문학』, 각, 2017.
_____,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동현, 『제주, 우리 안의 식민지』, 글누림, 2016.
김영화, 『분단 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김종원, 『한국 식물 생태 보감1』, 자연과생태, 2013.
박노자,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한겨레출판, 2012.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9.
역사문제연구소,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88.
오성찬문학선집 간행위원회, 『오성찬 문학선집 11』, 푸른사상, 2006.

-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봄날의 박씨, 2015.
- 이상팔, 『한반도 고유종-식물』, 국립생물자원관, 2013.
-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이론』, 소명출판, 1999.
- 정연옥·정숙진, 『한국 야생화식물도감-봄』, 푸른행복, 2016.
-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2, 한울, 1989.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 조희연,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 Aleida Assmann, 변학수 외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Gabriele Lucius-Hoene, 박용익 옮김, 『이야기 분석』, 역락, 2011.
- Gary Saulmerson·Caryl Emerson, 오문석 외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 Georg Lukács, 이영욱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87.
- Gérard Genette,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H. Porter Abbott,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 Mieke Bal,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 Paul Ricoeur,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 Rene Girard,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믿음사, 1998.
- Rimmon-Kenan, 최상규 옮김,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 Roland barthes,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 논문 >

- 김도남, 「텍스트 이해의 상호텍스트성」, 『국어교육학연구』 14권, 국어교육학회, 2002.
-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방식-현기영의 「순이 삼촌」론-」, 『탐라문화』 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3.

- 김동전, 「제주4·3 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 『평화연구』 23권, 2013.
-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3.
- 김상숙,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한열」, 『민주주의와 인권』 19,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9.
- 김재영, 「연작소설의 장르적 특성 연구 - 1970년대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6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 김정환, 「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문학』 3권, 실천문학사, 1982.
- 반성완, 「루카치의 역사소설이론과 우리의 역사소설」, 『외국문학』, 열음사, 1984.
- 오성찬, 「나의 소설에서의 섬과 바다」,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 오름, 1999.
-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5·18과 4·3 비교연구」, OUGHTOPIA 26, 2011.

ABSTRACT

A Study on Oh Sung-chan's 4·3 Novels

- Focusing on 『For a communist』

Seon-mi Pang

『For a communist』 by Oh Sung-chan is a novel-collection created based on the factual narrative listed in 『Halla's loud weeping sound(한라의 통곡소리)』. This study reviewed how the historical truth and transmission revealed as 4.3novel based on the genre understanding as testimony novel by focusing on 『For a communist』 is a series novel with mutual text characteristic.

First, 『Halla's loud weeping sound』 a record literature, which is the base of 『For a communist』 was reviewed. 『Halla's loud weeping sound』 was published since June-Democracy Movement in 1987, it shows the reason why to discover the truth of 4·3 and the fact that 4·3 is the ongoing problem. 『Halla's loud weeping sound』 is a record literature which consists of 46 testimonies, it tried to suggest the damage aspect of 4·3 and recorded focusing on the tragic events during 4·3.

Next, 5 mid-length novels of 『For a communist』 showed the narrative structure of 'taste-coverage(or recall)-awakening'. This narrative structure reveals the subject of novel effectively, and is the method which can deliver the testimony effectively. 5 mid-length novels accommodating the factual narrative strengthen the fact and the subjectivity of event by not reveal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judgment of narrator in the testimony through variable focus nar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 people or indirect content, direct speech, imitative indirect speech. This narrative strategy allows the characters in this novel to maintain the plurality of consciousness while

making their versatility strong, increasing the verisimilitude of each novel, and effectively delivering testimony.

The testimonies of 『Halla's loud weeping sound』 are accepted as either central or supplementary factual narratives in relation to the subject. In the former case, it is treated as a matter of national violence that is still ongoing through the problems of the Lynch case and the guilt by association system. In addition, in the latter case, there are many contents that show the brutality of the punitive force, showing the composition of the memory struggle against official memory.

Furthermore, in the 5 mid-length novels of 『For a communist』, Each protagonist from a first-person or third-person perspective is internally focused, so the distance between the narrator and the author is close. This novel collection can be characterized by all the protagonists showing the perspective and the vision of author regardless of time. The protagonists with this characteristics in this novel collection are moderate figure and an intellectual. In addition, the protagonists are set as characters with a sense of author's responsibility. Also, protagonists show the moral of intellectuals who try to move toward a good life in the rightful society. In 5 mid-length novels, 'the present(the end of the 1980s)' of novel has the background of June-Democracy Movement in 1987. As 4·3 and the present are combined, it shows the reality that the national violence committed in 4·3 is repeated up to now. 4·3 and the current novel can be said to serve as mirror text that reflects each other. Therefore, 'the present(the end of the 1980s)' is the repeated history of 4·3, and is the time showing the pain of 4·3 doesn't end.

The protagonists of each novel seek compromise or overcoming through forgiveness or reflection. The possibility of these forgiveness or reflection are all expressed into Jeju's nature. Jeju's nature is the important literary foundation to Oh Sung-chan who has lived as a resident in Jeju. Oh Sung-chan's locality shows the power of local that resists against the

suppressed reality due to the violence of central government through Jeju's nature.

Like this, 『For a communist』 is a series novel sharing the multi-layer mutual text characteristics, forming the resistant discu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novel is as follow. First, this novel collection is 4·3 novel that reminds the memory contained in the record literature. Second, this novel collection binds the novel as a series under the sub title of 'rewriting Sagi(史記)' in order to criticize the national violence issue and uses the characteristics properly. Third, this novel collection discovers the possibility that can heal the tragedy of 4·3 from the reflection of intellectual and the forgiveness of victim.

『For a communist』 by Oh Sung-chan shows why the attitude of listening to the voice of witness in order to shed light on hidden historical events is important. In addition, this novel collection is a good example showing 4·3 novel written based on the memories can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formation of resistant discussion.

<부록>

오성찬 연보¹⁴⁶⁾

- 1940년 제주도 서귀포시(당시 서귀면) 서호마을에서 4월 26일(음력) 가난한 농부인 아버지 오창흥, 어머니 양병영의 3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남.(호적에는 생일이 4월 18일로 거슬러 기재되었음.)
- 1948년 제주4·3사건 발발. 국민학교 2년생으로 4·3의 상황을 기억함.
- 1952년 6·25전쟁으로 제주에 피난 온 교사들에 의해 특활 시간이 마련되고 이때 문예반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52년 서호국민학교 졸업. 교사들의 진학 권유를 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하여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함. 이후 농사일을 도우며 강의록 등으로 독학함.
- 1955년 변호사가 되겠다고 고시공부를 시작했으나 독학의 벽을 인식하여 포기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생 안내 책자를 읽고 문학 공부 시작함.
- 1957년 <석좌(石座)> 동인이었던 정영택, 현길언 등과 사귀.
- 1958년 서귀포의 ‘탐라예술제’에서 시화전 부문에 입상. 이후 김태국, 박성원, 정인수, 강대하, 오옥단 등과 <절벽문학동인>을 결성, 시화전과 낭송회 등 문학 활동 전개.
- 1959년 제주대학 개교 7주년 기념 문예작품 현상모집에 단편 「물고」 입상.
- 1960년 아버지 사망.
- 1962년 육군에 입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병참부대에 근무하며 서울을 오갔고, 이 기간에 오영수 소설가 집을 드나들며 배움.
- 1964년 병장으로 제대.
- 1967년 1월 5일 이향자와 결혼. 6월 <<현대문학>> 제1회 장편 모집에 응모한 『포구』가 최종심에 오름. 10월 12일 큰딸 지연 출생.
- 1968년 제주도의 촉탁 편집원이 되어 제주시로 이주함.
- 1969년 1월 <<신아일보(新亞日報)>> 신춘문예에 중편 「별을 따려는 사람들」 당선, 첫 장편 『포구』를 <<제주신문>>에 연재. 11월 제주신문사 기자로 입사.
- 1970년 중편 「땅 위에 쓰다」로 매일문학상 수상.

146) 이 연보는 『오성찬 문학선집』의 「연보」와 『한라구절초(오성찬4·3문학선)』의 「작가의 발자취」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1972년 11월 24일 장남 석 출생.

1973년 1월 첫 작품집 『별을 따려는 사람들』을 현대문학사에서 간행. 9월 26일 문화공보부장관 명의로 발간 중지와 수거 조치 공문을 받음.

1976년 창작집 『탐라인』 간행. 7월 28일 차남 덕 출생.

1977년 제주 안내서 『제주민의 얼』 발간.

1978년 제주도문화상 수상. 7월, 소설에 전념하고자 제주신문사 의원면직.

1979년 제남신문사 편집부장이 됨. 창작집 『한라산』 간행.

1980년 11월 언론통폐합 조치로 직장 잃음.

1981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연구소장 취임.

1982년 『제주도지』 책임편집.

1983년 한국문협 제주도지부장.

1984년 장편 『크는 산』으로 삼성미술문화재단의 도의문화저작상(현 삼성문학상) 수상. 민속연구소장 의원면직.

1985년 10월 <도서출판 반석>을 등록. 『제주의 마을』 시리즈 간행 시작.

1986년 추사 김정희 실명소설 「세한도(歲寒圖)」를 월간 《미술세계》에 연재한 후 책으로 냄.

1988년 수거 조치됐던 『별을 따려는 사람들』 재간행. 증언집 『한라의 통곡소리』와 단편집 『단추와 허리띠』 발간.

1989년 ‘제주역사연구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이 됨. 연작중편집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와 장편 『모래 위에 세운 도시』 간행.

1990년 『한라산』이 고려원 문고로 간행됨.

1991년 산문집 『간헐 울음 열린 소리』, 민중자서전 『사삼사태로 반 죽었어, 반』(김승윤 구술) 간행.

1992년 제9회 요산문학상 수상. 콩트집 『그 짝글레기의 유품』, 장편 『칼과 보습』, 제주도 지명을 정리한 『제주토속지명사전』 간행.

1993년 중단편집 『어두운 시대의 초상화』 간행(제19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 장편 『불타는 섬』 《한라일보》 연재 시작. 예총 제주도지회장 취임.

1994년 장편 『크는 산』 간행.

1996년 『불타는 섬』 연재 끝냄. 중단편집 『겨울산행』, 산문집 『보랏빛 섬 이야기』 간행.

1997년 신천지아트센터 원장이 됨.

1998년 소설집 『푸른 보리밭』 간행.

- 1999년 소설집 『진혼 아리랑』(제36회 한국문학상 수상), 장편 『중소리 울려 퍼져라』 간행.
- 2000년 1월말 제주 곶 수송선을 타고 북한에 다녀옴. 『오성찬이 만난 20세기 제주 사람들』 간행. 장편 『죽은 장군의 증언』, 소년소설 『꿈꾸는 섬의 아이들』 간행.
- 2001년 2월에 뇌하수체 이상으로 수술. 소설집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제1회 제주문학상 수상), 산문집 『세기말 제주바다 물밑을 흐르며』 간행.
- 2002년 장편 『우리 시대의 애가』, 수상소설선집 『나비로의 환생』 간행. 5월 평양과 묘향산 방문.
- 2003년 『제주의 마을』 시리즈를 17권으로 마무리함. 소설집 『버려지는 사람들』 간행.
- 2004년 ‘오성찬 4·3문학선’ 『한라구절초』, 장편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간행. 주간신문 <<제주 투데이>> 이사 대우 기자로 입사.
- 2005년 12월에 오른쪽 눈 망막전막 수술 후 갑자기 시력이 나빠짐. 장편 『아아, 삼별초』, 산문집 『나비가 오지 않는다』 간행.
- 2006년 『오성찬 문학선집』(전 11권), 장편 『슬픈 몽골반점』 간행. 한국예술평론가협회의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문학부문)’ 수상.
- 2007년 장편 『꽃상여』 간행.
- 2012년 9월 26일 오전 1시 20분에 지병으로 별세.